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先秦文獻에 나타난 同源字 研究

- 舌音과 脣音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善 美

2012年 2月



The study of cognate Chinese characters

– focused on the lingual and laval sound –

Seon-Mi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ae-Cheol Ahn, Prof. of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2012. 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국문요약】	i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II. 同源字의 개술	2
1. 定義	3
2. 先人들의 認識	4
3. 近人들의 同源字 研究	6
4. 발생원인	7
5. 유사한 문자현상과의 구별	8
6. 판정 근거	10
III. 先秦文獻에 나타난 同源字 釋例	13
1. 舌音	13
1) 端母	13
2) 透母	43
3) 定母	55
4) 泥母	74
5) 來母	78
2. 脣音	102
1) 幫母	102
2) 滂母	127
3) 並母	140
4) 明母	147



IV. 결론	153
【참고문헌】	156
【ABSTRACT】	158

先秦文獻에 나타난 同源字 研究

- 舌音과 脣音을 중심으로 -

金 善 美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指導教授 安 在 哲

【국문요약】

본 논문은 同源字에 관한 연구이다. 동원자란 음이 비슷하면서 뜻이 같거나, 음이 같으면서 뜻이 비슷한 글자를 말한다.

본 논문이 동원자를 토론하려는 주요목적은 동원자의 음운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두 개의 글자, 혹은 그 이상의 글자가 의미방면으로 동원자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동원자를 系聯함에 있어서 王力이 《同源字典》에서 동원자로 제시한 일부 글자와 殷寄明的 《漢語同源字詞叢考》를 근거로 하여, 추정 가능한 의미파생 상황을 살펴보고 동원자로 추정되는 글자들을 찾아보았다. 내용의 양이 방대하여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넘어갈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舌音과 脣音을 중심으로 이들 글자가 동원자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것의 예문을 《詩經》에서 찾아 증명하였으며, 《詩經》에 없는 예문은 비슷한 시기의 선진문헌에서 찾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이 채용한 上古 추정음은 李珍華·周長楫의 《漢字古今音表》를 기준으로 삼았다.

본 논문의 글자들은 語音上으로 聲母에 있어서는 雙聲, 旁紐, 隣紐의 관계이었고, 韻部에 있어서는 疊韻,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의 관계이었다. 그리고 意義上으로는 同義, 引申義, 假借義 등의 관계로, 모두 “音近義同” 혹은 “音同

義近”으로 모두 同源字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聲符는 語音 뿐만 아니라 뜻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성부는 本義, 引伸義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聲符義가 本義, 引伸義와는 다르지만, 聲符義는 聲符字가 지칭하는 사물의 성질,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합해보면, 同源字는 語音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 사이에는 상당 부분 의미상의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성부가 동원자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形聲字의 聲符가 의미와 관계없이 “소리”만 나타내기도 하므로, 성부가 같다고 반드시 동원자인 것은 아니며, 서로 자형은 완전히 다르지만 동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동원자의 판단은 어음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는가가 관건이며 성부가 이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원시시대에는 어음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었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어음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러한 약속이 공인된 뒤에는, 언어 사용자들의 사고 속에 어떠한 어음은 어떤 특정한 의미와 상관성이 있다는 고정 관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 생성되는 어휘는 그 의미가 어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상관성을 갖게 되는 언어 현상이 나타나서 語族 (word family)을 형성하게 되었다.¹⁾

漢語 同源字 연구는 일찍이 전통훈고학에서 중시되었다. 그러나 전통훈고학에서의 同源字는 단지 고서 훈석의 단서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것이 언어의 각도에서 연구된 적이 없다. 근대에는 Karglen, 王力 등이 과학적으로 언어를 탐구하여 同源字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동일한 어원에 속하는 同源字들은 語音이 서로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으면, 의미도 서로 관련이 있거나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偏旁을 같이하는 글자들은 그 표층의 의미에서는 同源이라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경우 字源을 같이하는 同源字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편방이 전혀 같지 않은 글자들이 同源字이기도하다. 漢語에서 형체는 의미의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형체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字源이 같은 것은 아니며, 형체는 같지 않지만 語音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자들이 동원이기도 하다. 이것은 문자보다 언어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데, 문자는 때로 나타내하고자하는 의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의 단순한 書面적 표현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同源字에서 ‘同’은 완벽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

1)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p. 541

고, 同源字 연구는 따로 떨어져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자들을 의미와 어음의 관계를 살펴서 그들 간의 어원과 연계성을 밝혀 주는 작업인 것이다. 동원 연구는 글자와 글자간의 관계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대 중국어의 字義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同源字의 어음 관계로 上古 중국어의 음운연변 및 上古 중국어의 조어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同源字를 토론하려는 주요목적은 同源字의 어음관계로부터 시작하여, 두 개의 글자, 혹은 그 이상의 글자가 의미방면으로 同源字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同源字를 系聯함에 있어 王力이 《同源字典》²⁾에서 同源字로 제시한 일부 글자와 殷寄明의 《漢語同源字詞叢考》³⁾를 근거로 하여, 추정 가능한 의미파생 상황을 살펴보고 同源字로 추정되는 글자들을 찾아보았다. 또한 王력과 殷寄明은 하나의 聲符가 어떤 의의를 갖게 된 同源字를 글자로 推源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聲符로 推源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의 양이 방대하여 上古音에서 中古音으로 넘어갈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舌音과 脣音을 중심으로 이들 글자가 同源字임을 밝히고자 하였고, 아울러 그것의 예문을 《詩經》⁴⁾에서 찾아 증명하였으며 《詩經》에 없는 예문은 비슷한 시기의 선진문헌에서 찾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이 채용한 上古 추정음은 李珍華·周長楫의 《漢字古今音表》⁵⁾를 기준으로 삼았다.

同源字의 판정근거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王力の 同源字 판정근거에 따라 어음방면과 의미방면으로 나누어 同源字에 접근하고자 한다. 同源字는 음이 비슷하거나 같으면서, 의미도 비슷하거나 같아야 하므로 이 논문에서도 글자를 어음과 의미방면으로 나누어, 이들이 音近義同, 혹은 音同義近의 관계로 同源字인지 밝히고자 한다.

II. 同源字의 개술

2)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2.

3)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東方出版中心, 2007.

4) 본고의 譯文은 金學주의 譯文과 《毛傳》의 註釋을 참고하였다.

5)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3.

1. 定義

同源字의 정의에 대한 선인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陸宗達, 王寧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由同一根詞派生出來的詞叫同源派生詞. 簡稱同源詞.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글자를 동원파생자라 하고 간략하게 同源字라 칭한다.)⁶⁾

張世祿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所謂同源詞, 是指音近義通或音同義近, 可以認為同一詞源, 即表示相關意義的因素所派生出來的詞.

(同源字는 음이 비슷하고 뜻이 통해야 하거나, 음이 같고 뜻이 비슷한 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일한 어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意義의 요소와 관련되어 파생되어 나온 글자를 말한다.)⁷⁾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的字, 叫做同源字. 這些字都有同一來源. …同源字, 常常是以某一概念為中心, 而以語音的細微差別(或同音), 表示相近或相關的幾個概念. …爲什麼說它們是同源呢? 因爲它們在原始的時候本是一個詞, 完全同音, 後來分化爲兩個以上的讀音, 產生細微的意義差別.

(음과 뜻이 모두 비슷하거나, 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거나, 혹은 뜻이 비슷하고 음이 같은 글자를 모두 同源字라고 한다. 이러한 글자들은 모두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同源字는 항상 어떤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음의 미세한 차이 혹은 동음으로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몇 개의 개념을 나타낸다. … 그것들을 왜 동원이라고 하는가? 그것들은 본래는 한 개의 글자로 완전한 동음이었는데 나중에 두 개 이상의 독음이 되어 미세한 의미상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⁸⁾

6) 李研周, 〈漢語同源詞音韻研究〉, 臺灣大學校 박사학위논문, 中華民國84年, p. 1, 재인용.

7) 李研周, 위의 책, p. 1, 재인용.

8) 王力, 〈同源字論〉,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2, p. 3.

이상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되어 나온 同源字는 語音과 뜻이 ‘音近義同’ 혹은 ‘音同義近’의 관계이다. 同源字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고, 동일한 어근의 파생어로 형태와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 한편 많은 同源孳乳字⁹⁾는 聲符의 基本義와 상관없이 어떤 동일한 聲符로 同聲符의 同源字를 만들어 내기도한다. 예컨대 ‘眞’을 성부로 한 ‘填’, ‘寘’, ‘闕’, ‘璵’ 등의 글자들은 ‘더하다’는 뜻과 관계있지만, 성부 ‘眞’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동일한 성부만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성부의 基本義와 관계없는 同源字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진다.

2. 同源字에 대한 先人들의 認識

1) 聲訓

意義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글자들의 어음 역시 관련이 있다는 점은 고대인들도 自覺하고 있었다. 고대인들의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 ‘聲訓’이다. 聲訓은 被訓字를 동음 혹은 음이 가까운 글자로 풀이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고대인들이 어원을 탐구한 방법이었다.

‘聲訓’은 先秦의 典籍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易·說卦》‘乾, 健也. 坤, 順也(乾은 健이다. 坤은 順이다)’

‘聲訓’은 ‘A, B也’라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중 A와 B는 어음상 같거나 혹은 비슷하며, B는 A를 해석한 것이지만 해석은 문자의 표면상의 뜻이 아니고, A의 성질 혹은 작용이며, 또한 A의 ‘이름을 얻은 이유’이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이러한 글자들 사이의 音義關係를 이미 인식하였고, 아울러 그것들의 파생關係를 이미 어렵풋하게 느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漢代에 이르러 聲訓은 더욱 성행하였고 東漢 末에 劉熙는 《釋名》을 지어 聲

9) 어음과 의미가 모두 유사한 것.

訓을 집대성하였다.

2) 右文說

右文說은 北宋의 王子韶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右文은 聲符를 말하며 그것은 글자의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右文이라고 한다. 右文說을 주장한 학자들은 같은 성부의 글자의 뜻은 반드시 통한다고 하여 같은 성부의 諧聲字¹⁰⁾를 모아 성부에서 뜻을 구하고, 어음으로 일괄된 훈고의 시작을 열었다. 王子韶의 저작으로 《字解》 20권이 있는데 대개 ‘右文說’의 결과이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 沈括은 《夢溪筆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王聖美는 字를 연구하였는데, 뜻을 설명한 것을 우문이라 생각하였다. 고대의 字書는 모두 左文(왼쪽의 편방)을 따랐다. 모든 글자는 그 종류가 왼쪽에 있고, 뜻은 오른쪽에 있다. 예를 들면 나무의 종류는 그 글자의 왼쪽이 모두 ‘木’을 따른다. 右文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淺’은 ‘작다.’는 의미이다. 물이 작아 얇은 것을 ‘淺’, 쇠가 작은 것은 ‘錢’, 신체가 훼손되어 작아진 것을 ‘殘’, 돈의 가치가 적은 것은 ‘賤’이라 하니, 이런 것들은 모두 ‘淺’으로 뜻을 나타낸다.¹¹⁾

宋나라 사람의 ‘右文說’은 音義 관계를 연구하는 방면에서 발전하였으나, 형성자의 聲符에 모두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극단에 이르렀다.

清代에 이르러 훈고학자들은 宋人の ‘右文說’을 비평하였는데, 그들은 ‘右音說’을 제기하여, 동일한 성부의 형성자의 意義관계는 성부의 어음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다. 段玉裁의 ‘소리로써 뜻을 삼는다(以聲爲義)’라는 설과 黃承吉의 ‘글자의 뜻은 右旁의 소리에서 생긴다(字義起於右旁之聲)’라는 설 또한 ‘右文說’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3) 轉語說

10) ‘義符’와 ‘聲符’가 결합된 형태의 글자

11) 王聖美治字學, 演其義爲右文, 古之字書, 皆從左文, 凡字, 其類在左, 其義在右, 如木類, 其左皆從木, 所謂右文者, 如淺, 小也. 水之小者曰淺, 金之小者曰錢, 歹而小者曰殘, 具之小者曰賤. 如此之類, 皆以淺爲義也.

轉語란 시간의 흐름이나 언어 사용 지역 간의 차이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어떤 字의 어음이 변화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清代에 이르러 音韻學과 訓詁學이 모두 크게 진보하였기 때문에, 音訓 또한 공전의 발전을 이루었다. 馮高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다수는 소리로 뜻을 구한다는 규칙에 정통하였고, 馮高는 音當 소리로 뜻을 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먼저 戴震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는 ‘轉語’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戴震이 제창한 轉語說은 古音으로 글자와 글자의 연원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轉語’라는 말은 揚雄의 《方言》에서 나왔고, 戴震은 《轉語二十章》을 저술하였다. ‘轉語’는 ‘소리로 뜻을 구한다’는 방식을 馮高에 사용함으로써 經典의 假借字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轉語’의 연구는 戴震이 이론적 기초를 건립하였고, 戴震과 同時代의 程瑤田은 《果羸轉語記》를 저작하였다.

3. 近人들의 同源字 研究

清代의 학자들은 이미 어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관련이 있다는 현상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각은 그 뒤의 학자들로 하여금 同源字 및 그들이 형성하는 語族의 문제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키게 하였다. 그 결과 清末의 章炳麟은 《文始》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 근대적인 학문 방법을 익힌 Karglen, 王力 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Word Families in Chinese**, 《同源字典》 등이 편찬되었다.¹²⁾

또한 沈兼士는 《‘盧’之字族與義類》에서 ‘盧, 瀘, 黠, 鷓, 黎, 梨’ 등을 예로 들어 “盧聲의 글자는 ‘검다’는 뜻을 나타낸다.”¹³⁾고 하였고, 朱駿聲은 《小學識餘·形聲多兼會意之字》에서 “某聲을 따르는 글자는 某義가 있다.”라고 하고 모두 35개의

12)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1998, p. 131.

13)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 學林出版社, 1998, p. 56, 재인용.

성부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① 及聲：急義 ② 喬聲：高義 ③ 賁聲：大義 ④ 于聲：大義 ⑤ 句聲：曲義 ⑥ 冉聲：垂義 ⑦ 龍聲：雜義 ⑧ 柔聲：便義 ⑧ 勻聲：少義 ⑩ 葉聲：薄義 ⑪ 夨聲：屈義 ⑫ 叻聲：空義 ⑬ 云聲：回轉義 ⑭ 囀聲：回轉義 ⑮ 卓聲：高大義 ⑯ 奇聲：偏義 ⑰ 斯聲：散義 ⑱ 康聲：空義 ⑲ 農聲：厚義 ⑳ 皮聲：析義 ㉑ 寸聲：法度義 ㉒ 力聲：紋理義 ㉓ 眞聲：充實義 ㉔ 票聲：飛昇義 ㉕ 甬聲：涌起義 ㉖ 兀聲：孤高義 ㉗ 厥聲：發義 ㉘ 截聲：少義 ㉙ 八聲：分別義 ㉚ 兪聲：空義 ㉛ 段聲：紅義 ㉜ 曾聲：增義 ㉝ 匕聲：比義 ㉞ 吉聲：堅義 ㉟ 沓聲：重疊義¹⁴⁾

또한, 楊樹達은 《積微居小學金石論叢·形聲字聲旁有義略證》¹⁵⁾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① 藎聲：曲義 ② 燕聲, 晏聲：白義 ③ 曾聲：重, 加, 高 ④ 亦聲, 者聲, 朱聲, 段聲：赤義 ⑤ 呂, 旅, 盧聲：連立義 ⑥ 邕聲, 容聲, 庸聲：蔽塞義 ⑦ 卍聲：竝列 ⑧ 重聲, 竹聲, 農聲：厚義 ⑨ 取聲, 奏聲, 叻聲：會聚義

4. 同源字의 발생원인

同源字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王力은 字義의 분화, 방언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고, 姚榮松은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들었다.¹⁶⁾

① 字義의 분화

同源字의 성립은 인류언어의 발전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들어가는 추세에 근거하였고, 이런 추세가 어휘의 발전에서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다. 상고 시대의 사회와 생활은 간단하여 필요한 어휘도 제한적이었는데 그 후의 생활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문명은 나날이 진보하고, 사상은 더욱 정밀하게 표현되어, 원

14) 殷寄明, 위의 책, p. 57, 재인용.

15) 楊樹達, 《積微居小學金石論叢·形聲字聲旁有義略證》, 科學出版社, 1955, pp. 40~48

16) 李研周, 〈漢語同源詞音韻研究〉, 臺灣大學校 박사학위논문, 中華民國84年, p. 2, 재인용.

시시대에는 한 개의 글자였는데, 의미가 미세하게 구별되고 분화됨에 따라 두 개의 글자가 되었다. 예를 들면, ‘獲’과 ‘穫’, ‘暗’과 ‘闇’이다. 語音은 비록 분화되지 않았지만 그 뜻의 쓰임은 완전히 다르고, 字形 또한 두 개로 分化되었다. 이러한 글자를 同源字라 칭할 수 있다. ‘곡식을 심다’의 ‘收穫’, ‘사냥하다’의 ‘捕獲’은 초기에는 語音상의 구별이 없었고 실제로 하나의 글자가 달리 쓰였을 따름이다.

② 방언의 차이

고대 중국어방언의 어휘는 매우 풍부하였고, 현재의 자료는 대개 漢代의 方言이 主를 이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東漢時期의 수많은 고전문헌학자들의 고서 주해와 훈고서 가운데에 보인다.

《說文解字·辵部》1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逆, 迎也. 關東曰逆, 關西曰迎(영접하는 것이다. 관동에서는 ‘逆’이라하고, 관서에서는 ‘迎’이라 한다)

‘逆’과 ‘迎’은 지역 방언이고, 이들의 의미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方言은 음이 轉移가 되기 때문에 한 글자가 수많은 형과 수많은 음이 있지만, 결국 실은 동일한 語族이다.

③ 새로운 글자의 창조

어휘의 발전은 字義 혹은 어음의 분화 외에,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글자를 창조하여, 새로운 글자와 고대의 글자 사이는 항상 동원관계를 이룬다.

5. 유사한 문자현상과의 구별

17) 이후 《說文》이라 한다.

1) 同源字와 古今字

古今字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字가 시기에 따라 달라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고금자의 생성원인은 어음변화, 의미변화, 자형변화이다. 그 중 古字와 今字간의 어음, 의미가 관련을 갖지 못하면 동일 語族에 속하는 同源字라고 단정할 수 없다.

古今字는 古今分化字와 古今異體字로 나눌 수 있다. 古今異體字는 이론상 同源字와 어떤 관계도 없다. 王筠은 古今分化字를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본래의 의미가 假借義에 의해 대체되자, 편방을 더하여 그것과 구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假借로 말미암아 形成된 동음자이기 때문에 고금자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莫’과 ‘暮’이다. ‘莫’의 本義는 ‘해질 녘’이다. 부정사 ‘莫’은 본래 자신의 서사형식이 없었지만, 해질 녘의 ‘莫’과 동음이므로 ‘莫’을 借用하게 되었다. 이 ‘莫’字가 해질 녘의 ‘莫’으로 쓰이고, 또한 부정의 ‘莫’으로 쓰이게 되자 후에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해가 저물다’는 뜻의 글자로 ‘暮’字를 만들었다. ‘해가 저물다’는 뜻에 있어서 ‘莫’과 ‘暮’는 一組의 古今字인 同源字이다.

2) 同源字와 異體字

異體字란 音과 의미가 같으면서 자형이 다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글자이다. 王力은 異體字를 동일한 글자로 보아 同源字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예를 들면 ‘綫’과 ‘線’, ‘姻’과 ‘嫻’, ‘迹’과 ‘蹟’등이다. 이런 글자들의 音義는 완전히 같고, 형체만 다른 一組의 글자로, ‘同字’이지 ‘同源字’가 아니다. 그러나 《說文》은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部首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다른 글자로 생각하였는데, 실은 같은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다.

3) 同源字와 通假字

18) “異體字不是同源字，因為它們不是同義而是同字，即一個字的兩種或多種寫法。”，王力，《同源字典》，商務印書館，1987，p. 5.

通假字는 同源字가 아니다. 왜냐하면 통가자는 뜻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¹⁹⁾ 통가자는 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本字를 대체한 글자이다. 예를 들면 ‘蚤’는 ‘早’이다. 벼룩의 ‘蚤’와 早晚의 ‘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원이라 할 수 없다. 통가자와 本字와의 관계는 단지 글자의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이고, 의미상 어떤 관계도 없어 그것들은 어휘의 파생과는 무관하다. 즉 통가자는 의미와는 어떤 관계가 없으나 同源字는 반드시 의미와 관련이 있다.

4) 同源字와 形聲字

義符와 聲符가 결합하여 구성된 글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순수한 形聲字이고, 다른 한 가지는 兼聲會意字²⁰⁾로, 《說文》에서는 ‘亦聲’이라 하였다. 兼聲會意字는 義符로 종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흐리멍덩하다’는 ‘昏’, ‘결혼하다’는 ‘婚’의 ‘心’과 ‘女’는 구별이다. ‘昏’은 두 개 글자의 음과 意義에 있어 최대공약수인 ‘해가 저물다’를 겸하여 나타낸다. 순수 形聲字는 어휘파생과는 무관하여 同源字가 아니고, 兼聲會意字야말로 同源字이다. 王力도 또한 《同源字典》에서 兼聲會意字는 同源字라 하였다.²¹⁾

6. 판정근거

音近義同 혹은 音同義近的 관계는 주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학자들에 따라 판정근거가 다르지만, 그 중 가장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王力の 說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王力은 의미방면과 어음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의미방면으로는 互訓²²⁾, 同訓²³⁾, 通訓²⁴⁾, 聲訓²⁵⁾, 兼聲會意字²⁶⁾, 分別文²⁷⁾

19) “通假字不是同源字，因為它們不是同義詞，或意義相近的詞。” 王力, 《同源字典》，商務印書館, 1987, p. 5.

20) 王力은 ‘會議兼形聲字’라고 하였다.

21) “在漢字中，有所謂會議兼形聲字。這就是形聲字的聲符與其所諧的字有意義上的關連，即說文所謂‘亦聲’。‘亦聲’都是同源字。” 王力, 위의 책, p. 10.

22) 同義字나 이에 상당한 事를 취하여 字義를 상호 訓釋하는 것

을 통하여 同源字를 추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어음상으로는 上古音을 기준으로 韻部와 聲母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래에 이영주가 이것을 표로 만든 것을 소개한다.

(1) 韻部

王力은 韻部를 29개로 나누고 이를 韻尾에 따라 세 개로 대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여덟 개로 소분류 하였다.

〈韻表〉

(ㄱ) 類	-o	之部/-ə/	支部/-e/	魚部/-a/	侯部/-o/	宵部/-ô/	幽部/-u/
	-k	職部/-ək/	錫部/-ek/	鐸部/-ak/	屋部/-ok/	沃部 /-ôk/	覺部 /-uk/
	-ng	蒸部/-əng/	耕部 /-eng/	陽部 /-ang/	東部 /-ong/		
(ㄴ) 類	-i	微部/-əi/	脂部/-ei/	歌部/-ai/			
	-t	物部/-ət/	質部/-et/	月部/-at/			
	-n	文部/-ən/	眞部/-en/	元部/-an/			
(ㄷ) 類	-p	緝部/-əp/		盍部/-ap/			
	-m	侵部/-əm/		談部 /-am/			

이러한 분류로 疊韻,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韻部가 같은 것은 疊韻이다.

23) 두 개 이상의 被訓字가 같은 訓釋字에 의하여 풀이되는 형태.

24) 어떤 字의 풀이 중에 音義가 상관된 字가 있는 것

25) 동음 혹은 음이 비슷한 글자로 혼고하는 것.

26) 형성자의 성부는 그 字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설에 따른 것.

27) 초문의 의미가 인신, 가차되어 쓰이자, 字形上 分별하여 의미를 분담할 필요가 생겨서 다른 偏旁形符를 이용하여 만든 글자

2. 3개로 대분류 하였을 때 같은 類에 속하면서, 주요원음이 같고 운미만 다른 것은 對轉이다. 예를 들어 之部/-ə/와 職部/-ək/, 之部/-ə/와 蒸部/-əng/는 對轉이다.

3. 8개로 소분류 하였을 때 같은 類에 속하면서 韻部가 다른 것은 旁轉이다. 예를 들어 職部/-ək/와 鐸部/-ak/, 職部/-ək/와 屋部/-ok/는 旁轉이다. 이 韻部들은 주요원음이 비슷하고 운미가 같다.

4. 旁轉이 되고 나서 다시 對轉이 된 것이 旁對轉이다. 예를 들어 幽部/-u/와 屋部/-ok/는 旁對轉이다.

5. 3개로 대분류 하였을 때 類를 달리 하면서 주요원음이 같은 것이 通轉이다. 예를 들어 之部/-ə-와 文部/-ən/는 通轉이다. 주요원음은 같지만 운미의 발음 부위가 다르다.

(2) 聲母

王力은 聲母를 33개로 나누고, 이를 발음장소에 따라 5개로 대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7개로 소분류 하였다.

〈聲母表〉

喉	影/0-/							
牙	見/k-/	溪/k ^h -/	羣/g-/	疑/ng-/		曉/x-/	匣/h-/	
舌	舌頭	端/t-/	透/t ^h -/	定/d-/	泥/n-/	來/l-/		
	舌面	照/tj-/	穿/t ^h j-/	神/dj-/	日/nj-/	喻/j-/	審/sj-/	禪/zj-/
齒	正齒	莊/zh-/	初/ts ^h -/	牀/dzh-/			山/sh-/	俟/zh-/
	齒頭	精/tz-/	清/ts-/	從/dz-/			心/s-/	邪/z-/
脣	幫/p-/	滂/p ^h -/	並/b-/	明/m-/				

聲母의 관계는 다섯 가지이다.

1. 同母는 雙聲이다.

2. 聲母는 다르지만 5개로 대분류 하였을 때, 舌音과 齒音에 속하면서 발음 방법이 같은 것은 準雙聲이다. 예를 들어 端母/t-/와 照母/tj-/ , 泥母/n-/와 日母/nj-/이다.

3. 7개로 소분류 하였을 때, 같은 類에 속하면서 聲母가 다른 것은 旁紐이다. 예를 들어 見母/k-/와 群母/g-/ , 見母/k-/와 匣母/h-/이다.

4. 발음 방법이 다른 舌頭音과 舌面音, 正齒音과 齒頭音은 準旁紐이다. 예를 들면 透母/th-/와 神母/dj-/ , 定母/d-/와 喻母/j-/이다.

5. 5개로 대분류 하였을 때, 喉音과 牙音, 舌音과 齒音은 隣紐이다. 예를 들어 影母/o-/와 見母/k-/ , 神母/dj-/와 邪母/z-/이다. 鼻音과 鼻音, 鼻音과 變音도 隣紐이다. 예를 들어 疑母/ng-/와 泥母/n-/이다.

이상으로 同源字의 判定근거를 살펴보았다. 동원관계의 與否는 어음과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어음상으로 두 글자의 韻部가 疊韻,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의 관계이거나, 聲母가 雙聲, 準雙聲, 旁紐, 準旁紐, 隣紐의 관계이어야 하며, 동시에 의미상으로도 서로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Ⅲ. 先秦文獻에 나타난 同源字 釋例

同源字는 音이 같거나 비슷하고, 뜻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도 어음과 의미관계를 살펴보아 同源字에 접근하고자 한다. 표제자는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들의 성부를 표제자로 채택하였다. 범위는 上古音과 中古音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舌音(端母, 透母, 定母, 泥母, 來母)과 脣音(幫母, 滂母, 並母, 明母)으로 제한하였고, 아울러 이들의 用例를 《詩經》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詩經》에 없는 예문은 비슷한 시기의 선진문헌에서 찾았다.

1. 舌音

본 논문에서 언급한 舌音은 端母, 透母, 定母, 泥母, 來母에 속하는 글자들이다.

1) 端母

본 논문에서 언급할 端母의 글자들은 ‘刀’, ‘周’, ‘眞’, ‘隹’, ‘氏’, ‘耑’이다.

(1) 刀 : 小

殷寄明은 ‘刀聲’의 ‘작다’는 뜻의 同源字를 ‘小’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宵部·端母》에는 ‘刀’, ‘舠(船)’, ‘舠’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刀】

‘刀’의 本義는 ‘칼’이지만 ‘舠’로 가차되어 ‘작은 배’라는 뜻을 나타낸다.²⁸⁾ ‘작은 배’를 ‘刀’라고 하고, ‘刀聲’의 ‘舠’, ‘舠’, ‘舠’, ‘舠’, ‘舠’, ‘舠’ 등의 글자들이 ‘작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刀’에 ‘작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刀’가 ‘칼’과 ‘작은 배’라는 뜻으로 같이 쓰이자, ‘작은 배’라는 뜻의 후기자 ‘舠’를 만들었다.

【小】

‘小’는 《說文·小部》에 “物之微也(물체가 작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小’는 ‘작은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刀	端母宵部	都勞切	端心 隣紐, 宵部 疊韻
小	心母宵部	私兆切	

‘刀’와 ‘小’는 隣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刀’와 ‘小’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刀】

‘刀’의 本義는 ‘칼’이다. 《說文·刀部》에 “兵也. 象形(무기이다. 상형자이다)”이라고 하였고, 《殷墟甲骨文》에는 “독체상형자이며 칼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손잡이가 있고 칼날이 있다. 本義는 ‘칼’이며 명사이다.²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字

28) “刀假借爲‘舠’, 小船”,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65.

源流字典》에는 “本義는 고대의 병기의 일종이다. 또한 작은 배를 가리킨다.³⁰⁾” 고 하였고, 《形音義綜合大辭典》에도 “작은 배를 ‘刀’라 한다. ‘舠’와 통한다.³¹⁾”고 하였으므로 ‘작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刀聲’이 《詩經》에서 ‘작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衛風·河廣》 “曾不容刀(조그만 배 하나도 띄우지 못하거늘)”
2. 《陣風·防有鵲巢》 “邛有旨苕(언덕에는 맛있는 나물이 있도다)”
3. 《小雅·苕之華》 “苕之華(능소화여)”

위 예문의 ‘苕(능소화)’는 털이 작아 생긴 이름으로, ‘작다’는 뜻이 있다. 또한 ‘刀’가 《詩經》에서 ‘칼’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雅·公劉》 “鞞琫容刀(칼집과 장식한 칼이로다)”
2. 《小雅·信南山》 “執其鸞刀(그 방울 달린 칼을 잡고서)”

이로써 ‘刀’가 詩經時代에는 本義인 ‘칼’과 파생어인 ‘작은 배’가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小】

갈골문에서 ‘小’는 작은 모래의 형상으로, 本義는 ‘잘게 부서진 모래 알갱이’인데 ‘작다’는 뜻으로引伸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다음은 ‘小’가 《詩經》에서 ‘작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 《召南·小星》 “嘒彼小星(반짝이는 저 작은 별이여)”
- 《邶風·栢舟》 “慍于群小(여러 첩들에게 노여움을 당했노라)”
- 《秦風·小戎》 “小戎儻收(병거가 뒤턱나무가 얹으니)”
- 《小雅·采薇》 “小人所腓(소인이 따라가는 바로다)”

29) “獨體象物字，象刀形。有柄有刃。本義是刀，名詞”，馬如森，《殷墟甲骨文》，上海大學，2008，p. 106.

30) “本義爲古代的一種兵器，又指小船”，谷衍奎，《漢字源流字典》，語文出版社，2008，p. 15.

31) “小舟曰‘刀’通‘舠’”，《形音義綜合大辭典》，正中書局，1980，p. 140.

32) 谷衍奎，위의 책，p. 50.

- 《小雅·吉日》“發彼小豸(저 작은 암돼지 쏘아)”
- 《小雅·節南山》“無小人殆(소인으로 위태롭게 하지 말지어다)”
- 《小雅·正月》“哀我小心나의 소심함을 슬퍼함이어)”
- 《小雅·小宛》“惴惴小心(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
- 《小雅·谷風》“思我小怨(나의 작은 원망만 생각하시는구려)”
- 《小雅·大東》“小人所視(소인이 보는 바이니)”
 “小東大東(크고 적은 동쪽나라들)”
- 《小雅·楚茨》“小大稽首(젊은이나 늙은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 《小雅·角弓》“小人與屬(소인이 더불어 붙으리라)”
- 《大雅·大明》“小心翼翼(마음을 작게 하여 공경하사)”
- 《大雅·思齊》“小子有造(아이들은 이루는 것 있으니)”
- 《大雅·民勞》“汔可小康(거의 조금 편안하게 할지니)”
 “汔可小休(거의 조금 쉬게 할지니)”
 “汔可小息(거의 조금 쉬게 할지니)”
 “汔可小憫(거의 조금 쉬게 할지니)”
 “戒雖小子(네가 비록 작은 사람이니)”
 “汔可小安(거의 조금 편안하게 할지니)”
- 《大雅·板》“小子躑躅(소자는 교만하고 교만하도다)”
- 《大雅·蕩》“小大近喪(작은 자와 큰 자가 망함에 가깝거늘)”
- 《大雅·抑》“庶民小子(서민과 소자들에게)”
 “實虹小子(실로 소자를 어지럽히느니라)”
 “於乎小子(아아, 젊은이여)”
- 《大雅·烝民》“小心翼翼(조심하고 공경하며)”
- 《大雅·江漢》“無曰予小子(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 《周頌·閔予小子》“閔予小子(가련한 이 어린 자식)”
 “維予小子(이 어린 자식도)”
- 《周頌·訪落》“維予小子(나 어린 자식)”
- 《周頌·敬止》“維予小子(나 어린 자식)”
- 《魯頌·泮水》“無小無大(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것 없이)”
- 《商頌·長發》“受小國是達(작은 나라들을 받아 이에 통하셨으며)”
 “受小球大球(작은 옥과 큰 옥을 받으사)”

“受小共大共(소공과 대공을 받으사)”

이상에서 ‘刀’와 ‘小’는 隣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작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周 : 衆

殷寄明은 ‘周聲’의 ‘많다’는 뜻의 同源字를 ‘衆’으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幽部·定母》에는 ‘稠(稠)’, ‘鬻’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周】

‘周’는 《說文·口部》에 “密也(빽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빽빽한 것은 조밀한 것이고 조밀한 것은 많은 것이므로, ‘周’가 ‘많다’는 뜻이 된다.

【衆】

‘衆’은 《說文·血部》에 “多也. 從彖, 目, 衆意(많은 것이다. 彖과 目を 따르며 ‘매우 많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衆’은 ‘많다’는 뜻이다.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周	端母幽部	職流切	端母 雙聲, 幽東 旁對轉
衆	端母東部	職戎切	

‘周’와 ‘衆’은 雙聲, 旁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周’와 ‘衆’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

‘周’가 《殷墟甲骨文》에서는 “옥을 다스려 무늬를 꾸미는 모습이다. 本義는 ‘옥

을 다스리는 것'이다. 《說文》의 周는 本義가 아니다³³⁾”라고 하였고, 《漢字原流字典》에서는 “중에 돌출된 모양으로 새기는 것으로, ‘조각이 세밀하다’는 뜻이다. 彫의 초문이다³⁴⁾”라고 하였으므로, 《說文》의 “密也(빽빽한 것이다)”라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同源字典》에서 표제자로 쓴 ‘稠(綱)’, ‘鬻’는 ‘많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稠’의 本義는 ‘벼의 싹이 많다’는 것이고, ‘鬻’는 ‘머리카락이 많은 것’으로 두 글자의 공통의미는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周聲’이 《詩經》에서 ‘많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1. 《小雅·皇皇者華》“周爰咨諏(두루 이에 자문하노라)”
2. 《小雅·皇皇者華》‘周爰咨謀(두루 이에 묻고 꾀하리라)’
3. 《小雅·皇皇者華》‘周爰咨度(두루 이에 묻고 헤아려보리라)’
4. 《小雅·皇皇者華》‘周爰咨詢(두루 이에 묻고 헤아려보리라)’
5. 《大雅·緜》‘周爰執事(두루 이에 일을 집행 하니라)’
6. 《唐風·有杕之杜》‘生于道周(길모퉁이에 났도다)’
7. 《國風·周南·卷耳》‘寘彼周行(저 큰 길에 버려두노라)’
8. 《小雅·鹿鳴》‘示我周行(나에게 큰 길을 보여 줄지어다)’
9. 《小雅·小弁》‘踟蹰周道(평탄한 큰 길이어)’
10. 《小雅·何草不黃》‘行彼周道(저 큰 길을 가도다)’
11. 《唐風·綢繆》‘綢繆束薪(칭칭 동여 나뭇단을 묶는데)’
12. 《唐風·綢繆》‘綢繆束芻(칭칭 동여 꼴을 묶는데)’
13. 《唐風·綢繆》‘綢繆束楚(칭칭 동여 나무를 묶는데)’
14. 《邠風·鸛鳴》‘綢繆牖戶(창문과 방문을 엮어서 칭칭 동여매면)’
15. 《小雅·都人士》‘綢直如髮(빽빽하고 곧음이 머리털 같도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5는 ‘두루’, 6은 ‘구부러지다’, 7~10은 ‘크다’, 11~15는 ‘많다’는 뜻이다. 많은 것은 큰 것과 통하고, 많으면 구부러지고, 많으면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과도 통하여 ‘많다’는 뜻과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3) “象治玉琢文之形, 本義是治玉. 許說非本義”,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37.

34) “甲骨文象鐘體上雕滿乳突形, 表示彫刻細密之義, 當是‘彫’的初文”,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81.

‘周聲’이 《詩經》에서는 주로 ‘많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몇 가지 예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기도 하며, ‘많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大雅·雲漢》“靡人不周(구휼하지 않는 이가 없어)”
2. 《大雅·崧高》“周邦咸喜(주나라가 다 기뻐하여)”
3. 《小雅·都人士》“行歸于周(주나라에 돌아가거든)”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구하다’, 2~3은 ‘周나라’의 의미로 쓰였으며 ‘구하다’, ‘周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衆】

갑골문에서 ‘衆’은 ‘세 사람이 햇빛아래에서 일하는 모습이다³⁵⁾’이다. 고대에는 세 사람이 모이면 많다고 생각하였으므로, ‘衆’이 ‘많다’는 뜻을 나타내게 된 것 같다. 《說文》의 “多也(많은 것이다)”라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다음은 ‘衆’이 《詩經》에서 ‘많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公劉》“爰衆爰有(무리가 많아지고 재물이 풍족해져)”

《鄘風·載馳》“衆穉且狂(모두가 어리고 또한 미쳤도다)”

《小雅·無羊》“衆維魚矣(백성이 고기가 되며)”

《周頌·臣工》“命我衆人(우리 농부들에게 명하여)”

이상에서 ‘周’와 ‘衆’은 雙聲, 旁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많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眞：頂：天：定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耕部·端母》에는 ‘頂’, ‘顛’, ‘巔’, ‘禛’, ‘天’, ‘定(顛)’, ‘題’는 동원이라

35) “人在日下勞作之形”,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96.

하였다.

(1)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眞】

‘眞’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지만, ‘眞聲’에 ‘꼭대기’의 뜻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은 ‘眞聲’의 ‘顛’, ‘橫’, ‘頓’, ‘巔’ 등의 글자들이 ‘꼭대기’라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眞’에 ‘꼭대기’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頂】

‘頂’은 《說文·頁部》에 “顛也(정수리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머리꼭대기’이다. ‘인체의 꼭대기’라는 뜻에서 ‘모든 사물의 꼭대기’라는 뜻으로 인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頂’은 형성자이며 形符는 ‘顛’과 같아 또한 ‘꼭대기’의 뜻이 된다.

【天】

‘天’은 《說文·一部》에 “顛也(꼭대기이다)”라고 하였다. ‘天’의 갑골문은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一’은 ‘하늘’을 가리킨다. 本義는 ‘사람의 머리’이다.³⁶⁾ ‘머리’는 인체의 꼭대기이므로, ‘모든 사물의 꼭대기’라는 뜻으로 인신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하늘 또한 머리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하늘’로 인신되었다.

【定】

‘定’의 本義는 ‘안정’으로 《說文》에 “安也(안정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爾雅·釋言》에는 “題也(이마이다)”라고 하였다. ‘이마’ 역시 인체의 꼭대기 부분이므로 ‘모든 사물의 꼭대기’라는 뜻으로 인신 되었을 것이다. ‘定’이 ‘이마’의 뜻과 ‘안정되다’의 뜻을 같이 나타내자,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이마’의 뜻을 나타내는 ‘顛’이라는 후기자를 만들었다.

36) “象正面立式人形. 頭上的‘一’, ‘口’以示天. 本義是人的頭頂”,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1.

【題】

‘題’는 《說文·頁部》에 “額也(이마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이마’로, 인신되어 ‘사물의 끝부분’을 말한다. ‘사물의 끝부분’은 ‘사물의 꼭대기’이므로 ‘꼭대기’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다섯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眞	端母眞部	側鄰切	端母 雙聲, 端透 旁紐, 端定 旁紐, 透定 旁紐, 眞部 疊韻, 眞耕 通轉, 耕支 對轉, 眞支 對轉
頂	端母耕部	都挺切	
天	透母眞部	他前切	
定	定母耕部	徒徑切	
題	定母支部	杜奚切	

‘眞’과 ‘頂’은 雙聲, 通轉, ‘眞’과 ‘天’은 旁紐, 疊韻, ‘眞’과 ‘定’은 旁紐, 疊韻, ‘眞’과 ‘題’는 旁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眞’, ‘頂’, ‘天’, ‘定’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

‘眞’은 《漢字源流字典》에는 “검성회의자이다. 갑골문은 사람이 국자를 가지고 술에 음식을 취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本義는 ‘맛있는 음식’으로 ‘山海珍味’의 ‘珍’의 본자이다.³⁷⁾”라고 하였고, 《說文·匕部》에서는 “僊人變形而登天也. 從匕, 從目, 從乚; 八, 所乘載也(長生不死한 사람의 형체가 변하여 昇天하는 것이다. 匕, 目, 乚을 따른 회의자이다. 八은 昇天할 때 타는 風雲류의 工具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眞’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眞聲’을 성부로 한 글자들이 ‘꼭대기’라는 뜻과 관계 되는데, 王力과 殷寄明은 ‘眞聲’의 同源字들 ‘頂’, ‘天’으로 推源하였다. 《同源字典》에 제시된 ‘顛’, ‘巔’, ‘檣’을 살펴보면, ‘顛’은 ‘사람의 꼭대기’, ‘巔’은 ‘산의 꼭대기’, ‘檣’은 ‘나무의 꼭대기’로 모두 ‘꼭대기’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37) “甲骨文會人持匕就鼎取食美味之意, 本義當爲美食美味. 是‘山海珍味’的‘珍’的本字.”,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010.

다음은 ‘眞聲’이 《詩經》에서 ‘꼭대기’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秦風·車鄰》“有馬白顛(말은 이마가 희도다)”

《唐風·采芣》“首陽之巔(수양의 산마루에서 할 것인가)”

‘眞聲’이 《詩經》에서 ‘꼭대기’라는 뜻과 관련되지 않기도 하며, ‘꼭대기’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雅·雲漢》“胡寧瘖我以旱(어찌 나를 가뭄으로써 병들게 하는고)”

《大雅·召旻》“瘖我饑饉(우리를 굶주려 병들게 하여)”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를 보면 ‘병’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頂】

‘頂’은 ‘정수리’로 ‘꼭대기’의 뜻이 있다. 갑골문, 금문에는 보이지 않고 篆文에 보인다. 《詩經》에서는 ‘頂’이 쓰인 예가 없고, 비슷한 시기의 《易經》에 ‘꼭대기’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이 보이는데 아래와 같다.

《易·大過》“過涉滅頂(지나치게 건너다 이마를 멸함이라)”

【天】

‘天’의 本義는 ‘머리’이고, ‘머리’는 ‘꼭대기’이다. ‘하늘’이라는 뜻은 ‘세상의 꼭대기’라는 뜻으로 인식된 결과일 것이다.

다음은 ‘天’이 《詩經》에 ‘꼭대기’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北門》“天實爲之(하늘이 실로 이렇게 하시니)”

《鄘風·柏舟》“母也天只(어머니여 하늘이시니)”

【定】

‘定’의 本義는 《殷墟甲骨文》에 “宀”을 따르고, ‘足’을 따른다. ‘足’은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本義는 ‘안정’이다³⁸⁾”라고 하였다. 그러나 ‘定’은 또한 ‘이마’라는 뜻을 나타내며, ‘꼭대기’라는 뜻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은 ‘定’이 《詩經》에서 ‘꼭대기’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南·麟之趾》‘麟之定(기린의 이마여)’

그러나 《詩經》에는 ‘꼭대기’의 뜻보다는 ‘정하다’, ‘안정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였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邶風·日月》“胡能有定(어찌 능히 정함이 있으리오마는)”
2. 《小雅·采薇》“我戍未定(우리 수자리일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으니)”
3. 《小雅·正月》“既克有定(이미 능히 정함이 있으면)”
4. 《大雅·大明》“文定厥祥(예로 그 길함을 정하시교)”
5. 《大雅·桑柔》“靡所定處(정할 처처가 없으니)”
6. 《大雅·崧高》“定申伯之宅(신백의 집을 정하사)”
7. 《周頌·武》“耆定爾功(네 공을 정함에 이르셨다)”
8. 《鄘風·定之方中》“定之方中(정성이 바야흐로 가운데에 있거늘)”
9. 《小雅·天保》“天保定爾(하늘이 그대를 편안하게 하심이)”
10. 《小雅·采芣》“豈敢定居(어찌 감히 편안히 거처하리오)”
11. 《小雅·六月》“以定王國(왕국을 안정케 하리로다)”
12. 《小雅·節南山》“亂靡有定(난이 안정되지 아니하여)”
13. 《大雅·民勞》“以定我王(우리 왕을 안정하게 하리라)”
14. 《大雅·抑》“訏謨定命(계책을 크게 하고 명을 안정되게 하며)”
15. 《大雅·江漢》“王國庶定(왕국이 거의 안정되었도다)”
16. 《大雅·瞻卬》“邦靡有定(나라가 안정됨이 없어서)”
17. 《周頌·桓》“克定厥家(능히 그 나라를 안정시키니)”
18. 《周頌·賚》“我徂維求定(내 가서 안정을 구하니라)”

38) “從宀，從足，止以示人走入居室。本義是安定”，馬如森，《殷墟甲骨文》，上海大學，2008，p. 173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7은 ‘정하다.’, 8은 ‘별자리’, 9~18은 ‘안정되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로써 ‘定’이 先秦時期에 이미 本義외에 引伸義, 假借義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글자가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題】

‘題’의 本義는 ‘이마’이며, ‘이마’는 머리의 꼭대기부분이다. ‘題’가 《詩經》에서 ‘꼭대기’라는 뜻으로 쓰인 例는 없고, 《莊子》에 보인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莊子·馬蹄》“齊之以月題(이마에 달 모양의 굴레를 붙이면)”

한편, ‘題’가 《詩經》에서는 ‘꼭대기’의 뜻이 아닌 ‘보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雅·小宛》‘題彼脊令(저 척령새를 보건대)’

‘題’가 ‘보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眞’과 ‘頂’은 雙聲, 通轉, ‘眞’과 ‘天’은 旁紐, 疊韻, ‘眞’과 ‘定’은 旁紐, 疊韻, ‘眞’과 ‘題’는 旁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꼭대기’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 眞 : 添

殷寄明은 ‘眞聲’의 ‘더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添’으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眞部·定母》에는 ‘填’, ‘寘’, ‘璣’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眞】

‘眞’의 의미항목에는 ‘더하다’는 뜻이 없다. 그러나 ‘眞聲’의 ‘墳’, ‘寘’, ‘闕’, ‘瑱’ 등의 글자들이 ‘메우다’는 뜻과 관계가 있고, 메우는 것은 물건을 더하는 것이므로 ‘眞’에 ‘더하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添】

‘添’은 《說文·水部》에 “添(沾), 一曰, 益也. 從水, 占聲(다른 의미로 ‘더하여 보태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添’은 ‘더하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眞	端母眞部	側鄰切	端透 旁紐, 眞談通轉
添	透母談部	他兼切	

‘眞’과 ‘添’은 旁紐, 通轉의 關係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眞’과 ‘添’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

‘眞’은 ‘더하다’는 뜻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同源字典》에서 표제자로 삼은 ‘墳’, ‘寘’, ‘瑱’을 살펴보면, ‘더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墳’은 ‘흙으로 메우는 것’이고, ‘寘’은 ‘구멍을 막는 것’이고, ‘瑱’은 ‘고대인들이 모자 양 옆에 늘어뜨려 귀를 막는데 쓰던 옥’으로 모두 ‘메우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메우는 것’은 ‘더하다’는 뜻과 통한다.

다음은 ‘眞聲’이 《詩經》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鄘風·君子偕老》 “玉之瑱也(옥으로 만든 귀막이여)”

그러나 《詩經》에서는 ‘더하다’는 뜻과 관련되지 않은 예가 많이 있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小雅·小宛》“哀我填寡(가엾다, 우리 병들고 약한 이여)”
2. 《大雅·桑柔》“倉兄填兮(슬프고 마음 아파하는 것 오래하니)”
3. 《大雅·瞻卬》“孔填不寧(심히 오래도록 편치 못하여)”
4. 《大雅·召旻》“孔填不寧(심히 오래도록 편치 못하여)”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병’, 2~4는 ‘오래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添】

‘添’은 《玉篇·水部》에 “益也(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說文》에도 ‘더하는 것’이라 하였다. ‘添’이 갑골문에서도 보이지 않고, 《詩經》에서도 쓰인 예가 없어 唐의 杜甫의 詩를 예를 들었다.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新添水檻供垂釣(새로 난간에 물을 부어 낚시줄 드리우고)”

이상에서 ‘眞’과 ‘添’은 旁紐, 通轉의 關係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더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眞 : 參

성부와 성부가 同源字임을 증명하기 위해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眞部·照母》에는 ‘稹’, ‘纈’, ‘禛’, ‘鬢(參)’은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眞】

‘眞’의 의미항목에 ‘조밀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眞聲’의 ‘稹’, ‘纈’, ‘禛’, ‘鬢’, ‘濱’, ‘噴’, ‘瞋’, ‘闢’ 등의 글자가 ‘조밀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眞聲’에는 ‘조밀하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參】

‘參’은 《說文·彡部》에 “稠髮也(머리카락이 조밀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參’은 ‘조밀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眞	端母眞部	側鄰切	端母 雙聲, 眞文 旁轉
參	端母文部	章忍切	

‘眞’과 ‘參’은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眞’과 ‘參’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

‘眞’은 ‘조밀하다’는 뜻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稹’, ‘縝’, ‘楨’, ‘鬢’의 글자를 살펴보면, ‘稹’은 ‘벼가 조밀한 것’이고, ‘縝’은 ‘실이 조밀한 것’이고, ‘鬢’은 ‘머리카락이 조밀한 것’으로, 모두 ‘조밀하다’는 뜻과 관련된다.

다음은 ‘眞聲’이 《詩經》에서 ‘조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采芣》“振旅闐闐(군사를 거둠에 북소리가 웅장하도다)”

위의 ‘闐’은 ‘가득 찬 것’으로 ‘조밀하다’라는 뜻과 통한다.

【參】

‘參’은 ‘人’을 따르고 ‘彡’을 따르는 회의자이며, 머리카락이 많고 조밀한 것을 가리킨다.

아래는 ‘參’이 《詩經》에서 ‘조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鄘風·君子偕老》“參髮如雲(술 많은 머리 구름과 같으니)”

이상에서 ‘眞’과 ‘𣎵’은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조밀하다’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眞 : 失

성부와 성부가 同源字임을 증명하기 위해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質部·端母》에 ‘跌’, ‘朕’, ‘顛(趙)’, ‘禛’은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眞】

‘眞’의 의미항목에는 ‘넘어지다’는 뜻은 없으나, ‘眞聲’의 ‘眞’, ‘蹟’, ‘趙’, ‘禛’, ‘眞’ 등의 글자들이 ‘넘어지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眞’에 ‘넘어지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失】

‘失’의 의미항목에도 ‘넘어지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失聲’의 ‘跌’, ‘朕’, ‘朕’ 등의 글자들이 ‘넘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失’에 ‘넘어지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眞	端母眞部	側鄰切	端透 旁紐, 眞質 對轉
失	透母質部	式質切	

‘眞’과 ‘失’은 旁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眞’과 ‘失’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

‘眞’의 本義는 사람이 국자를 가지고 술에 음식을 취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³⁹⁾ 그러나 《同源字典》에 제시된 ‘顛(趙)’, ‘槿’에는 ‘넘어지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槿’은 《說文·木部》에 “一曰仆木也(또한 넘어진 나무이다)”라고 하여 나무가 넘어지는 것이고, ‘顛’의 本義는 ‘사람의 머리’로, ‘넘어지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漢字源流字典》에 의하면 “한 사람은 바르게 있고, 다른 사람은 넘어져있는 모습에서 ‘넘어지다’는 뜻으로 인신되었다⁴⁰⁾”라고 하였다. 사람이 넘어진 것이 ‘顛’, 나무가 넘어진 것이 ‘槿’이다. ‘趙 또한 빨리 뛰어가다 넘어지는 것이다. ‘走’의 뜻은 ‘큰 걸음으로 뛰어나는 것’으로, 고전에는 ‘빨리 뛰다’, ‘도망가다’의 뜻으로 많이 풀이되었다. 《說文·走部》에 “走頓也. 從走, 眞聲. 讀若顛(빨리 뿔 때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走를 따르며, 眞聲이다. 顛처럼 읽는다)”라고 하여 ‘眞聲’의 글자들이 ‘넘어지다’는 뜻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眞聲이 《詩經》에서 ‘넘어지다’의 뜻으로 쓰인 例이다.

1. 《齊風·東方未明》“顛倒衣裳(윗도리와 아랫도리가 뒤집어졌노라)”
2. 《齊風·東方未明》“顛之倒之(엎어지고 거꾸러지고 하거늘)”
3. 《陳風·墓門》“顛倒思予(엎어지고 거꾸러진 뒤에나 나를 생각하리로다)”
4. 《大雅·蕩》“顛沛之揭(나무가 넘어져 뿌리가 뽑힘에)”
5. 《大雅·抑》“顛覆厥德(그 덕을 엎어지게 하고)”

위 항목 1의 ‘顛’은 ‘뒤집어지다’는 뜻으로, ‘뒤집어 지는 것’ 또한 ‘넘어지다’는 뜻과 관련된다. 넘어지는 것은 꼭 바로 서있는 것이 뒤집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失】

‘失’은 《說文·手部》에 “失, 縱也. 從手, 乙聲(손을 놓아서 떨어지는 것이다. 手를 따르고 乙聲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잃은 것’이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跌’, ‘舐’은 ‘넘어지다’는 뜻이다. ‘跌’은 ‘발을 헛디뎠 넘어지는 것’이고, ‘舐’은 ‘뺨이 어긋나서 넘어지는 것’이다. 또한 ‘眈’은 ‘해가 기우는 것’으로, 기울면 넘어지므로 ‘넘어지다’는 뜻과 관련된다.

39)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010.

40) “由於顛是從一正一倒的二人取義, 故又表示位置倒置”, 谷衍奎, 위의 책, 2008, p. 1863.

‘失聲’이 《詩經》에서 ‘넘어지다’로 쓰인 예가 없어 비슷한 선진시기의 문헌인 《荀子》에서 그 예를 찾아보았다. 다음은 ‘失聲’이 ‘넘어지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荀子·王霸》“此夫過舉踴步而覺跌千里者夫(반걸음을 건너라도 쉬지 않으면 절룩거리며 가는 사람이라도 천리를 갈 수 있다)”

한편, ‘失’이 《詩經》에서는 ‘넘어지다’는 뜻이 아닌 本義인 ‘잃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雅·伐木》“民之失德(백성의 덕 잃음은)”

《小雅·車攻》“不失其馳(그 달리고 모는 것을 잃지 않거늘)”

이상에서 ‘眞’과 ‘失’은 旁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넘어지다’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6) 隹 : 墩

성부와 성부의 同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微部·端母》에 ‘堆’, ‘墩’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隹】

‘隹’는 《集韻》에서 “與崔同. 崔崔, 高大也(‘崔’와 같다. ‘崔崔’는 높고 큰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隹’가 ‘높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墩】

‘墩’은 《廣韻》에서 “平地有堆者(평지에 쌓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흙을 쌓으

면 높아지므로 ‘높다’는 뜻이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隹	端母微部	職追切	端母 雙聲, 微文 對轉
墩 ⁴¹⁾	端母文部	都昆切	

‘隹’와 ‘墩’은 雙聲,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隹’와 ‘墩’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隹】

‘隹’는 새 이름이다. 《說文·隹部》에 “鳥之短尾總名也(꼬리가 짧은 새의 총칭이다)”고 하였으므로, ‘높다’는 뜻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王力이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堆’는 ‘흙이 쌓인 것’을 가리키고, ‘隹聲’의 ‘堆’, ‘隹’, ‘隹’, ‘崔’, ‘顛’, ‘崖’, ‘錐’ 등의 글자들이 ‘높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隹’는 ‘높은 것’이다.

아래는 ‘隹聲’이 《詩經》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南·卷耳》“陟彼崔嵬(저 높은 산에 오르려 하나)”

《齊風·南山》“南山崔崔(남산은 높고 높아)”

《小雅·谷風》“維山崔嵬(오직 산 높은 곳에서 부나)”

【墩】

‘墩’은 《說文》에는 없다. 《漢字源流字典》에서는 “本義는 흙을 쌓는 것이다⁴²⁾”라고 하였다. 흙을 쌓으면 주위보다 높아지므로, ‘높다’는 뜻을 나타낸다.

‘墩’이 《詩經》에는 쓰인 예는 없고, 唐의 崔國輔의 詩에서 보인다. 다음은 崔國輔의 詩 《漂母岸》에 ‘墩’이 ‘높다’는 의미로 쓰인 예이다.

41) 《漢字古今音表》에 ‘墩’의 상고음은 없으나 ‘敦’과 ‘燼’이 端母文部이므로, ‘墩’ 또한 端母文部임을 추정할 수 있다.

42) “本義爲土堆”,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778,

《漂母岸》“上有一孤墩(사주 위에 외로운 흙더미)”

이상에서 ‘佳’와 ‘墩’은 雙聲,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높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8) 氏 : 至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指部·端母》에 ‘氏’, ‘抵’, ‘邸’, ‘底(底)’, ‘至’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氏】

‘氏’는 《說文·氏部》에서 “至也(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至】

‘至’는 《廣韻》에서 “到也(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至’ 또한 ‘이르다’는 뜻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氏	端母脂部	丁尼切	端母 雙聲, 脂部 疊韻
至	端母脂部	脂利切	

‘氏’와 ‘至’는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氏’와 ‘至’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氏】

‘氏’의 本義는 ‘뿌리’로, ‘이르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氏聲’의 글자인 ‘抵’, ‘邸’,

‘底’, ‘底’ 등은 ‘이르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

다음은 ‘氏聲’이 《詩經》에서 ‘이르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祈父》“靡所底止(이르러 그칠 곳이 없게 하느고)”

《小雅·小旻》“伊于胡底(저 어찌 이르는 곳이 있으랴)”

【至】

‘至’의 本義는 ‘새가 이르는 것’이 아니고 ‘화살이 이르는 것’이다. 《殷墟甲骨文》에서는 “갑골문에서 ‘至’는 화살이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으로 本義는 ‘이르는 것’이다⁴³⁾”라고 하였고, 《說文·至部》에서는 “鳥飛從高下至地也. 從一, 一猶地也. 象形. 不, 上去; 而至, 下來也(새가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一을 따르는데, 一은 흡사 地面과 같다. ‘不’자는 새가 위로 날아올라가는 것이고 ‘至’자는 새가 아래로 날아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說文》의 풀이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至’가 《詩經》에서 ‘이르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鄘風·載馳》“言至于漕(초나라에 이르니)”
2. 《衛風·氓》“至于頓丘(둔구에 이르느라)”
3. 《王風·君子于役》“曷至哉(어디에 계시느고)”
4. 《秦風·終南》“君子至止(군자가 이르시니)”
5. 《秦風·渭陽》“曰至渭陽(위수 남쪽에 이르게 하였노라)”
6. 《豳風·七月》“田峻至喜(권농관이 이르러 기뻐하니라)”
7. 《豳風·東山》“我征聿至(내가 가는 길이 마침내 이르도다)”
8. 《小雅·天保》“如川之方至(넋물이 바야흐로 이르는 것 같아서)”
9. 《小雅·杕杜》“期逝不至(기약이 이미 지났는데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10. 《小雅·六月》“至于涇陽(경수의 북쪽에 이르렀거늘)”
11. 《小雅·六月》“至于大原(태원에 이르니)”
12. 《小雅·庭燎》“君子至止(군자가 이르니)”
13. 《小雅·蓼莪》“入則靡至(들어가면 이를 곳이 없노라)”

43) “字象箭射中之形, 本義是到”,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263.

14. 《小雅·小明》“至于芄野(구야에 이르니)”
15. 《小雅·甫田》“田峻至喜(권농관이 이르러 기뻐하니라)”
16. 《小雅·大田》“田峻至喜(권농관이 이르러 기뻐하니라)”
17. 《小雅·瞻彼洛矣》“君子至止(군자가 이르니)”
18. 《小雅·角弓》“至于已斯亡(이 망하는데 이를 뿐이로다)”
19. 《大雅·緜》“至于岐下(기산 아래에 이르시니)”
20. 《大雅·思齊》“至于兄弟(형제에게 이르러)”
21. 《大雅·桑柔》“至今爲梗(지금에 이르러 병 되게 하였는고)”
22. 《大雅·江漢》“至于南海(남해에까지 이르도다)”
23. 《周頌·雝》“至止肅肅(이르러 그침에 공경스럽도다)”
24. 《魯頌·閟宮》“至于文武(문왕과 무왕에 이르러서)”
25. 《魯頌·閟宮》“至于海邦(바닷가에까지 이르니)”
26. 《商頌·長發》“至于湯齊(탕임금에 이르러 부합되었으니)”
27. 《小雅·賓之初筵》“百禮既至(백가지 예를 이미 지극히 하니)”

위 예문의 27은 ‘지극하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지극하다’는 뜻 또한 ‘이르다’라는 뜻과 통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달한 곳이 가장 멀고 가장 높은 곳은 극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氏’와 ‘至’는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이르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9) 氏 : 戾

殷寄明은 ‘氏聲’의 ‘저촉되다’는 뜻의 同源字를 ‘戾’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指部·端母》에는 ‘抵’, ‘擠’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氏】

‘氏’의 本義는 ‘뿌리’로, ‘모순되다’는 의미항목은 없다. ‘뿌리’는 땅을 뚫고 나오

는 것이고, 이것은 땅과 부딪치는 것이므로, ‘𤝵’가 ‘모순되다’는 뜻을 갖게 된 이
유인 것 같다. 그리고 ‘𤝵聲’의 ‘𤝵’, ‘抵’, ‘砥’, ‘邸’, ‘詆’, ‘𤝵’ 등의 글자들이 ‘모순되
다’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𤝵’에 ‘모순되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𤝵】

‘𤝵’는 《廣韻·霽韻》에 “乖也(어그러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그러지는 것’
은 맞지 않은 것이고, 이는 모순되는 것이므로 ‘𤝵’는 ‘모순되다’는 뜻과 관련이
된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𤝵	端母脂部	丁尼切	端來 旁紐, 脂部 疊韻
𤝵	來母脂部	郎計切	

‘𤝵’와 ‘𤝵’는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𤝵’와 ‘𤝵’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𤝵】

‘𤝵’의 本義는 ‘뿌리’이다. ‘𤝵聲’의 글자들은 ‘모순되다’와 관계된 뜻을 갖는데,
殷奇明은 ‘𤝵聲’의 同源字를 ‘𤝵’로 推源하였고, 王力은 ‘擠’와 동원이라 하였다.

‘𤝵聲’이 《詩經》에서 ‘모순되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荀子》에 보인다. 다
음은 ‘𤝵聲’이 《荀子》에서 ‘모순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荀子·非十二子》“觸抵者也(저촉되는 자이며)”

【𤝵】

‘𤝵’의 本義는 ‘굽은 것’이다. 《說文·犬部》에 “曲也. 從犬出戶下(굽은 것이다. 개
가 문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굽은 것은 모순된 것이다.

다음은 ‘𤝵’가 《詩經》에서 ‘모순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節南山》“降此大戾(크게 어긋남을 내리셨다)”

《大雅·抑》“亦維斯戾(또한 오직 이 어긋남이로다)”

그밖에 戾가 《詩經》에서 ‘이르다’(1~8), ‘안정되다’(9~11)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小雅·采芣》“其飛戾天(그 나뭇잎이 하늘에 이르며)”
2. 《小雅·小宛》“翰飛戾天(날개로 날아서 하늘에 이르도다)”
3. 《小雅·四月》“翰飛戾天(날개로 날아서 하늘에 이르도다)”
4. 《小雅·采芣》“亦是戾矣(또한 이에 이르도다)”
5. 《大雅·旱麓》“鳶飛戾天(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6. 《周頌·振鷺》“我客戾止(우리 손님이 이르나니)”
7. 《周頌·有瞽》“我客戾止(우리 손님이 이르셔서)”
8. 《魯頌·泮水》“魯侯戾止(노나라 제후가 이르시니)”
9. 《小雅·雨無正》“靡所上戾(그쳐서 정할 바가 없으며)”
10. 《大雅·桑柔》“民之未戾(백성들의 정하지 못함은)”
11. 《大雅·雲漢》“以戾庶正(서정을 안정시키려 함이니라)”

위 예문에 사용된 ‘戾’의 예문이 ‘이르다’, ‘안정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氏’와 ‘戾’는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모순되다’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0) 耑 : 專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元部·定母》에 ‘團(專)’, ‘搏’, ‘籥(圖)’, ‘箆(圉)’, ‘湍’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崑】

‘崑’이 《說文·崑部》에는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其根也(사물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내미는 머리다. 위의 부분은 나오는 모양을 상형하였으며 아랫부분은 뿌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둥글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崑聲’의 ‘箒’, ‘圖’, ‘桴’, ‘鏞’, ‘蹕’, ‘湍’ 등의 글자들이 ‘둥글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崑’에 ‘둥글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專】

‘專’은 ‘團’과 통하여 ‘둥근 것’을 가리킨다.⁴⁴⁾ 王力 또한 《同源字典》에 “‘團’은 또한 ‘專’字로 쓴다⁴⁵⁾”고 하였다. ‘團’이 ‘둥근 것’이므로, ‘專’ 또한 ‘둥근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崑	端母元部	多官切	端母 雙聲, 元部 疊韻
專	端母元部	職緣切	

‘崑’과 ‘專’은 雙聲, 疊韻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崑’과 ‘專’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崑】

‘崑’의 의미항목에는 ‘둥글다’는 뜻이 없다. 그러나 王力이 제시한 ‘箒’과 ‘圖’을 살펴보면, ‘箒’은 대나무로 둥글게 만든 곡식을 담은 그릇이고, ‘圖’은 대나무, 혹은 풀을 엮어서 원형으로 만든 곡식을 담은 그릇을 말한다. 이것들은 모두 원형이므로 ‘둥글다’는 뜻과 관련된다.

‘崑聲’이 《詩經》에서 쓰인 例가 없어 비슷한 시기의 《孟子》에서 그 예를 찾

44) “通團, 指圓”,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81.

45) “‘團’字亦作‘專’”,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p. 566.

왔다. 다음은 그 예이다.

《孟子·告子上》“性猶湍水也(성은 돌고 있는 물과 같습니다)”

【專】

‘專’은 본래 紡專을 가리킨다. 紡專은 형태가 둥글어 ‘둥글다’로 인신되었다. 《說文·寸部》에 “一曰, 紡專(다른 說로 실을 잣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力이 제시한 ‘團’은 ‘둥근 것’이고, ‘搏’은 ‘손을 둥글게 한 것’으로 모두 ‘둥글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專聲’의 ‘團’, ‘搏’, ‘溥’, ‘搏’, ‘搏’, ‘搏’, ‘糲’, ‘糲’, ‘轉’, ‘傳’, ‘膊’, ‘嘯’, ‘籩’, ‘蕁’, ‘搏’, ‘甄’ 등의 글자 또한 모두 ‘둥글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專聲’이 《詩經》에서 ‘둥글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鄭風·野有蔓草》“零露漙兮(떨어진 이슬에 흠뻑 젖어있네)”
2. 《檜風·素冠》“勞心博博兮(마음은 고단하고 걱정스러워라)”
3. 《魯頌·泮水》“薄采其芣(순채를 캔다)”

위 예문 1의 ‘漙’은 ‘이슬’이며, 둥근모양이다. 2의 ‘博’은 마음에 맺히는 것으로 또한 ‘둥글다’는 뜻이 들어있다. 3의 ‘薄’은 수련의 일종으로 잎이 둥글어서 얻은 이름이다.

이상에서 ‘崑’과 ‘專’은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둥글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1) 崑 : 專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元部·定母》에 ‘斷’, ‘段’, ‘剗’, ‘剗’, ‘絕’, ‘截’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耑】

‘耑’은 ‘端’의 初文으로 《殷墟甲骨文》에 “‘耑’은 식물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
있과 가지가 자라는 형상이다. 本義는 ‘식물이 성장하다’이다. ‘성장하다’는 뜻에
서 인신되어 ‘시작하다’는 뜻이 생겼다⁴⁶⁾”라고 하였다. ‘耑聲’의 ‘가지런하다’는 뜻
은 ‘耑’의 本義인 ‘발단’과 통한다. 식물이 싹을 틔우면 위로 곧게 올라가므로 ‘곧
다’, ‘가지런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을 것이다.

【專】

‘專’은 《廣雅·釋言》에 “齊也(가지런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專’에 ‘가지런
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 세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耑	端母元部	多官切	端母 雙聲, 元部 疊韻
專	端母元部	職緣切	

‘耑’과 ‘專’은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耑’과 ‘專’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耑】

‘耑’이 《說文·耑部》에는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其根也(사물이 처음 나
올 때의 머리이다. 윗부분은 생기는 모습이고, 아래 부분은 뿌리의 모습이다)”라
고 하였으므로, ‘耑’의 ‘가지런하다’는 뜻과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王力이 제시
한 ‘耑’은 ‘배어낸 자리가 가지런하다’는 뜻이고, ‘耑聲’의 ‘端’, ‘襍’, ‘副’, ‘鞣’ 등의
글자들이 모두 ‘가지런하다’는 의미와 관련되므로, ‘耑’이 ‘가지런히 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耑聲’이 《詩經》에서는 쓰인 例는 없고, 《禮記》에서 보인다. 다음은 《禮記》

46) “象植物初茁漸生枝葉之狀形. 本義是植物生長. 從生長引申爲開端”,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73.

에서 ‘耑聲’이 쓰인 예이다.

《禮記·玉藻》“目容端(눈의 모양은 단정하고)”

【專】

‘專’은 본래 ‘紡專’을 가리키고, ‘專’의 의미항목에도 ‘가지런히 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專聲’의 ‘𦉳’, ‘膊’ 등의 글자들은 ‘자르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자르는 것은 가지런히 하기 위함이므로, ‘가지런히 하다’는 뜻이 나왔을 것이다.

《詩經》에서는 ‘專’이 ‘가지런히 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가 없어, 《禮記》에서 그 예를 찾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禮記·曲禮上》“有喪者專席而坐(상을 당한 자는 자리를 가지런하게 앉는다)”

이상에서 ‘耑’과 ‘專’은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가지런히 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2) 耑 : 瀨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元部·禪母》에 ‘遄’, ‘湍’, ‘灘’, ‘瀨’, ‘喘’, ‘歎’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耑】

‘耑’의 의미항목에는 ‘급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耑聲’의 ‘喘’, ‘遄’, ‘湍’, ‘輻’ 등의 글자들이 ‘급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耑’이 ‘급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瀨】

‘瀨’는 《說文·水部》에 “水流沙上也(모래 위를 흘러가는 빠른 물살이다)”라고 하였다. ‘빠른 물살’은 ‘급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崑	端母元部	多官切	端來 旁紐, 元月 對轉
瀨	來母月部	落蓋切	

‘崑’과 ‘瀨’는 旁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崑’과 ‘瀨’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崑】

‘崑聲’의 글자들은 ‘급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同源字典》에서 언급한 ‘遄’, ‘湍’, ‘喘’, ‘蹶’을 살펴보면, ‘遄’은 ‘오고 가는 것이 빠른 것’이며, ‘湍’은 ‘물의 흐름이 급한 것’이며, ‘喘’은 ‘호흡이 급한 것’으로 모두 ‘급하다’는 공통된 의미를 나타낸다. 殷寄明은 ‘崑聲’의 同源字를 ‘灘’으로 推源하였다.

다음은 ‘崑聲’이 《詩經》에서 ‘급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泉水》“遄臻于衛(빨리 위나라에 이르건마는)”

《鄘風·相鼠》“胡不遄死(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小雅·巧言》“亂庶遄沮(어지러움이 거의 빨리 그치리라)”

“亂庶遄已(어지러움이 거의 빨리 그치리라)”

《大雅·崧高》“式遄其行(곧 그 감을 빨리하도다)”

《大雅·烝民》“式遄其歸(그 돌아움을 빨리하도다)”

【瀨】

‘瀨’의 本義는 ‘沙石 위를 흘러가는 물살이 센 물’로, 인신되어 ‘急流’의 뜻이 되었고, 또한 인신되어 ‘급하다’의 뜻이 되었다.

‘瀨’가 《詩經》에 쓰인 예는 없고, 《楚辭》에서 보인다. 다음은 《楚辭》에 ‘瀨’

가 ‘급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楚辭·九章·抽思》“長瀨湍流(긴 여울이 급히 흘러 강가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상에서 ‘㨇’과 ‘瀨’는 旁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급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端母’의 ‘刀’, ‘周’, ‘眞’, ‘佳’, ‘氏’, ‘㨇’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同源字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 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⁴⁷⁾	例字
刀	小	隣紐, 疊韻	작다.	1. 칼 2. 화폐 이름 3. 거룻배	刀, 劔, 劔
周	衆	雙聲, 旁對轉	많다.	1. 두루 2. 두루 미치다. 3. 찬찬하다. 4. 지극하다. 5. 미쁘다. 6. 돌레 7. 돌다. 8. 굳히다. 9. 모퉁이 10. 주나라	稠, 綱, 鬻
眞	頂	雙聲, 通轉	꼭대기	1. 참 2. 참으로 3. 화상 4. 해서	顛, 楨, 嶼, 巔
	添	旁紐, 通轉	더하다.		墳, 寘, 闐, 瑱
	參	雙聲, 旁轉	조밀하다.		稹, 纘, 鬢, 黓, 溟, 噴, 瞋, 闐
	失	旁紐, 對轉	넘어지다.		偵, 躡, 趙, 楨, 瞋
佳	墩	雙聲, 對轉	높다.	1. 새 2. 높다.	堆, 雎, 隄, 崔, 頤, 崖, 錐
氏	至	雙聲, 疊韻	이르다.	1. 근본 2. 대저	抵, 邸, 底, 底

	戾	旁紐, 疊韻	저촉되다.	3. 오랑캐이름 4. 별이름 5. 숙이다. 6. 낫다.	牴, 抵, 砥, 邸, 詆, 砥
耑	專	雙聲, 疊韻	등글다.	1. 끝 2. 오로지	箒, 圖, 耑, 鏞, 蹕, 耑
	專	雙聲, 疊韻	가지런히 하다.		端, 耑, 耑, 耑
	灑	旁紐, 對轉	급하다.		喘, 邁, 耑, 耑

‘刀聲’, ‘周聲’, ‘隹聲’의 ‘작다’, ‘많다’, ‘높다’는 뜻은 본의, 인신의로 의미가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眞聲’은 사전적 의미에는 없는 ‘꼭대기’, ‘더하다’, ‘조밀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氏聲’은 ‘이르다’, ‘저촉되다’라는 뜻을, ‘耑聲’은 ‘등글다’, ‘가지런히 하다’, ‘급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眞聲’, ‘氏聲’, ‘耑聲’이 이러한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透母

본 논문에서 언급할 透母의 글자들은 ‘豕’, ‘畝’, ‘兆’, ‘出’이다.

(1) 豕 : 蜀 : 筑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侯部·端母》에 ‘味’, ‘嚼’, ‘啄’은 동원이라고 하였고, 또한 《同源字典·屋部·端母》에는 ‘椽’, ‘築’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豕】

‘豕’의 本義는 ‘밭이 줄에 묶인 돼지’이다. 그러나 ‘豕聲’의 ‘椽’, ‘豸’, ‘豸’, ‘豸’, ‘豸’, ‘豸’ 등의 글자들이 ‘때리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豕’에 ‘때리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7) 본 논문의 사전적 의미는 《漢韓大字典》을 참고하였다.

【蜀】

‘蜀’의 本義는 ‘때리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蜀聲’의 ‘嚼’, ‘觸’, ‘屬’, ‘觸’, ‘觸’ 등의 글자들이 ‘때리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蜀’에 ‘때리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筑】

‘筑’은 《說文·竹部》에 “筑，以竹曲五弦之樂也(대나무로 오현을 두드려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筑’은 고대의 현악기로 거문고와 비슷하며 13개의 현이 있다. 연주할 때 왼손으로는 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대나무로 현을 두드려 음을 내기 때문에 ‘筑聲’이 ‘때리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筑聲’의 글자인 ‘築’, ‘築’ 등은 ‘때리다’는 뜻과 관련이 된다.

이 세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豕 ⁴⁸⁾	透母屋部	丑玉切	透定 旁紐, 定端 旁紐, 透端 旁紐, 屋覺 旁轉
蜀	定母屋部	市玉切	
筑	端母覺部	張六切	

‘豕’과 ‘蜀’은 旁紐, 疊韻이고, ‘豕’과 ‘筑’은 旁紐, 旁轉의 關係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味’, ‘嚼’와 ‘啄’은 명사와 동사의 구별이다. 새가 먹이를 쪼는 것은 부리(味, 嚼)를 이용한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또한 ‘嚼’를 동사로, ‘啄’은 명사로 써서 초기에는 ‘味, 嚼, 啄’이 실은 같은 글자임을 알 수 있다.⁴⁹⁾ ‘味, 嚼’와 ‘啄’은 명사와 동사의 구별로 동음이다.

‘豕’, ‘蜀’, ‘筑’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豕】

48) 《漢字古今韻表》에 豕은 없다. 《廣韻》의 반절은 丑玉切이고 反切下字 玉의 상고음은 대부분 屋部에 속하였다.

49) “‘味, 嚼’與 ‘啄’, 是名詞與動詞的分別：鳥啄食用味(嚼). 但古人亦有用‘嚼’爲動詞, 用‘啄’爲名詞者, 可見 在 最初時‘味, 嚼, 啄’實同一詞”,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p. 189.

‘豕’은 《說文·豕部》에 “豕絆足行豕豕. 從豕繫二足(돼지가 발에 줄이 묶여 걷는 것이 힘든 모습이다. 豕字는 양 발을 묶었다는 표시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줄에 발이 묶인 돼지’라는 뜻으로, ‘때리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啄’, ‘啄’에는 ‘때리다’는 뜻이 들어있다. ‘啄’은 《說文·口部》에 “鳥食也. 從口, 豕聲(새가 먹는 것이다. 口를 따르고 豕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새가 부리로 음식을 쪼아서 ‘때리다’의 뜻이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啄’은 《說文·木部》에 “擊也. 從木, 豕聲(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豕聲’이 ‘때리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豕聲’의 글자에는 ‘啄’, ‘豸’, ‘豸’, ‘豸’, ‘啄’, ‘啄’, ‘啄’ 등이 있으며, 모두 ‘때리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豕聲’의 글자들이 《詩經》에서 ‘때리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小雅·黃鳥》“無啄我粟(내 조를 쪼지 마라)”
 “無啄我梁(내 기장을 쪼지 마라)”
 “無啄我黍(내 기장 쪼지 마라)”
2. 《小雅·小宛》“率場啄粟(마당을 따라 곡식을 쪼다)”
3. 《周南·兔置》“啄之丁丁(말뚝 박는 소리 쟁쟁)”
4. 《小雅·斯干》“啄之橐橐(판을 묶음에 켜켜이 울리고 마당을 쿵쿵 다지니)”
5. 《衛風·淇奥》“如琢如磨(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다)”
6. 《大雅·棫樸》“追琢其章(아로새기고 쪼은 그 문장이오)”

《詩經》에서는 대체로 ‘때리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몇 가지 예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기도 하여 ‘때리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雅·召旻》“昏椽靡共(어두운 내시들이 공손하지 아니하여)”
2. 《小雅·正月》“天天是椽(하늘이 화를 내려 이에 해롭게 하도다)”
3. 《周頌·有客》“敦琢其旅(가려 뽑은 그 무리로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내시’, 2는 ‘해치다’, 3은 ‘선택’의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蜀】

‘蜀’의 本義는 ‘누에’로 《說文·虫部》에 “葵中蠶也. 從虫, 上目象蜀頭形, 中象其身蛸蛸(뽕나무에 있는 누에의 형상이다. 虫을 따르고 위의目は 나비 애벌레의 모양과 같다. 中間은 곤충이 기어가는 굽은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同源字典》에서 同源字로 제시한 ‘喙’는 《廣韻》에 “鳥生子能自食也(새끼 새가 스스로 먹이를 쪼아 먹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說文·口部》에는 “喙也. 從口, 蜀聲(부리이다. 口를 따르고, 蜀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喙’의 本義는 ‘부리’이고, ‘때리다’는 뜻은 새가 음식을 쪼는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蜀聲’의 글자들이 《詩經》에서 ‘때리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曹風·候人》“不濡其喙(그 부리를 적시지 아니하도다)”

【筑】

‘筑’의 本義는 악기이름이다.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築’은 《說文·木部》에 “擣也. 從木, 筑聲(흙을 다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本義는 ‘흙을 다져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때리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筑聲’의 글자에는 ‘築’, ‘築’ 등이 있으며, 모두 ‘두드리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이런 글자들이 《詩經》에서 ‘때리다’는 뜻으로 쓰인 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邶風·七月》“九月築場圃(구월에는 타작마당을 채전에 다지고)”
2. 《大雅·緜》“築之登登(다지는데 텅텅거리며)”
3. 《小雅·斯干》“築室百堵(집 백도를 쌓으니)”
4. 《小雅·小旻》“如彼築室于道謀(저 집을 짓는데 길에서 도모하는 것과 같으니라)”
5. 《大雅·緜》“築室于茲(이에 집을 지으셨도다)”
6. 《大雅·文王有聲》“築城伊減(성을 쌓되 도랑을 따르시고)”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2는 ‘다지다’, 3, 6은 ‘쌓다’, 4~5는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들의 뜻은 모두 ‘치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豕’과 ‘蜀’은 旁紐, 疊韻, ‘豕’과 ‘筑’은 旁紐, 旁轉의 關係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때리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舍 : 釋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魚部·審母》에 ‘捨(舍)’, ‘赦’, ‘釋’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舍】

‘舍’는 ‘捨’로 가차되어 ‘放置’, ‘不要’의 뜻⁵⁰⁾이므로, ‘舍’는 ‘버리는 것’이다.

【釋】

‘釋’의 본의는 ‘分辨하는 것’, ‘解說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리다’는 뜻을 나타낸다.⁵¹⁾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舍	透母魚部	書冶切	透影 隣紐, 魚鐸 對轉
釋	影母鐸部	徒故切	

‘舍’와 ‘釋’은 隣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舍’와 ‘釋’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舍】

‘舍’는 《說文·宀部》에 “市居曰舍. 從宀, 止, 象屋也. 口象築也(손님이 거주하는

50) “假借爲‘捨’, 放置, 不要”,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309.

51) “本義爲分辨, 解說. 引申指廢棄”,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467.

곳을 말한다. 스와 ㅂ를 따른다. 口는 건축물의 울타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여관’이다. 그러나 《康熙字典》에 “又釋也(또한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漢字源流字典》에는 “釋’과 통하여 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⁵²⁾”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버리다’는 뜻은 假借義이다. 《同源字典》에서 표제자로 삼은 ‘捨’는 ‘舍’의 후기자이다. ‘捨’는 《說文》에서 “釋也(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舍’가 《詩經》에서 ‘버리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 《唐風·采芣》 “舍旃舍旃(놔두고 놔두어)”
《秦風·駟驥》 “舍拔則獲(활을 쏘면 바로 잡는다)”
《小雅·車攻》 “舍矢如破(화살을 쏘면 깨뜨리는 것 같도다)”
《小雅·雨無正》 “舍彼有罪(저 죄 지은 사람들 버려두고)”
《小雅·小弁》 “舍彼有罪(저 놈들 죄지은 사람 버려두고)”
《小雅·何人斯》 “亦不遑舍(또한 쉴 겨를이 없었거니)”
《小雅·賓之初筵》 “舍其坐遷(그 앉은 자리를 놓고 옮겨가서)”
《大雅·行葦》 “舍矢既均(화살을 놓아 맞히니)”
《大雅·瞻卬》 “舍爾介狄(저 큰 적을 버려두고)”

【釋】

釋은 《說文·采部》에 “解也(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버리다’는 引伸義이다.

다음은 ‘釋’이 《詩經》에서 ‘버리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 《鄭風·大叔于田》 “抑釋搆忌(화살 통을 풀며)”

이상에서 ‘舍’와 ‘釋’은 隣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버리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兆 : 兪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

52) “通釋, 指放置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66.

다. 《同源字典·侯部·透母》에 ‘儃’, ‘儃’, ‘儃’, ‘佻’, ‘桃’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兆】

‘兆’는 《說文·卜部》에 “𠄎, 灼龜坼也. 從卜; 兆, 象形(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구울 때 나타나는 갈라진 문양이다. 卜을 따른다. ; 兆는 𠄎의 생략된 형태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경박하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兆聲’의 ‘佻’, ‘桃’, ‘窈’, ‘窕’, ‘詔’ 등의 글자들이 ‘경박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兆’에 ‘경박하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兪】

‘兪’는 《說文·舟部》에 “空中木爲舟也. 從亼, 從舟, 從ㄩ. ㄩ, 水也(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배이다. 스를 따르고, 舟를 따르고, ㄩ를 따른다. ㄩ는 물이다)”라고 하였다. ‘兪’가 ‘나무속을 파서 만든 나무배’이므로, ‘비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비어있는 것’은 ‘경박한 것’과 통하여, ‘兪’가 ‘경박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兆	定母宵部	治小切	定透 旁紐, 宵侯 旁轉
兪	透母侯部	羊朱切	

‘兆’와 ‘兪’는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兆’와 ‘兪’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兆】

本義는 ‘거북의 껍데기로 점치는 것’을 가리킨다. ‘兆’의 의미항목에 ‘경박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同源字典》의 ‘佻’, ‘桃’를 살펴보면, ‘佻’는 《說文·人部》에 “儃也. 從人, 兆聲(경박한 것이다. 人을 따르고 兆의 소리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경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忼’ 역시 ‘경박하다’는 뜻이므로, ‘兆’에 ‘경박하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兆聲’이 《詩經》에서 ‘경박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大東》“忼忼公子(경박한 귀족 자식들)”

《小雅·鹿鳴》“視民不忼(백성에게 경박하지 않은 마음 보여주신다)”

【兪】

‘兆聲’의 ‘경박하다’는 뜻과 ‘兪聲’의 ‘비다’는 뜻은 통한다. ‘경박한 것’은 ‘가벼운 것’이고, ‘가벼운 것’은 비어있다. 《同源字典》에 언급된 ‘儉’, ‘儉’, ‘儉’를 살펴보면, ‘儉’는 篆文에 ‘女’를 따르는 ‘儉’로 쓰였다. ‘儉’는 또한 ‘儉’의 이체자이다. 本義는 ‘교활한 것’이다. 인신되어 ‘경박한 것’을 가리킨다.⁵³⁾ 그러므로 ‘儉’는 ‘경박한 것’과 관련된다. ‘兪聲’의 ‘窳’, ‘窳’, ‘儉’, ‘儉’, ‘儉’, ‘儉’, ‘儉’, ‘儉’ 등은 ‘비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고, ‘빈 것’은 ‘경박한 것’과 통한다.

‘兪聲’이 《詩經》에서 ‘경박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論語》에서 보인다. 다음은 ‘兪聲’이 《論語》에서 ‘경박하다’라고 쓰인 예이다.

《論語·泰伯》“則民不儉(백성도 경박하지 않는다)”

한편, ‘兪聲’이 《詩經》에서는 ‘경박하다’ 이외의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雅·生民》“或舂或揄(혹 방아도 찧고 혹 퍼내기도 하며)”

이상에서 ‘兆’, ‘儉’는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경박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 出：突

53) “儉, 隸變後楷書寫作‘儉’. ‘儉’又是‘儉’的異體字. 本義爲汚點. 引申指輕薄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723.

殷寄明은 ‘出聲’의 ‘나가다’는 뜻의 同源字를 ‘突’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物部·穿母》에는 ‘出’, ‘茁’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出】

‘出’은 《說文·凵部》에 “進也. 象艸木益滋, 上出達也(자라서 나아가는 것이다. 초목이 점차 번식하여 위로 자라 나오는 것을 본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나가다’이다.

【突】

‘突’은 《說文·穴部》에 “犬從穴中暫出也. 從犬在穴中(개가 구멍 속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다. 구멍 속에 있는 犬을 따른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나오다’는 뜻은 인신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出	透母物部	尺類切	透定 旁紐, 物部 疊韻
突	定母物部	陀骨切	

‘出’과 ‘突’은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出’과 ‘突’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出】

‘出’의 甲骨文은 사람이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說文》의 자형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出聲’의 ‘茁’, ‘崇’, ‘顛’, ‘窟’, ‘泔’, ‘肫’, ‘咄’ 등의 글자들은 ‘나가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出聲’이 《詩經》에서 ‘나가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54) “字象脚從洞穴中走出之形”,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49.

- 《邶風·日月》“出自東方(동방에서 떠오른다)”
 “東方自出(동녘에서 떠오른다)”
- 《邶風·泉水》“出宿于沛(자에 나가서 자고)”
 “出宿于干(간 땅에 나가 자고)”
 “駕言出遊(수레에 멩예를 씌우고 나가 놀아서)”
- 《邶風·北門》“出自北門(북문에서 나오니)”
- 《衛風·竹竿》“駕言出遊(수레에 멩예를 씌우고 나가 놀아서)”
- 《衛風·伯兮》“杲杲出日(쨍쨍 해가 나도다)”
- 《鄭風·出其東門》“出其東門(그 동문을 나가니)”
 “出其闔閭(그 성문 층계로 나서니)”
- 《齊風·雞鳴》“月出之光(달이 떠서 빛나도다)”
- 《齊風·猗嗟》“不出正兮(정곡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 《陳風·月出》“月出皎兮(달이 나옴에 교교하거늘)”
 “月出皓兮(달이 나옴에 밝거늘)”
 “月出照兮(달이 나옴에 흰히 비추거늘)”
- 《檜風·羔裘》“日出有曜(해가 나니 빛이 나도다)”
- 《小雅·伐木》“出自幽谷(깊숙한 골짜기에서 나와)”
- 《小雅·出車》“我出我車(내가 내 수레를 타고 출정함을)”
 “出車彭彭(수레를 땀이 성대하며)”
- 《小雅·六月》“王于出征(왕이 나가 정벌하여)”
- 《小雅·雨無正》“覆出爲惡(도리어 나와서 악한 짓을 하도다)”
 “匪舌是出(혀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昔爾出居(옛적에 네가 나가 거처할 때에)”
- 《小雅·小宛》“握粟出卜(곡식을 쥐고 나가 점을 쳐서)”
- 《小雅·巧言》“出自口矣(입으로부터 나오거니와)”
- 《小雅·何人斯》“出此三物(이 세 가지 물건을 내놓아서)”
- 《小雅·蓼莪》“出則銜恤(나가면 근심을 품고)”
 “出入腹我(나가고 들어올 때에 나를 품으시니)”
- 《小雅·大東》“漣焉出涕(슬프게 줄줄 눈물을 흘리노라)”
- 《小雅·北山》“或出入風議(어떤 이는 나가고 들어오면서 바람 따라 의논이나 하거늘)”
- 《小雅·無將大車》“不出于類(깜박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小雅·小明》“興言出宿(일어나 나가서 자노라)”

《小雅·賓之初筵》“既醉而出(이미 취해서 나가면)”

“醉而不出(취하고도 나가지 아니하니)”

“俾出童羖(뽕 없는 염소를 내놓으라 하리라)”

《小雅·都人士》“出言有章(말을 냄에 문장이 있으니)”

《小雅·漸漸之石》“不遑出矣(벗어날 겨를이 없도다)”

《大雅·板》“出話不然(말을 냄이 옳지 못하며)”

“及爾出王(네가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데 미치시며)”

《大雅·抑》“慎爾出話(네 말 냄을 삼가며)”

《大雅·烝民》“出納王命(왕명을 받들어 펴고 행하고 복명하니)”

“仲山甫出祖(중산보가 나가 노제를 지내니)”

《大雅·韓奕》“韓侯出祖, 出宿于屠(한나라 제후가 나가 노제를 지내고 도 땅에 나가 머무셨도다)”

《大雅·江漢》“既出我車(이미 우리 수레를 내며)”

《召南·騶虞》“彼茁者葭(저 무성한 갈대에)”

“彼茁者蓬(저 무성한 다복쑥 밭에)”

【突】

‘突’은 ‘穴’을 따르고, ‘犬’을 따르는 회의자로,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가리키며, 인신되어 ‘나가다’는 뜻이 되었다. 단음절로는 ‘突’, 복음절로는 ‘突出’이라한다.

《詩經》에서는 ‘突’이 ‘나가다’는 뜻으로 쓰인 예가 없으며, 《韓非子》에서 보인다. 다음은 《韓非子》에서 ‘突’이 ‘나가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韓非子·外儲說右下》“穢突出於溝中(돼지가 도랑에서 튀어 나와)”

한편, 《詩經》에서는 ‘突’이 ‘나가다’는 뜻이 아닌 ‘갑자기’의 뜻으로 쓰였다.

아래는 《詩經》에서 ‘突’이 ‘갑자기’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齊風·甫田》“突而弁兮(돌연히 갓을 썼느니라)”

이상에서 ‘出’, ‘突’은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나가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透母’의 ‘豕’, ‘舍’, ‘兆’, ‘出’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豕	蜀, 筑	豕과 蜀은 旁紐, 雙聲, 豕과 筑은 旁紐, 旁轉	매리다.	발 엮은 돼지의 걸음	豚, 豨, 豨, 豨, 豨, 豨, 豨
舍	釋	隣紐, 對轉	버리다.	1. 집 2. 여관 3. 성수 4. 머무르다. 5. 삼십 리 6. 베풀다. 7. 두다. 8. 버리다. 9. 폐하다. 10. 놓다. 11. 쏘다. 12. 쉬다.	釋, 澤, 醴, 鞞, 鞞, 釋
兆	兪	旁紐, 旁轉	경박하다.	1. 조 2. 점 3. 조짐 4. 조짐보이다. 6. 묘 7. 형상	佻, 佻, 兆, 兆, 詵
出	突	旁紐, 疊韻	나가다.	1. 나다. 2. 나가다. 3. 나오다. 4. 뛰어나다. 5. 달아나다. 6. 내다. 7. 내보내다. 8. 내치다. 9. 나타내다.	茁, 崇, 頤, 窟, 茁, 茁, 茁

				10. 깨우다. 11. 자손 12. 처남	
--	--	--	--	------------------------------	--

‘舍聲’의 ‘버리다’, ‘出聲’의 ‘나가다’는 뜻은 본의, 인신의로 의미가 추정가능하다. 그러나 ‘豕聲’은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없는 ‘때리다’는 뜻을 나타내고, ‘兆聲’은 ‘경박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豕聲’, ‘兆聲’이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定母

본 논문에서 언급할 定母의 글자들은 ‘召’, ‘長’, ‘弟’, ‘屯’, ‘卒’이다.

(1) 召 : 卓 : 兆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宵部·透母》에 ‘超’, ‘趙’, ‘跳’, ‘卓’이 동원이라고 하였고, 《同源字典·宵部·透母》에도 ‘超’, ‘迢’, ‘遼’, ‘遙’, ‘卓’, ‘倬’, ‘遠’, ‘蹕’, ‘趙’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召】

‘召’는 《說文·口部》에 “評也. 從口, 刀聲(부르는 것이다. 口를 따르고 刀의 소리를 따르다)”이라고 하였으므로, ‘높다’는 뜻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을 부를 때는 소리를 높이므로 ‘높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召聲’의 글자인 ‘邵’, ‘峩’, ‘迢’, ‘超’ 등이 모두 ‘높다’는 의미와 관련되므로, ‘召’ 역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卓】

‘卓’은 《說文·匕部》에 “高也(높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卓’은 ‘높은 것’이다.

【兆】

‘兆’가 《說文·卜部》에는 ‘𠄎’로 쓰였고, “灼龜坼也. 從卜(거북의 등딱지를 불에 구울 때 나타나는 갈라진 문양이다)”이라고 하였으므로 ‘兆’가 ‘높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兆聲’의 글자인 ‘跳’, ‘挑’, ‘眺’, ‘姚’, ‘窈’, ‘鈔’, ‘紉’ 등이 모두 ‘높다’는 의미와 관련되므로, ‘兆’도 ‘높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高’, ‘遠’, ‘深’, ‘長’의 뜻은 약간 다르지만 모두 ‘兆聲’이 이러한 뜻을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뜻이 모두 통한다. ‘高’와 ‘深’은 ‘상하’를 나타내는 말로, 평면에서 위쪽으로 거리가 먼 것을 ‘高’,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거리가 먼 것을 ‘深’이라 한다. ‘遠’, ‘長’은 ‘수평’을 말하는 것으로,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는 것, 거리가 먼 것을 ‘遠’, 두 끝의 거리가 먼 것을 ‘長’이라 한다.

이 세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召	定母宵部	直照切	定母 雙聲, 定端 旁紐, 宵部 疊韻, 宵沃 對轉
兆	定母宵部	治小切	
卓	端母沃部	竹角切	

‘召’와 ‘兆’는 雙聲, 疊韻이고, ‘召’와 ‘卓’은 旁紐, 對轉의 關係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召’와 ‘兆’, ‘卓’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召】

‘召’의 甲骨文은 두 손으로 술잔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徐中舒는 ‘주인과 손님이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술을 권하는 것으로 紹介의 紹의 초문이다’라고 하였다.⁵⁵⁾ 《漢字源流字典》에도 “本義는 술을 마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⁵⁶⁾”고 하였으므로, 《說文》의 풀이는 本義가 아니다. 이처럼 ‘召’의 의미항목에는 ‘높다’는 뜻은 없지만, ‘召聲’의 글자들을 통해 ‘높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5) “從雙手并有酒器……徐中舒：‘……表示主賓相見，相互紹介，侑於尊俎之間，當爲紹介之紹初文。’許說非本義”，馬如森，《殷墟甲骨文》，上海大學，2008，p. 35.

56) “本義爲請來他人(飲酒)”，谷衍奎，《漢字源流字典》，語文出版社，2008，p. 206.

《詩經》에는 ‘召聲’의 글자들이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孟子》에 보인다. 아래는 ‘召聲’의 글자들이 《孟子》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梁惠王上》“挾太山 以超北海(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을)”

한편, 《詩經》에서는 ‘召’가 ‘높다’는 뜻이 아닌 本義인 ‘부르다’의 뜻으로 쓰였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齊風·東方未明》“自公召之(관청에서 부르는구나)”

《小雅·出車》“召彼僕夫(저 마부를 불러서)”

《小雅·正月》“召彼故老(저 노인 불러서)”

《大雅·緜》“乃召司空(이에 사공을 부르고)”

“乃召司徒(이에 사도를 불러서)”

【卓】

‘卓’의 本義는 ‘그물로 새를 덮는 것’⁵⁷⁾으로, 새를 덮으려면 반드시 높이 들어야 하므로 인신하여 ‘높다’의 뜻이 나왔다. ‘罩’의 本字이다. ‘卓聲’의 ‘倬’, ‘遶’, ‘桌’, ‘罩’, ‘蹕’, ‘焯’, ‘趙’ 등의 글자는 모두 ‘높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卓聲’이 《詩經》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甫田》“倬彼甫田(훤히 트인 저 큰 밭에)”

《大雅·棫樸》“倬彼雲漢(높은 저 은하수여)”

《大雅·桑柔》“倬彼昊天(위대한 저 하늘이여)”

《大雅·韓奕》“有倬其道(밝은 그 길에)”

【兆】

‘兆’의 本義는 ‘갈라진 모습’으로 ‘높다’는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趯’, ‘跳’의 의미를 살펴보면, ‘兆’가 ‘높다’는 의미와 관련이

57) “本義爲以網罩鳥”,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10.

있음을 알 수 있다. ‘跳’는 《說文·足部》에 “蹶也. 從足, 兆聲(뛰어오르는 것이다)” 이라고 하여, 本義가 ‘뛰어오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뛰어오르는 것’은 위쪽으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것이므로 ‘높다’는 의미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兆聲’이 《詩經》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南·關雎》“窈窕淑女(요조숙녀는)”

이상에서 ‘召’와 ‘兆’는 雙聲, 疊韻, ‘召’와 ‘卓’은 旁紐, 對轉의 關係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높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長 : 冢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陽部·端母》에 ‘長’, ‘冢’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長】

‘長’은 《康熙字典》에 “又大也(또한 큰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長’은 ‘크다’는 뜻이다.

【冢】

‘冢’은 《說文·冫部》에 “高墳也. 從冫冢聲(무덤이 높은 것이다. 冫를 따르고 冢의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무덤이 높다’는 뜻에서 인신되어 ‘크다’는 뜻이 되었을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長	定母陽部	直良切	定端 旁紐, 陽東 旁轉
冢	端母東部	知隴切	

‘長’과 ‘冢’은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長’과 ‘冢’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長】

‘長’은 갑골문에서 사람의 머리가 긴 것을 형상⁵⁸⁾하였고, 本義는 ‘長髮’이다. ‘길다’는 뜻은 인신된 것이다. 《說文·長部》의 “久遠也(오래된 것이며, 먼 것이다)”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長’은 시간의 간격이 긴 것을 가리킬 수 있고, 또한 공간의 거리가 먼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고대에는 나이가 많으면 머리가 길었으므로, 인신되어 ‘年長(나이를 먹다)’의 뜻이 되었고, 나이를 먹는 것은 또한 ‘年高’라 한다. 그러므로 ‘길다’, ‘높다’는 뜻은 통한다. ‘長聲’의 글자에는 ‘張’, ‘襄’ 등이 있으며 ‘크다’는 의미와 관계가 있다.

다음은 ‘長’이 《詩經》에서 ‘크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 《鄘風·牆有茨》“言之長也(말이 길도다)”
《齊風·猗嗟》“頎而長兮(훤칠하고 키가 크며)”
《秦風·蒹葭》“道阻且長(길이 막히고 또 길며)”
《小雅·巧言》“亂是用長(난이 이로써 자라며)”
《小雅·蓼莪》“長我育我(나를 키우시고 나를 길러주셨도다)”
《小雅·大東》“不以其長(그것이 길다고 하지 않는다)”
《小雅·甫田》“禾易長畝(벼가 잘 다스려져 독과 같이 컸으니)”
《大雅·大明》“長子維行(장녀를 시집보내니)”
《大雅·皇矣》“克長克君(능히 어른이시고 능히 인군이시며)”
《大雅·公劉》“既溥既長(이미 넓어지고 길어졌거늘)”
《大雅·卷阿》“爾受命長矣(네가 명을 받음이 길으니)”
《大雅·瞻卬》“婦有長舌(지어미에게 긴 혀가 있어)”
《魯頌·泮水》“順彼長道(저 큰 길을 따라)”
《商頌·長發》“長發其祥(그 상서로움이 발현됨이 오래하도다)”
“幅隕既長(폭과 돌레가 이미 길거늘)”

58) “字象人頭上有長髮之形”，馬如森，《殷墟甲骨文》，上海大學，2008，p. 215.

【冢】

‘冢’의 本義는 ‘크고 높은 절벽’이다⁵⁹⁾. ‘크다’는 뜻은 引伸된 결과이다.

다음은 ‘冢’이 《詩經》에서 ‘크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1. 《小雅·十月之交》“山冢峯崩(산봉우리 무너지고)”
2. 《大雅·緜》“迺立冢土(이에 태사를 세우니)”
3. 《大雅·雲漢》“疚哉冢宰(병든 총재며)”

위의 의미항목을 보면, 1은 ‘산봉우리’, 2는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 3은 ‘무리의 우두머리’로 모두 ‘높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

이상에서 ‘長’과 ‘冢’은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크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弟 : 次

殷寄明은 ‘弟聲’의 ‘순서’라는 뜻의 同源字를 ‘次’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脂部·定母》에는 ‘弟’, ‘娣’, ‘悌’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弟】

‘弟’는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 “本義是次序, 等第. 今作第(本義는 순서이다. 지금은 第로 쓴다⁶⁰⁾)”고 하였으므로, ‘弟’는 ‘순서’라는 의미이다.

【次】

‘次’는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 “本義有二, 一爲臨時駐扎, 二爲等級較着的(本義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시로 묵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⁶¹⁾)”고 하였다. 등급이 차이가 나면 순서가 생기므로 ‘순서’라는 引伸義가

59) “本義爲高大的山崖”,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156.

60)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70.

생겼다고 생각한다. ‘次’는 ‘순서’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弟	定母脂部	徒禮切	定清 隣紐, 脂部 疊韻
次	清母脂部	七四切	

‘弟’와 ‘次’는 隣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弟’와 ‘次’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弟】

‘弟’의 甲骨文은 ‘叔’이 省變한 것이고,⁶²⁾ ‘叔’은 끈을 묶은 화살에 끈을 묶어 짐승을 잡는 기구이다.⁶³⁾ 《說文·弟部》에서는 “韋束之次弟也. 從古字之象. 凡弟之屬皆從弟(소가죽으로 물건을 묶는 순서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에서 ‘차례’, ‘순서’라는 引伸義가 나왔으며, ‘第’는 후기자이다. ‘弟聲’의 글자에는 ‘涕’, ‘涕’, ‘遞’, ‘剃’, ‘梯’, ‘罷’, ‘穉’, ‘涕’, ‘剃’ 등이 있으며, 모두 ‘순서’라는 의미와 관련된다.

다음은 ‘弟聲’이 《詩經》에서 ‘순서’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燕燕》“泣涕如雨(눈물이 비 오듯 하노라)”

《衛風·氓》“泣涕漣漣(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陳風·澤陂》“涕泗滂沱(눈물과 콧물이 줄줄 흐르노라)”

《小雅·小弁》“涕既隕之(눈물이 이미 떨어지노라)”

《小雅·大東》“漚焉出涕(슬프게 줄줄 눈물을 흘리노라)”

《小雅·小明》“涕零如雨(눈물이 비 오듯 흐르노라)”

위 항목의 ‘涕’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으로, 눈물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순서에 따라 떨어지므로 ‘순서’의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61)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58.

62) “弟字明爲叔字之省變”,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37.

63) “用絲繩所系的鐵鏃, 射取禽獸的工具”, 馬如森, 위의 책, p. 72

또한 《詩經》에는 ‘弟聲’의 引伸義인 ‘형제’의 뜻으로 쓰였는데, ‘형제’ 또한 ‘순서’에 의한 것이다. 다음은 ‘형제’로 쓰인 例이다.

- 《邶風·栢舟》“亦有兄弟(또한 형제가 있으나)”
- 《邶風·谷風》“如兄如弟(형같이 아우같이 한다)”
- 《邶風·泉水》“遠父母兄弟(부모형제를 멀리 하니라)”
- 《鄘風·蝮蝥》“遠父母兄弟(부모형제를 멀리함이라)”
- 《衛風·竹竿》“遠兄弟父母(부모형제를 멀리하도다)”
- 《王風·葛藟》“終遠兄弟(마침내 형제를 멀리 하니라)”
- 《鄭風·揚之水》“終鮮兄弟(끝내 형제가 적음이라)”
- 《齊風·載驅》“齊子豈弟(제나라 여자가 즐거워하도다)”
- 《魏風·陟岵》“嗟予弟行役(아, 내 동생이 부역을 가서)”
- 《唐風·杕杜》“人無兄弟(사람이 형제가 없거늘)”
- 《小雅·常棣》“莫如兄弟(형제만 같지 못하니라)”
- “兄弟孔懷(형제가 심히 생각하며)”
- “兄弟求矣(형제가 구해주느니라)”
- “兄弟急難(형제가 급하고 어렵게 되었고도다)”
- “兄弟鬪于牆(형제가 담장 안에서 싸우나)”
- “雖有兄弟(비록 형제가 있으나)”
- “兄弟既具(형제가 이미 갖추어져야)”
- “兄弟既翕(형제가 이미 화합하여야)”
- 《小雅·伐木》“兄弟無遠(형제가 가까이 있어)”
- 《小雅·蓼蕭》“宜兄宜弟(형으로서도 마땅하고 아우로서도 마땅하도다)”
- 《小雅·沔水》“嗟我兄弟(아, 내 형제)”
- 《小雅·斯干》“兄及弟矣(형과 아우가)”
- 《小雅·楚茨》“諸父兄弟(여러 집안 어른과 형제들)”
- 《小雅·頍弁》“兄弟匪他(다른 사람 아닌 형제들)”
- “兄弟具來(형제가 함께 오도다)”
- “兄弟甥舅(형제와 숙질들)”
- 《小雅·角弓》“兄弟昏姻(형제와 골육지친과 사돈 간은)”
- “此畲兄弟(이 어진 형제는)”

“不令兄弟(어질지 못한 형제는)”

《大雅·思齊》“至于兄弟(형제에게 이르러)”

《大雅·皇矣》“同爾兄弟(네 형제와 함께)”

《大雅·行葦》“戚戚兄弟(친하고 친한 형제들)”

《大雅·韓奕》“諸娣從之(여러 여동생들이 따르니)”

‘弟聲’이 《詩經》에서는 대체로 ‘순서’라는 뜻과 관련되지만, 다음은 ‘순서’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蓼蕭》“孔燕豈弟(크게 잔치하여 즐겁고 편안하도다)”

《小雅·湛露》“豈弟君子(즐겁고 편안한 군자여)”

《小雅·青蠅》“豈弟君子(즐거운 군자는)”

《大雅·旱麓》“豈弟君子(즐거운 군자여)”

“干祿豈弟(복을 구함이 즐겁도다)”

《大雅·洞酌》“豈弟君子(즐겁고 편안한 군자여)”

《大雅·卷阿》“豈弟君子(즐겁고 편안한 군자여)”

위 항목에 쓰인 예들이 ‘편안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고에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次】

‘次’의 갑골문은 사람이 입을 벌려 계속해서 기침하는 형상⁶⁴)으로, 本義는 ‘기침하는 것’이다.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는 “本義有二, 一爲臨時駐扎, 二爲等級較着的(本義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시로 묶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說文·欠部》은 “不前不精也(선두에 있지 않은 것, 아직 精選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모두 본의를 다르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과 《說文》의 풀이를 살펴보면 ‘次’에 ‘순서’라는 引伸義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次’가 《詩經》에 쓰인 예는 없고, 《左傳》에 보인다. 다음은 ‘次’가 《左傳》에

64) “甲骨文象人張口連連打噴嚏形”,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317.

서 ‘순서’라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左傳·襄公二十四年》“太上有立德，其次有立功，其次有立言(최상은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말을 남기는 것이다)”

이상에서 ‘弟’와 ‘次’는 隣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순서’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 屯 : 享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文部·端母》에 ‘敦’, ‘惇’은 동원이라고 하였고, 《同源字典·文部·照母》에는 ‘諄’, ‘惇’, ‘肫’, ‘純’, ‘純(純)’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屯】

‘屯’은 《廣韻》에 “厚也(두터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屯’은 ‘두터운 것’이다.

【享】

‘享’의 갑골문은 단 위에 세워진 건축물⁶⁵⁾로, 隸變이후 ‘享’, ‘盲’이 되었다. ‘享’은 《說文·盲部》에 “孰也. 從盲從羊. 讀若純. 一曰鬻也(익히는 것이다. 盲을 따르고 羊을 따른다. 또한 죽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盲’은 《說文》에 “獻也(바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상들께 음식을 바치고, 음식을 익히는 것은 ‘두텁다’는 뜻과 통한다. ‘두터운 것’은 ‘굳고 깊다’, ‘돈독하다’는 뜻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므로 ‘두터운 것’이며, 음식을 꼭 익히는 것 역시 ‘두터운 것’이다. 또한 ‘享聲’의 글자에는 ‘淳’, ‘醇’, ‘敦’, ‘惇’, ‘惇’, ‘惇’, ‘諄’ 등이 있으며, 모두 ‘두텁다’는 의미와 관련되므로 ‘享’은 ‘두텁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6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90.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屯	定母文部	陟綸切	定母 雙聲, 文部 疊韻
享	定母文部	常倫切	

‘屯’과 ‘享’은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屯’과 ‘享’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屯】

‘屯’의 本義는 ‘어려운 것’이다. 《說文·中部》에 “難也. 象艸木之初生, 屯然而難. 從艸貫一. 一, 地也(어려운 것이다. 초목이 처음 나오는 것을 나타낸 모양이다. 屯은 그리하여 어려운 것이다. 艸을 一이 꿰뚫고 나오는 것이다. 一은 땅이다)”고 하였다. ‘두텁다’는 뜻은 인신된 결과이다. ‘屯聲’의 글자에는 ‘純’, ‘肫’, ‘菴’, ‘醜’, ‘純’, ‘窰’, ‘菴’, ‘肫’, ‘肫’, ‘純’, ‘純’ 등이 있으며, 모두 ‘두텁다’는 의미와 관련된다.

다음은 ‘屯聲’이 《詩經》에서 ‘두텁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賓之初筵》“錫爾純嘏(네게 큰 복을 내려주니)”

《大雅·卷阿》“純嘏爾常矣(큰 복을 네가 항상 누리리로다)”

《周頌·載見》“俾緝熙于純嘏(이어 밝혀서 큰 복을 내리게 하도다)”

《魯頌·閟宮》“天錫公純嘏(하늘이 공에게 큰 복을 내리시니)”

【享】

‘亨’, ‘享’, ‘烹’의 근원은 하나이다. 갑골문에서 이들 글자의 모습은 같다. 《漢字源流字典》에는 “‘亨’, ‘享’, ‘烹’은 동원이다. 隸變 이후 ‘肱’, ‘亨’, ‘享’으로 구별되었다⁶⁶⁾”라고 하였다. 《殷墟甲骨文》에서는 “享의 위쪽은 종묘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제사에 바치는 양의 모습이다. 段玉裁는 ‘지금은 隸書로 享이라 쓰는데, 肱의 예서와 구별이 없다’고 하였다. 王國維는 ‘敦’의 이체자라고 하였다⁶⁷⁾”고 하였고,

66) “亨與享, 烹同源, 隸變後楷書分別寫作肱, 亨, 享”,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90.

67) “字上象宗廟, 下有祭牲羊. 段注 ‘今隸書皆作享, 與肱之隸無別. 王國維釋: 敦之異文”,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32.

《說文·音部》에는 ‘익히는 것’이라 하였다. ‘音’은 《殷墟甲骨文》에 “독체상형자로 ‘고건축’이다. 吳大澂은 ‘本義는 종묘이다’라고 하였다⁶⁸⁾”라고 하였고, 《說文》에는 “獻也(바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音’은 ‘享’의 이체자이고, ‘享’은 ‘제사에 바치는 것’이다. 조상들께 음식을 바치고, 음식을 익히는 것은 ‘두텁다’는 뜻과 통한다.

다음은 《詩經》에서 ‘享聲’이 ‘두텁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 《大雅·抑》“誨爾諄諄(그대에게 간절히 타일러도)”
- 《大雅·常武》“鋪敦淮濱(회수 가에 진을 쳐 두텁게 하여)”
- 《王風·大車》“大車嘽嘽(큰 수레가 무거워 느릿느릿하니)”
- 《小雅·采芣》“嘽嘽焯焯(많으면서도 성대하여)”
- 《邠風·東山》“有敦瓜苦(주렁주렁 쓴 외여)”
- 《大雅·行葦》“敦彼行葦(우북한 저 길가의 갈대를)”

또한 《詩經》에서는 ‘享聲’이 ‘두텁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같다.

1. 《小雅·天保》“是用孝享(이에 효도로써 올려)”
2. 《小雅·信南山》“享于祖考(조상께 제사 지낸다)”
3. 《小雅·信南山》“是烝是享(이에 올리고 이에 제사를 받드니)”
4. 《小雅·大田》“以享以祀(제물로써 제사를 지내니)”
5. 《大雅·旱麓》“以享以祀(제물로써 제사지내시어)”
6. 《周頌·我將》“我將我享(내가 받들고 내가 제사지냄이)”
7. 《周頌·我將》“既右享之(이미 오른쪽에서 흠향하시리라)”
8. 《周頌·潛》“以享以祀(이로써 올려서 제사지내어)”
9. 《周頌·載見》“以孝以享(효도하며 제향하여)”
10. 《魯頌·閟宮》“享祀不忒(제사 올림을 어김없이 하사)”
11. 《魯頌·閟宮》“享以騂犧(붉은 소를 잡아 올리시니)”
12. 《商頌·烈祖》“以假以享(이르러 제를 올리니)”

68) “獨體象物字，古建築。本義是宗廟。音是享的異體字，享祭獻上供之意，祭獻與宗廟有關”，馬如森，위의 책，p. 132.

13. 《商頌·殷武》“莫敢不來享(감히 와서 바치지 않음이 없었으며)”
14. 《邶風·北門》“王事敦我(왕명의 일이 나에게 던져지거늘)”
15. 《大雅·行葦》“敦弓既堅(아로새긴 활이 이미 견고하며)”
16. 《大雅·行葦》“敦弓既句(아로새긴 활을 이미 당기며)”
17. 《周頌·有客》“敦琢其旅(가려 뽑은 그 무리로다)”
18. 《魯頌·閟宮》“敦商之旅(상나라의 무리를 다스려)”
19. 《邠風·東山》“敦彼獨宿(외로이 저 홀로 잠을 잠이여)”

위 항목에 쓰인 예를 보면, 1~13은 本義인 ‘바치다’, 14는 ‘던지다’, 15~16은 ‘雕’와 古今字로 ‘새기다’, 17은 ‘선택하다’, 18은 ‘다스리다’, 19는 ‘몸을 둥글게 하여 새우잠을 자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屯’과 ‘享’은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두텁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屯 : 集

殷寄明은 ‘屯聲’의 ‘모이다’는 뜻의 同源字를 ‘集’으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文部·端母》에는 ‘屯’, ‘純’, ‘邨’, ‘圉’, ‘筮’, ‘村’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屯】

‘屯’은 《廣韻》에 “聚也(모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屯’은 ‘모이는 것’이다.

【集】

‘集’은 《廣韻》에 “聚也, 會也, 同也(모이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集’ 또한 ‘모이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屯	定母文部	徒渾切	定從 隣紐, 文緝 通轉
集	從母緝部	秦入切	

‘屯’과 ‘集’은 隣紐, 通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屯’과 ‘集’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屯】

‘屯’의 本義는 ‘어려운 것’으로, 뚫고 나가기 어려우므로 ‘모이다’, ‘쌓이다’는 뜻으로 인신된다. ‘屯’은 또한 ‘사람이 모여 사는 땅’으로, ‘邨’의 초문으로 ‘모이다’는 뜻이다.⁶⁹⁾ ‘屯聲’의 글자들인 ‘邨’, ‘圉’, ‘地’, ‘屯’, ‘筮’, ‘頓’, ‘輓’ 등도 ‘모이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

다음은 《詩經》에서 ‘屯聲’이 ‘모이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召南·野有死麕》“白茅純束(흰 띠풀로 묶나니)”

또한 《詩經》에서는 ‘屯聲’이 ‘모이다’는 뜻 외에 ‘지명’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衛風·氓》“至于頓丘(둔구에 이르느라)”

위 항목에 쓰인 예가 ‘지명’으로 쓰인 이유는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集】

‘集’은 《說文·隹部》에 “彙, 群鳥在木上也(여러 마리 새가 나무위에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여러 마리 새가 나무에 모여 있는 것’에서 ‘모이다’로 인신되었다.

다음은 ‘集’이 《詩經》에 ‘모이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69) “艱難供出, 則遲留不進, 引申表示聚集, 積蓄”,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72.

《周南·葛覃》“集于灌木(수북한 나무에 모여서)”
 《唐風·鶉羽》“集于苞栩(우북한 상수리나무에 모이도다)”
 《唐風·鶉羽》“集于苞棘(우북한 가시나무에 그쳐 있도다)”
 《唐風·鶉羽》“集于苞桑(우북한 뽕나무에 그쳐있도다)”
 《唐風·鶉羽》“集于苞栩(우북한 상수리나무에 모여든다)”
 《唐風·鶉羽》“集于苞杞(우북한 산버들 나무에 모여든다)”
 《小雅·采芣》“亦集爰止(또한 이에 그쳐 모였도다)”
 《小雅·鴻雁》“集于中澤(못 가운데 모이는구나)”
 《小雅·黃鳥》“無集于穀(닥나무에 모이지 마라)”
 《小雅·黃鳥》“無集于桑(뽕나무에 모이지 마라)”
 《小雅·黃鳥》“無集于栩(도토리나무에 모이지 마라)”
 《小雅·小宛》“如集于木(나무위에 앉은 것 같으며)”
 《小雅·頍弁》“先集維霰(먼저 싸락눈이 모이니라)”
 《小雅·車牽》“有集維鷗(꿩이 앉아 모여 있도다)”
 《大雅·大明》“有命既集(명이 이미 모이니라)”
 《大雅·卷阿》“亦集爰止(또한 그칠 데에서 모이도다)”
 《周頌·小毖》“予又集于蓼(내 또한 여뀌에 앉았노라)”
 《魯頌·泮水》“集于泮林(반궁 숲에 내려앉아)”

《詩經》에서는 대체로 ‘集’이 ‘모이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다음의 예는 ‘이루다’는 뜻으로 쓰였다.

《小雅·小旻》“是用不集(이로써 계책을 이루지 못하리로다)”
 《小雅·黍苗》“我行既集(우리 가는 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위의 항목이 ‘이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屯’과 ‘集’은 隣紐, 通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모이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6) 卒 : 純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文部·禪母》에는 ‘純’, ‘粹’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卒】

‘卒’의 의미항목에 ‘순수하다’는 뜻이 없으나, ‘卒聲’의 ‘粹’, ‘倅’, ‘粹’, ‘粹’ 등의 글자들이 ‘순수하다’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卒’에 ‘순수하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純】

‘純’은 《漢字源流字典》에서 “純은 인신되어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은 것, 단일한 것을 가리킨다⁷⁰⁾”고 하였다.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으므로, ‘純’은 ‘순수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卒	精母物部	子聿切	精定 隣紐, 物文 對轉
純	定母文部	常倫切	

‘純’과 ‘卒’은 隣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純’과 ‘卒’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卒】

‘卒’은 《說文·衣部》에 “隸人給事者衣爲卒(하역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는 옷을 이른다)”라고 하여, ‘고대 노예나 하인이 입는 옷’으로 ‘순수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王力이 표제자로 쓴 ‘粹’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쌀’이므

70) “引申指不含雜質, 單一”,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536.

로 ‘순수하다’는 뜻과 관련된다.

‘卒聲’이 《詩經》에서 ‘순수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易》에 그 예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易·乾卦》“純粹精也(순수하고 정밀하다)”

《詩經》에는 ‘卒聲’이 다음과 같은 예로 쓰였다.

1. 《小雅·漸漸之石》“維其卒矣(까마득하도다)”
2. 《邠風·七月》“何以卒歲(어찌 한해를 마치리오)”
3. 《小雅·蓼莪》“我獨不卒(나 홀로 마치지 못하노라)”
4. 《邶風·日月》“畜我不卒(나를 기르기를 다하지 못하셨다)”
5. 《大雅·板》“下民卒瘵(하민들이 모두 병들거늘)”
6. 《大雅·板》“威儀卒迷(위의를 모두 어지럽히며)”
7. 《大雅·桑柔》“稼穡卒痒(농사마져 병들었도다)”
8. 《大雅·桑柔》“具贅卒荒(마침내 황폐해졌으니)”
9. 《大雅·桑柔》“俾民卒狂(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제정신이 아니게 하도다)”
10. 《大雅·雲漢》“圭璧既卒(규벽을 이미 다 올렸거늘)”
11. 《大雅·召旻》“民卒流亡(백성들이 모두 떠돌아)”
12. 《大雅·召旻》“我居圉卒荒(우리 서울과 변방이 모두 황폐해졌도다)”
13. 《邠風·鴟鵂》“予口卒瘳(내 입이 마침내 병이 난 것은)”
14. 《小雅·節南山》“國既卒斬(나라가 이미 마침내 망하거늘)”
15. 《小雅·節南山》“卒勞百姓(마침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고)”
16. 《小雅·十月之交》“田卒污萊(밭이 마침내 웅덩이가 되고 쭉밭이 되었거늘)”
17. 《小雅·楚茨》“禮儀卒度(예의가 마침내 법도에 맞으며)”
18. 《小雅·楚茨》“笑語卒獲(웃고 말함에 마침내 적절하여)”
19. 《魯頌·泮水》“淮夷卒獲(회이를 마침내 사로잡으리라)”

위의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높다’, 2~4는 ‘마치다’, 5~12는 ‘다하다’, 13~19는 ‘마침내’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純】

‘純’은 《說文·糸部》에 “絲也. 從糸, 屯聲(생사이다. 糸를 따르고 屯聲이다)”라고 하였다.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다. ‘순수하다’는 의미는 인신된 것이다.

다음은 ‘純’이 《詩經》에서 ‘순수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頌·維天之命》“文王之德之純(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어)”

《周頌·酌》“時純熙矣(이에 순수하게 빛난 뒤에야)”

이상에서 ‘純’과 ‘卒’은 隣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순수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定母’의 ‘召’, ‘長’, ‘弟’, ‘屯’, ‘卒’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 字
召	卓, 兆	召와 卓은 旁紐, 對轉. 召와 兆는 雙聲, 疊韻	高, 遠, 深, 長	1. 부르다. 2. 부름 3. 땅이름	邵, 岌, 迢, 超
長	冢	旁紐, 旁轉	크다.	1. 길다. 2. 크다. 3. 늘다. 4. 키 5. 성 6. 처음 7. 앞 8. 말 9. 우두머리 10. 어른되다.	

				11. 나이먹다. 12. 어른 13. 나이 많다. 14. 나아가다. 15. 더하다. 16. 쌓다. 17. 자라다. 18. 기르다. 19. 가르치다. 20. 낫다. 21. 남다, 많다.	
弟	次	隣紐, 疊韻	순서	1. 아우 2. 순하다, 공경하다. 3. 다만	娣, 娣, 逶, 剃, 梯, 弔, 穉, 涕, 鬚
屯	享	雙聲, 疊韻	두텁다.	① 1. 진치다. 2. 진 3. 언덕 ② 1. 어렵다. 2. 모이다. 3. 차다. 4. 단단하다. 5. 준괘	純, 肫, 菴, 醜, 飩, 窰, 奄, 吨, 庖, 炖, 饨
	集	隣紐, 通轉	모이다.	1. 하인 2. 무리 3. 군사 4. 백사람 5. 마을 6. 나라 7. 갑자기 8. 마치다. 9. 죽다. 10. 마침내	邨, 圃, 地, 庖, 筭, 頓, 轉
卒	純	隣紐, 對轉	순수하다.		粹, 倅, 穉, 睪

‘長’의 ‘크다’, ‘弟’의 ‘순서’라는 뜻은 본의, 인신의로 의미가 추정가능하다. 그러나 ‘冫’는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없는 ‘높다’는 뜻을 나타내고, ‘屯’은 ‘두텁다’, ‘모이다’는 뜻을 나타내고, ‘卒’은 ‘순수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泥母

본 논문에서 언급할 泥母의 글자는 ‘而’이다.

(1) 而 : 柔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幽部·日母》에 ‘柔’, ‘𦏧’, ‘𦏨’, ‘𦏩’, ‘𦏪’, ‘𦏫’, ‘𦏬’, ‘𦏭’, ‘𦏮’, ‘𦏯’이 동원이라고 하였고, 《同源字典·元部·泥母》에서는 ‘煖’, ‘暖’, ‘燠’, ‘暎’, ‘𦏰’, ‘𦏱’이 동원이라고 하였으며, 《同源字典·元部·日母》에서는 ‘軟(輓)’, ‘𦏲’, ‘𦏳’, ‘𦏴’, ‘𦏵’, ‘𦏶’, ‘𦏷’, ‘𦏸’, ‘𦏹’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而】

‘而’는 《說文·而部》에 “頰毛也. 象毛之形(얼굴 양쪽의 털(구레나룻)이다. 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의는 ‘사람의 구레나룻’으로, ‘而’가 지칭하는 사물은 부드럽고 연약한 특성을 가지므로, ‘而聲’이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柔】

‘柔’는 《說文·木部》에 “木曲直也(나무를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부릴 수도 있고, 곧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의 본성은 유연한 것이고, 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柔’가 ‘유연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而	泥母之部	如之切	泥母 雙聲, 之幽 旁轉
柔	泥母幽部	耳由切	

‘而’와 ‘柔’는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而’와 ‘柔’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而】

‘而’는 본래 ‘사람의 구레나룻’이고, 인신하여 ‘비늘이나 털이 아래로 드리워진 것’을 말한다. ‘구레나룻’의 속성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而聲’의 글자에는 ‘𪔐’, ‘𪔑’, ‘𪔒’, ‘𪔓’, ‘𪔔’, ‘𪔕’, ‘𪔖’, ‘𪔗’, ‘𪔘’, ‘𪔙’, ‘𪔚’, ‘𪔛’, ‘𪔜’, ‘𪔝’, ‘𪔞’, ‘𪔟’, ‘𪔠’, ‘𪔡’, ‘𪔢’, ‘𪔣’, ‘𪔤’, ‘𪔥’, ‘𪔦’, ‘𪔧’, ‘𪔨’, ‘𪔩’, ‘𪔪’, ‘𪔫’, ‘𪔬’, ‘𪔭’, ‘𪔮’, ‘𪔯’, ‘𪔰’, ‘𪔱’, ‘𪔲’, ‘𪔳’, ‘𪔴’, ‘𪔵’, ‘𪔶’, ‘𪔷’, ‘𪔸’, ‘𪔹’, ‘𪔺’, ‘𪔻’, ‘𪔼’, ‘𪔽’, ‘𪔾’, ‘𪔿’ 등이 있는데, 모두 ‘유연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다.

‘而聲’이 《詩經》에서 ‘유연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戰國策》에 보인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戰國策·秦策一》“其需弱者來使，則王必聽之(약한자가 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而聲’이 《詩經》에는 ‘유연하다’는 뜻이 아닌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1. 《召南·野有死麕》“舒而脫脫兮(가만히 느릿느릿하여)”
2. 《邶風·栢舟》“胡迭而微(어찌 갈마들어 희미해지느고)”
3. 《邶風·北風》“惠而好我(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로)”
4. 《邶風·靜女》“愛而不見(사랑하되 보지 못하여)”
5. 《鄘風·君子偕老》“胡然而天也(어찌 이렇게 천신 같고)”
6. 《鄘風·君子偕老》“胡然而帝也(어찌 이렇게 천재 같은가)”
7. 《鄘風·相鼠》“人而無儀(사람이면서 위위가 없다)”
8. 《鄘風·相鼠》“人而無止(사람이면서 그침이 없다)”
9. 《鄘風·相鼠》“人而無禮(사람이면서 예의가 없다)”
10. 《衛風·氓》“其黃而隕(그 앞 누렇게 되어 떨어진다)”
11. 《齊風·甫田》“突而弁兮(돌연히 갓을 썼다)”
12. 《齊風·猗嗟》“頎而長兮(훤칠하고 키가 크며)”
13. 《陣風·宛丘》“而無望兮(그러나 우러러 볼 수 없도다)”
14. 《陣風·墓門》“知而不知(알고도 그치지 아니하니)”

15. 《小雅·杕杜》“而多爲恤(근심이 많도다)”
16. 《小雅·白駒》“而有遐心(멀리하는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7. 《小雅·十月之交》“彼月而微(저 달은 이지러지거니와)”
18. 《小雅·十月之交》“此日而微(이 해가 이지러짐이여)”
19. 《小雅·十月之交》“彼月而食(저 달이 월식을 함은)”
20. 《小雅·十月之交》“此日而食(이 해가 일식을 함이여)”
21. 《小雅·何人斯》“爾還而入(내가 돌아가다가 들어오면)”
22. 《小雅·何人斯》“還而不入(돌아가면서도 들어오지 아니하니)”
23. 《小雅·巷伯》“敬而聽之(공경하여 들을지어다)”
24. 《小雅·賓之初筵》“既醉而出(이미 취해서 나가면)”
25. 《小雅·賓之初筵》“醉而不出(취해서도 나가지 않으면)”
26. 《小雅·都人士》“垂帶而厲(띠를 드리워 늘어뜨렸구나)”
27. 《大雅·公劉》“而無永嘆(그래서 긴 탄식이 없도다)”
28. 《大雅·民勞》“而式弘大(그러나 네가 하는 일은 흥대하니라)”
29. 《大雅·抑》“彼童而角(저 어린 짐승에 뿔을 구함이라)”
30. 《大雅·抑》“誰夙知而莫成(누가 일찍 알면서 늦게 이루리오)”
31. 《大雅·桑柔》“予豈不知而作(내 어찌 아지 못하고 하리오)”
32. 《周頌·小毖》“而毖後患(그리고 후환을 삼가는 것일까)”
33. 《魯頌·閟宮》“秋而載嘗(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34. 《魯頌·閟宮》“夏而福衡(여름부터 소뿔에 막대 가로 대고)”
35. 《魯頌·閟宮》“俾爾熾而昌(너로 하여금 타오르듯 번창케 하며)”
36. 《魯頌·閟宮》“俾爾壽而臧(너로 하여금 오래살고 착하게 하여)”
37. 《魯頌·閟宮》“俾爾昌而熾(너로 하여금 번창하여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며)”
38. 《魯頌·閟宮》“俾爾壽而富(너로 하여금 장수하고 부유하게 하여)”
39. 《魯頌·閟宮》“俾爾昌而大(너로 하여금 번창하고 크게 하며)”
40. 《魯頌·閟宮》“俾爾耆而艾(너로 하여금 늙어 허영게 되어)”
41. 《商頌·玄鳥》“降而生商(내려와 상나라 조상을 낳았다)”
42. 《齊風·著》“俟我於著乎而(나를 문간에서 기다리시니)”
43. 《小雅·小宛》“而月斯征(너는 달로 가라)”
44. 《大雅·蕩》“而秉義類(네 선한 무리들을 써야 하거늘)”

위 예문의 항목을 살펴보면, 1~41은 접속사로, 42는 어조사, 43~44는 ‘너’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柔】

‘柔’의 本義는 나무의 재질이 유연하여 구부릴 수도 있고 곧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부드럽다’, ‘연약하다’는 것은 引伸義이다. 《康熙字典》에 “又柔者剛之反(‘柔’는 ‘剛’의 반대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柔’가 《詩經》에서 ‘유연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衛風·碩人》“手如柔荑(손은 부드러운 뽕기 같고)”

《邶風·七月》“爰求柔桑(이에 부드러운 뽕을 구하며)”

《小雅·采薇》“薇亦柔止(고사리가 또한 부드럽도다)”

《小雅·巧言》“荏染柔木(부들부들한 나무를)”

《小雅·桑扈》“旨酒思柔(맛좋은 술이 부드럽도다)”

《大雅·民勞》“柔遠能邇(먼 곳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고 가까운 사람 길들여)”

《大雅·抑》“無不柔嘉(유순하고 아름답지 않음이 없게 할지어다)”

“輯柔爾顏(네 얼굴을 화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여)”

“荏染柔木(야들야들한 부드러운 나무에)”

《大雅·桑柔》“菀彼桑柔(무성한 저 뽕나무의 부드러움이여)”

《大雅·崧高》“柔惠且直(부드럽고 은혜로우면서도 곧도다)”

《大雅·烝民》“柔嘉維則(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오직 법도인지라)”

“柔則茹之(부드러우면 삼키고)”

“柔亦不茹(부드러워도 삼키지 아니하며)”

《周頌·絲衣》“旨酒思柔(맛좋은 술이 부드럽거늘)”

《商頌·長發》“不剛不柔(강하지도 아니하고 부드럽지도 아니하사)”

《詩經》에서는 ‘柔’가 대체로 ‘유연하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또한 ‘안정되다’는 뜻으로 쓰인 예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周頌·時邁》“懷柔百神(모든 신들을 달래어 안정시켜서)”

위의 예문에 사용된 ‘안정되다’는 뜻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而’와 ‘柔’는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유연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泥母’의 ‘而’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 源 字	어 음 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而	柔	雙聲, 旁轉	유연하다.	1. 말을 잇다. 2. 너 3. 같다. 4. 뿐 5. 어조사	奕, 桷, 膈, 嘔, 洩, 駟, 彰, 鬻, 慝, 奕, 鮪, 廼, 需

‘而’의 의미항목에는 ‘유연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而’의 본의가 ‘사람의 구레나룻’이므로, ‘而’가 ‘유연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來母

본 논문에서 언급할 來母의 글자들은 ‘留’, ‘龍’, ‘令’, ‘良’, ‘列’이다.

(1) 留 : 流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侯部·來母》에 ‘漏’, ‘漏’, ‘雷’, ‘窟’, ‘溜’, ‘流’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留】

‘留’는 《說文·田部》에 “畱, 止也. 從田, 丩聲(머무는 것이다. 田을 따르고, 丩의 소리를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흐르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留聲’의 ‘溜’, ‘溜’, ‘溜’, ‘溜’ 등의 글자들이 모두 ‘흐르다’는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留’에 ‘흐르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流】

‘流’는 《說文·水部》에 ‘水行也. 從水, ㇇. ㇇, 突忽也(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水와 ㇇를 따른다. ㇇는 신속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流’는 ‘흐르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留	來母幽部	力求切	來母 雙聲, 幽部 疊韻
流	來母幽部	力求切	

‘留’와 ‘流’는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留’와 ‘流’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留】

‘留’는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도 “本義是停留, 留下(本義는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漢字源流字典》에는 “겸성회의자이다. 금문에는 田을 따르고, 丩는 소리를 겸한다. 本義는 ‘밭 사이에 수확을 하고 누락된 것’이다⁷¹⁾”라고 하였다. 수확을 마치고 밭에 남아있는 작물은 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留’의 풀이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溜’, ‘溜’, ‘溜’를 살펴보면, ‘溜’는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고, ‘溜’는 ‘溜와 같고, ‘溜’는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모두 ‘흐르다’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留聲’이 《詩經》에서는 ‘흐르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 선진문헌에 ‘흐르다’

71) “會議兼形聲字, 金文從田, 丩也兼表聲. 本義爲田間收割有遺漏”,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101.

는 뜻으로 쓰인 例는 다음과 같다.

《文選·潘岳·悼亡詩》“晨霑承檐滴(새벽 낙숫물, 처마에 이어 방울지네)”

《左傳·宣公二年》“三進及溜(세 번이나 처마 밑에 있는 물받이까지 쫓아간 이후에야)”

한편, 《詩經》에서는 ‘溜’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1. 《王風·丘中有麻》“彼留子嗟(저 유씨택 자차여)”
“彼留子國(저 유씨택 자국이여)”
“彼留之子(저 유씨택 아드님이여)”
2. 《大雅·常武》“不留不處(거기 머물러 살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위 예문에 쓰인 의미항목을 보면, 1은 성씨, 2는 本義인 ‘머무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들이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流】

‘流’의 本義는 ‘물이 빠르게 흘러 이동하는 것’이다. 인신되어 ‘모든 사물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은 ‘流’가 《詩經》에서 ‘흐르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1. 《邶風·栢舟》“亦汎其流(정처 없 떠다니네)”
2. 《周南·關雎》“左右流之(이리저리 찾는다)”

위 예문에 쓰인 의미항목을 보면, 1은 ‘흐르다’, 2는 ‘찾다’의 의미로 쓰였다. 2의 ‘찾다’는 뜻 또한 ‘흐르다’는 뜻과 통한다. 찾고자 하면 이리저리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溜’와 ‘流’는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흐르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龍 : 夔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蒸部·來母》에 ‘陵’, ‘隆’, ‘隴’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龍】

‘龍’은 《漢字源流字典》에 “‘龍’은 ‘壟’과 통하여 ‘언덕’, 혹은 ‘무덤’을 가리킨다.⁷²⁾”고 하였다. 언덕이나 무덤은 평지보다 높고 크므로 ‘龍’이 ‘높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龍’은 ‘전설상의 동물’이므로, 고대인들은 ‘龍’을 ‘큰 동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龍’이 ‘높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夔】

‘夔’은 《說文·夂部》에 “高也(높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夔’은 ‘높은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龍	來母東部	力鍾切	來母 雙聲, 東蒸旁轉
夔	來母蒸部	力膺切	

‘龍’과 ‘夔’은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龍’과 ‘夔’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龍】

‘龍’의 本義는 ‘전설상의 동물’로, 《說文·龍部》에 “鱗蟲之長(비늘 있는 동물 중 으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隴’은 ‘높은 언덕’이므로, ‘龍’에 ‘높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龍聲’의 글자인 ‘龐’, ‘龐’, ‘龐’, ‘壟’, ‘龍’, ‘隴’, ‘隴’ 등이 모두 ‘높다’, ‘크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으므로

72) “通壟, 指風壟, 或墳墓”,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46.

로 ‘龍’은 ‘높은 것’이다.

다음은 ‘龍’이 《詩經》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頌·酌》“我龍受之(내 영광스럽게 받았으니)”

《商頌·長發》“何天之龍(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다)”

《小雅·車攻》“四牡龐龐(네 마리 말이 크니)”

또한, 《詩經》에는 ‘龍’이 ‘높다’는 뜻이 아닌 本義인 ‘용’의 뜻으로도 쓰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周頌·載見》“龍旂陽陽(용 깃발 선명하며)”

《魯頌·閟宮》“龍旂承祀(용 깃발로 제사를 이으시니)”

《商頌·玄鳥》“龍旂十乘(용 깃발과 열 대의 수레로)”

《秦風·小戎》“龍盾之合(용을 그린 방패를 대고)”

《小雅·蓼蕭》“爲龍爲光(용이 되고 빛이 되도다)”

【夔】

‘夔聲’의 글자에는 ‘陵’, ‘峻’, ‘綾’, ‘竣’, ‘浚’, ‘駿’, ‘輦’, ‘鏐’, ‘鯪’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높고 크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고, 《同源字典》에서 언급한 ‘陵’, ‘隆’ 또한 ‘높다’는 뜻과 관련된다.

다음은 ‘夔聲’이 《詩經》에서 ‘높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天保》“如岡如陵(산등성이 같고 구릉 같으리라)”

《小雅·菁菁者莪》“在彼中陵(저 구릉 안에 있구나)”

《小雅·沔水》“率彼中陵(저 언덕 속을 따라 날아가는구나)”

《小雅·正月》“爲岡爲陵(산이 구릉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小雅·十月之交》“深谷爲陵(깊은 골짜기 언덕 되었네)”

이상에서 ‘龍’과 ‘夔’은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높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龍 : 𪛗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東部·明母》에 ‘龍’, ‘𪛗’, ‘𪛘’, ‘𪛙’, ‘𪛚’, ‘𪛛’, ‘𪛜’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龍】

‘龍’은 ‘전설상의 동물’을 가리키는데, 《漢字源流字典》에 “龍은 龍과 통하고, 雜色을 가리킨다⁷³⁾”고 하였으므로, ‘龍’이 ‘섞이다’는 뜻을 나타낸다.

【𪛗】

‘𪛗’은 ‘털이 많은 개’로 이름에 ‘번잡하다’는 뜻이 담겨있고, 인신하여 ‘색이 뒤섞이다’, ‘번잡하다’는 뜻이 되었다. 또한 《康熙字典》에도 “又雜也(또한 섞인 것이다)”라고 하였고, ‘龍聲’의 글자인 ‘𪛗’, ‘𪛘’, ‘𪛙’, ‘𪛚’, ‘𪛛’ 등이 ‘섞이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𪛗’은 ‘섞이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龍	來母東部	力鍾切	來明 隣紐, 東部 疊韻
𪛗	明母東部	莫江切	

‘龍’과 ‘𪛗’은 隣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龍’과 ‘𪛗’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龍】

‘龍’의 本義는 ‘전설상의 동물’로, ‘섞이다’는 뜻은 ‘龍’의 다른 어원의이다. ‘龍聲’의 글자에는 ‘攏’, ‘藿’, ‘龐’ 등이 있으며, 모두 ‘섞이다’는 의미와 관련된다.

7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101.

《詩經》에는 ‘龍聲’이 ‘섞이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書》에 그 예가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書·周官》“不和, 政龐(화합 못하면 정사가 어지러워질 것이요)”

【龍】

‘龍’은 《說文·犬部》에 “龍, 犬之多毛者. 從犬, 從彡(털이 많은 개다)”라고 하였다. ‘龍’은 ‘犬’을 따르며, ‘彡’을 따르는 회의자이며, ‘彡’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많으면 번잡하고, 또한 섞인다. 《同源字典》에서 언급한 글자들을 살펴보면, 모두 ‘龍聲’을 따른다. ‘𪔑’은 ‘검은 털과 흰털이 섞여있는 소’를 가리키고, ‘𪔒’은 ‘난잡한 말’을 가리킨다. 이로써 ‘龍聲’은 ‘번잡하다’, ‘뒤섞여 어지럽다’는 뜻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龍聲’이 《詩經》에서 ‘섞이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左傳》에 예가 보인다. 다음은 《左傳》의 예이다.

《左傳·閔公 二年》“衣之龍服(잡색의 옷을 입게 한 것은)”

다음은 ‘龍聲’이 《詩經》에서 ‘섞이다’의 뜻이 아닌 本義인 ‘삼살개’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召南·野有死麕》“無使龍也吠(삼살개로 하여금 짖지 말게 하여라)”

《商頌·長發》“爲下國駿厖(아래 나라들을 크게 감싸)”

이상에서 ‘龍’과 ‘龍’은 隣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섞이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 龍 : 令 : 罍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東部·來母》에 ‘籠’, ‘笮’이 동원이라고 하였고, 《同源字典·耕部·來

母》에는 ‘龍’, ‘靈’, ‘樺’, ‘船’, ‘輪(輻)’, ‘笊’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龍】

‘龍’은 《廣韻》에 “通也(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통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며, ‘龍聲’의 글자인 ‘權’, ‘籠’, ‘瓏’, ‘權’, ‘寵’, ‘龔’ 등이 모두 ‘비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龍’이 ‘비다’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令】

‘令’의 의미항목에 ‘비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玲’, ‘砿’, ‘笊’, ‘船’, ‘輪’, ‘令’ 등의 글자들이 모두 ‘비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令聲’이 ‘비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龍】

‘龍’은 《廣雅·釋詁 三》에 “空也(빈 것이다)”라고 하였다. ‘龍’은 ‘빈 것’이다.

이 세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龍	來母東部	力鍾切	來母 雙聲, 東耕 旁轉
令	來母耕部	力延切	
龍	來母耕部	郎丁切	

‘龍’과 ‘令’, ‘龍’은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龍’과 ‘令’, ‘龍’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龍】

‘龍’의 本義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그러나 《廣韻》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통하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므로, ‘龍’이 ‘빈 것’을 나타낼 수 있다.

‘龍聲’이 《詩經》에서 ‘비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莊子》에 그 예가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莊子·庚桑楚》“以天下爲之籠, 則雀無所逃(천하로 조롱을 삼는다면 새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위 항목의 ‘籠’은 대나무로 짠 그릇으로, 사이가 비어있으므로 ‘비다’는 뜻과 관련된다.

한편, 《詩經》에서는 ‘龍聲’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1. 《周頌·酌》“我龍受之(내가 영광스럽게 받았으니)”
2. 《商頌·長發》“何天之龍(하늘의 은총을 받으셨다)”
3. 《小雅·蓼蕭》“爲龍爲光(사랑스럽고 영광스러워라)”
4. 《周頌·載見》“龍旂陽陽(용 깃발 선명하며)”
5. 《魯頌·閟宮》“龍旂承祀(용 깃발로 제사를 이으시니)”
6. 《商頌·玄鳥》“龍旂十乘(용 깃발과 십승으로)”
7. 《秦風·小戎》“龍盾之合(용을 그린 방패를 대고)”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3은 ‘크다’, 4~7은 本義인 ‘용’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令】

‘令’의 本義는 ‘명령하는 것’이다. 殷寄明은 ‘令’의 同源字를 ‘婁’로 推源하였다. 《說文·女部》에 “婁, 空也. 從母, 中, 女, 空之意也(텅 빈 것이다)”라고 하여, ‘婁’는 ‘빈 것’을 나타낸다. ‘婁聲’의 ‘樓(다락)’, ‘篋(바구니)’, ‘髀(해골)’ 등의 글자는 모두 ‘비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令聲’이 《詩經》에서 ‘비다’의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楚辭》에 예가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楚辭·九章·涉江》“乘船船余上沅兮(창문 달린 배를 타고 원수를 거슬러 오르고)”

위 예문의 ‘船’은 ‘창문이 있는 작은 배’이다. 인신되어 ‘배의 창문’을 가리킨다. ‘창문’은 ‘빈 것’이므로 ‘비다’는 뜻과 관련된다.

【霽】

‘霽’은 《說文·雨部》에서 “雨零也. 從雨, 𩇛象霽形(비가 조용히 내리는 것이다. 雨를 따르며, 𩇛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이다)”이라 하였으므로, 本義는 ‘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霽聲’의 ‘櫛’, ‘輻’, ‘靈’ 등의 글자들이 모두 ‘비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霽聲’에 ‘비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殷奇明은 ‘霽聲’의 同源字를 ‘窓’으로 推源하였다. ‘窓’은 ‘창문’으로 가운데가 비어있어 밝게 해주는 것으로 ‘비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霽聲’이 《詩經》에서 ‘비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左傳》에서 예가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左傳·定公九年》“載葱靈, 寢於其中而逃(수레의 난간에 실려 그 가운데서 자면서 도망갔다)”

위 항목의 ‘葱靈’은 앞뒤는 덮여 있고 좌우는 뚫려있는 수레이므로, ‘비다’는 뜻이 들어있다.

《詩經》에서 ‘霽聲’은 ‘美’의 뜻으로 쓰였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鄘風·定之方中》“靈雨既霽(단비가 이미 내리거늘)”

《大雅·靈臺》“經始靈臺(좋은 누각 만들기 시작하여)”

“王在靈囿(왕께서 영유에 계시니)”

“王在靈沼(왕께서 영소에 계시니)”

《大雅·生民》“以赫厥靈(그 신령함이 빛나시니)”

《商頌·殷武》“濯濯厥靈(빛나는 그 영령이로소니)”

위의 예문에 사용된 뜻은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龍’과 ‘令’, ‘令’은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비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令 : 使

殷寄明은 ‘令聲’의 ‘명령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使’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耕部·來母》에는 ‘令’, ‘令’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令】

‘令’은 《說文·冫部》에 “發號也(명령을 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令’은 ‘명령하는 것’이다.

【使】

‘使’는 《說文·人部》에 “伶也. 從人, 吏聲(명령하여 부리는 것이다. 人을 따르고, 吏의 소리이다)”라고 하였으므로, ‘使’가 ‘명령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令	來母耕部	力延切	來透 旁紐, 耕之 旁對轉
使	透母之部	踈士切	

‘令’과 ‘使’는 旁紐, 旁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令’과 ‘使’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令】

‘令’의 本義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令’과 ‘命’이 한 글자인데, 후에 두 글자로 분화되었으며, 입으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으로 本義는 명령하는 것이다.⁷⁴⁾ ‘令聲’의 ‘명령하다’는 뜻의 글자에는 ‘伶’, ‘冷’, ‘詒’, ‘命’ 등이 있다.

다음은 ‘令聲’이 《詩經》에서 ‘명령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齊風·東方未明》“自公令之(공소로부터 명이 있도다)”

《秦風·車鄰》“寺人之令(내관을 명하도다)”

《鄘風·定之方中》“命彼倌人(저 마부에게 명하여)”

《小雅·出車》“王命南仲(왕이 남중에 명하시어)”

“天子命我(천자께서 내게 명하시어)”

《小雅·采芣》“服其命服(그 명한 군복을 입으니)”

《小雅·采芣》“天子命之(천자가 명하도다)”

《小雅·縣蠻》“命彼後車(저 뒤따라가는 수레에 명하여)”

《大雅·文王》“上帝既命(상제가 이미 명하셨느니라)”

《大雅·大明》“命此文王(이 문왕에게 명하시어)”

“保右命爾(하늘이 보우하시고 명하시니)”

《大雅·假樂》“保右命之(보호하며 도우며 명하시고)”

《大雅·卷阿》“爾受命長矣(네가 명을 받음이 길으니)”

“維君子命(오직 군자의 명이라)”

《大雅·蕩》“其命多辟(그 명에 사벽함이 많도다)”

“其命匪謹(그 명을 믿지 못함은)”

“大命以傾(대명이 기울어지도다)”

《大雅·抑》“訏謨定命(계책을 크게 하고 명을 안정되게 하며)”

“匪面命之(대면하여 명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大雅·崧高》“王命召伯(왕이 소백에게 명하여)”

“王命申伯(왕이 신백에게 명하여)”

“王命傅御(왕이 부어에게 명하시어)”

《大雅·烝民》“明命使賦(밝은 명을 펴게 하도다)”

“王命仲山甫(왕이 중산보에게 명하시어)”

“出納王命(왕의 명을 받들어 펴고 행하고 복명하여)”

74) “字象口施令於下人. 本義是命令”,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出版社, 2008, p. 209.

- “肅肅王命(엄한 왕명을)”
- 《大雅·韓奕》“韓侯受命(한나라 제후가 명을 받았도다)”
- “王親命之(왕이 친히 명하시되)”
- “無廢朕命(나의 명을 저버리지 말고)”
- “朕命不易(짐의 명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 “以先祖受命(선조의 명을 받음이)”
- 《大雅·江漢》“王命召虎(왕이 소호에게 명하여)”
- “文武受命(문왕과 무왕이 명을 받으셨을 때)”
- “于周受命(주나라의 명을 받들어)”
- “自召祖命(소공 할아버지가 명을 받았던 곳으로부터 하노라)”
- 《大雅·常武》“王命卿士(왕이 경사에게 명하심이)”
- “命程伯休父(정백휴보에게 명하여)”
- 《大雅·召旻》“昔先王受命(옛날 선왕이 명을 받으실 적엔)”
- 《周頌·維天之命》“維天之命(하늘의 명이)”
- 《周頌·昊天有成命》“昊天有成命(하늘이 이룬 명이 있으시거늘)”
- “夙夜基命宥密(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을 다지기를 넓게 하고 빈틈없이 하사)”
- 《周頌·思文》“帝命率育(상제께서 두루 기르도록 명하심이라)”
- 《周頌·臣工》“命我衆人(우리 백성들에게 명하여)”
- 《周頌·敬止》“命不易哉(명이 쉽지 아니하니)”
- 《周頌·桓》“天命匪解(천명이 게을리 하지 않는지라)”
- 《周頌·賚》“時周之命(이 주나라의 명이니)”
- 《周頌·般》“時周之命(이 주나라의 명이니라)”
- 《魯頌·閟宮》“乃命魯公(이에 노공에게 명하사)”
- 《商頌·烈祖》“我受命溥(내 명을 받음이 넓고 크거늘)”
- 《商頌·玄鳥》“天命玄鳥(하늘이 제비에게 명하여)”
- “古帝命武湯(옛날 상제께서 무탕에게 명하사)”
- “方命厥后(사방으로 그 제후들에게 명하사)”
- “受命不殆(명을 받음이 위태롭지 아니한지라)”
- “殷受命咸宜(은나라가 명을 받음이 모두 마땅한지라)”
- 《商頌·長發》“帝命不違(상제의 명에 어김이 없으시어)”



- “帝命式于九圍(상제가 구주 천하의 모범이 되도록 명하셨느니라)”
- 《商頌·殷武》“天命多辟(하늘이 많은 제후들에게 명하사)”
- “天命降監(천명이 내려와 보심이라)”
- “命于下國(이 나라에 명하시어)”
- 《召南·小星》“寔命不同(실로 타고난 명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
- “寔命不猶(실로 명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
- 《鄘風·蝦蟇》“不知命也(천명을 알지 못하는구나)”
- 《唐風·揚之水》“我聞有命(내가 명이 있다는 것을 듣고)”
- 《小雅·十月之交》“天命不徹(천명이 공정하지 못하니)”
- 《小雅·小宛》“天命不又(하늘의 명이 다시 오지 않느니라)”
- 《大雅·文王》“其命維新(그 천명이 오직 새롭도다)”
- “帝命不時(상제의 명이 때가 아니라)”
- “假哉天命(크나큰 하늘의 명은)”
- “天命靡常(천명이 항상 하지 아니하니라)”
- “永言配命(언제까지나 하늘의 명을 따라)”
- “駿命不易(큰 명은 쉽지 않느니라)”
- “命之不易(천명이 쉽지 않으니)”
- 《大雅·大明》“有命既集(천명이 이미 모이니라)”
- “有命自天(천명이 하늘로부터 한지라)”
- 《大雅·皇矣》“受命既固(천명을 받음이 이미 견고하셨다)”
- 《大雅·下武》“永言配命(오래도록 하늘의 명에 맞도록)”
- 《大雅·文王有聲》“文王受命(문왕이 천명을 받아)”
- 《大雅·既醉》“景命有僕(큰 명이 따라붙음이 있으리로다)”

《詩經》에서는 대체로 ‘명령하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몇 가지 예는 이것과 관련 되지 않기도 하며, ‘명령하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邶風·凱風》“我無令人(우리는 착한 사람이 없노라)”
2. 《小雅·蓼蕭》“令德壽豈(아름다운 덕이 오래도록 즐거우리로다)”
3. 《小雅·湛露》“莫不令德(미덕이 어질지 아니함이 없도다)”
“莫不令儀(위위가 어질지 아니함이 없도다)”

4. 《小雅·十月之交》“不寧不令(편안하지 못하고 좋지 아니하도다)”
5. 《小雅·頍弁》“樂酒令夕(술 마시며 오늘 저녁을 즐거워하여)”
6. 《小雅·車輦》“令德來教(어진 덕으로 와서 가르치도다)”
7. 《小雅·賓之初筵》“維其令儀(오직 그 어진 위의니라)”
8. 《小雅·角弓》“此令兄弟(이 어진 형제는)
“不令兄弟(어질지 못한 형제는)”
9. 《大雅·文王》“令聞不已(어진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사)”
10. 《大雅·既醉》“高朗令終(높고 밝아서 마침을 잘하리로다)
“令終有傲(마침을 잘함은 시작이 있으니)”
11. 《大雅·假樂》“顯顯令德(드러나고 드러난 훌륭한 덕이로다)”
12. 《大雅·卷阿》“令聞令望(명예도 있고 축망도 있음이라)”
13. 《大雅·烝民》“令儀令色(훌륭한 위와 선한 얼굴빛이며)”
14. 《大雅·韓奕》“慶既令居(이미 아름다운 거처를 기뻐하니)”
15. 《大雅·江漢》“令聞不已(훌륭한 명성이 그치지 아니하시며)”
16. 《魯頌·閟宮》“令妻壽母(착한 부인과 장수한 어머니가 계셨다)”
17. 《小雅·小宛》“題彼脊令(저 척령새를 보건대)”
18. 《大雅·雲漢》“大命近止(대명이 가까운지라)”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16은 ‘좋다’, 17은 ‘새의 이름’, 18은 ‘운명’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使】

‘使’는 ‘吏’의 분화자이다. ‘吏’는 붓을 쥐고 글씨를 쓰는 것이다. 고대에는 ‘史’, ‘吏’의 구별이 없었다.⁷⁵⁾ 고대에는 붓을 쥐고 글을 쓰는 사람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으므로, ‘使’가 ‘명령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使’의 本義는 ‘사람을 보내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⁷⁶⁾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使’는 ‘명령하는 것’이다.

75) “古‘史’, ‘吏’無別. 字形與吏同, 古筆字, 字象手持筆書寫辦事之意”,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90.

76) “本義爲派人做事”,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651.

다음은 ‘使’가 《詩經》에서 ‘명령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召南·野有死麕》“無使龍也吠(삽살개가 짖지 않게 하여라)”

《衛風·碩人》“無使君勞(왕을 수고롭게 하지 않더니라)”

《衛風·伯兮》“使我心癡(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누나)”

《鄭風·狡童》“使我不能餐兮(내가 능히 먹지도 못하랴)”

“使我不能息兮(내가 능히 편히 쉬지도 못하랴)”

《邶風·九罭》“無使我心悲兮(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슬픔이 없게 할지어다)”

《小雅·采薇》“靡使歸聘(돌아가 안부를 묻지 못하리로다)”

《小雅·雨無正》“云不可使(가히 부리지 못한다고 이르는 이는)”

“亦云可使(또한 가히 부릴 만하다고 이르는 이는)”

《小雅·大東》“使我心疚(나로 하여금 마음에 병 되게 하도다)”

《小雅·楚茨》“使君壽考(임금으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도다)”

《大雅·大明》“使不挾四方(사망의 나라를 두지 못하게 하시니라)”

《大雅·卷阿》“維君子使(오직 군자의 부림이라)”

《大雅·烝民》“明命使賦(밝은 명을 펴게 하도다)”

이상에서 ‘令’과 ‘使’는 旁紐, 旁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명령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6) 良 : 亮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들의 성부를 표제자로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陽部·來母》에 ‘朗(脹)’, ‘亮’이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良】

‘良’은 《漢字源流字典》에 “本義爲進出的廊道高朗(本義는 출입하는 복도가 밝은 것이다)⁷⁷⁾”라고 하여, ‘良’은 ‘밝은 것’이고, ‘良聲’의 ‘朗’, ‘脹’, ‘煒’, ‘閨’, ‘暎’, ‘浪’,

‘眼’ 등의 글자들이 ‘밝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良’에 ‘밝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亮】

‘亮’은 《漢字源流字典》에 “亮은 《說文》에는 없다. 段玉裁가 《六書故》에 근거하여 ‘亮, 明也. 從儿, 高省(亮은 밝은 것이다. 儿을 따르고 高의 생략형이다)’라고 하였다⁷⁸⁾”고 하였으므로, ‘亮’은 ‘밝은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良	來母陽部	呂章切	來母 雙聲, 陽部 疊韻
亮	來母陽部	力讓切	

‘良’과 ‘亮’은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良’과 ‘亮’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良】

‘良’의 本義는 ‘높고 밝은 것’으로, 《說文·良部》의 “善也. 從高省, 亡聲(선량한 것이다. 高의 省體를 따르고, 亡聲이다)”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다음은 ‘良聲’이 《詩經》에서 ‘밝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既醉》“高朗令終(높고 밝아서 마침을 잘하리로다)”

《詩經》에서는 ‘良聲’이 ‘밝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드물고, 다음의 예와 같은 뜻으로 쓰인 예가 많다.

1. 《邶風·日月》“德音無良(덕음이 어질지 못하도다)”

77)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510.

78) “《說文》失收. 段玉裁据《六書故》補入. 《說文·儿部》段注:‘亮, 明也. 從儿, 高省’”, 谷衍奎, 위의 책, p. 909.

2. 《鄘風·鶉之奔奔》“人之無良(사람의 어질지 못함을)”
3. 《鄘風·干旄》“良馬四之(좋은 말 네 마리니)”
4. 《鄘風·干旄》“良馬五之(좋은 말 다섯 마리니)”
5. 《鄘風·干旄》“良馬六之(좋은 말 여섯 마리니)”
6. 《衛風·氓》“子無良媒(그대에게 좋은 중매가 없어서이니)”
7. 《鄭風·大叔于田》“又良御忌(또한 말도 잘 모니)”
8. 《唐風·蟋蟀》“良士翼翼(어진 선비의 두려워하고 조심함이니라)”
9. 《唐風·蟋蟀》“良士蹶蹶(어진 선비의 민첩하게 나가는 것이니라)”
10. 《唐風·蟋蟀》“良士休休(어진 선비의 아름다움이니라)”
11. 《秦風·黃鳥》“殲我良人(우리 양인을 죽이도다)”
12. 《陳風·墓門》“夫也不良(지아비가 어질지 못하거늘)”
13. 《小雅·常棣》“每有良朋(매번 좋은 벗이 있으나)”
14. 《小雅·十月之交》“不用其良(그 어진 이를 쓰지 않도다)”
15. 《小雅·角弓》“民之無良(백성이 선량하지 않음은)”
16. 《小雅·白華》“之子無良(지자가 어질지 못하여)”
17. 《大雅·民勞》“以謹無良(어질지 못한 이를 단속하며)”
18. 《大雅·桑柔》“維此良人(오직 이 선량한 사람을)”
19. 《大雅·桑柔》“匪用其良(그 선량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여)”
20. 《大雅·崧高》“戎有良翰(네가 좋은 인재를 두었다 하도다)”
21. 《周頌·良耜》“翼翼良耜(날카롭게 생긴 좋은 보습으로)”
22. 《唐風·綢繆》“見此良人(이 사람 보게 되었노라)”
23. 《唐風·綢繆》“如此良人何(이 사람 어찌할꼬)”
24. 《秦風·小戎》“厭厭良人(편안한 양인이여)”
25. 《邶風·終風》“謔浪笑敖(희롱하고 방탕하고 비웃고 거만하니라)”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21은 ‘좋다’, 22~24는 ‘남편’, 25는 ‘방자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亮】

‘亮’은 《廣韻》에 “朗也(밝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亮’은 ‘밝은 것’이다.

‘亮’의 例는 《詩經》에 없고 三國 魏의 嵇康의 《雜詩》에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雜詩》“皎皎亮月(휘영청 밝은 달)”

이상에서 ‘良’과 ‘亮’은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밝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7) 列 : 例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月部·來母》에 ‘列’, ‘例’이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列】

‘列’의 본의는 ‘나누다’로, 《說文·刀部》에 “分解也. 從刀, 列聲(분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자의 후기자가 ‘裂’이다. 그러나 《廣韻》에는 “行次也(순서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列’은 ‘줄지어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순서대로 가는 것’은 ‘행렬’이다.

【例】

‘例’은 《說文·木部》에 “榭也. 從木, 列聲(산밤나무이다)”라고 하였다. ‘例’은 산밤나무가 줄지어 서있는 모습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은 ‘행렬’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列	來母月部	良辭切	來母 雙聲, 月部 疊韻
例	來母月部	力制切	

‘列’과 ‘例’은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列’과 ‘桷’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列】

‘列’은 ‘나누는 것’이다. 물건을 나누면 자연히 다른 부분이 생기므로 사람 혹은 물건이 가로 혹은 세로로 줄을 지어 있는 것이다. 즉 ‘행렬’이다.⁷⁹⁾ 그러므로 ‘列’의 파생어 중에는 ‘행렬’의 뜻이 있다. ‘列聲’의 ‘桷’, ‘颯’ 등의 글자는 모두 ‘행렬’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

‘列聲’이 《詩經》에서 ‘행렬’의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論語》에 보이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論語·季氏》“陳力就列(힘을 다하여 반열에 나가되)”

【桷】

‘桷’은 ‘작은 나무가 죽 늘어서 자라는 것’으로, 또한 ‘행렬’의 뜻이다.

다음은 ‘桷’이 《詩經》에서 ‘행렬’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皇矣》“其灌其桷(관목과 늘어진 가지며)”

이상에서 ‘列’과 ‘桷’은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줄지어 늘어서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8) 列 : 厲

殷寄明은 ‘列聲’의 ‘맹렬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厲’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月部·來母》에는 ‘烈’, ‘颯’, ‘颯’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79) “本義爲分解, 分開. 將物分開自然會成爲不同的部分, 指人或物排成的直排或橫排, 卽行列”,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242.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列】

‘列’의 본의는 ‘나누는 것’으로, ‘맹렬하다’는 뜻과 무관하다. 그러나 ‘列聲’의 ‘冽’, ‘烈’, ‘颯’ 등의 글자들이 ‘맹렬하다’는 뜻과 관련되므로, ‘列’에 ‘맹렬하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烈士’는 ‘列士’ 라고도 쓰이므로, 또한 ‘列聲’이 ‘맹렬하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厲】

‘厲’는 《廣韻》에 “烈也, 猛也(세찬 것이다. 맹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厲’는 ‘세찬 것’이고, ‘맹렬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列	來母月部	良辭切	來母 雙聲, 月部 疊韻
厲	來母月部	力制切	

‘列’과 ‘厲’는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列’과 ‘厲’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列】

‘列’의 本義는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同源字典》에 제시된 ‘烈’, ‘颯’을 살펴보면, ‘烈’은 불길이 세찬 것이고, ‘颯’은 바람이 세찬 것이다. 이 글자들은 모두 ‘세차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고, 모두 ‘列聲’이므로 ‘列’이 ‘세차다’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찬 것’은 ‘맹렬하다’는 뜻과 통한다.

다음은 ‘列聲’이 《詩經》에서 ‘맹렬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曹風·下泉》“冽彼下泉(맑고 찬 저 흐르는 샘이여)”

《小雅·采薇》“憂心烈烈(근심스런 마음이 열렬하여)”

《小雅·蓼莪》“南山烈烈(남산은 높고 높아)”
 《小雅·四月》“冬日烈烈(겨울날이 매섭게 춥거늘)”
 《小雅·賓之初筵》“烝衍烈祖(나아가 여러 조상을 즐겁게 하여)”
 《小雅·黍苗》“烈烈征師(위엄있고 군세계 가는 무리를)”
 《大雅·思齊》“烈假不暇(빛나고 위대하여 허물이 없으시며)”
 《大雅·生民》“載燔載烈(고기를 굽고 적도 부쳐서)”
 《周頌·烈文》“烈文辟公(군세고 빛나는 제후들이)”
 《周頌·執競》“無競維烈(무경유렬) : 비길 데 없이 빛나는 공적”
 《周頌·雝》“既右烈考(이미 빛나는 조상을 높이고)”
 《周頌·載見》“休有烈光(아름답게 매우 빛남이 있도다)”
 “烈文辟公(군세고 빛나는 제후들이)”
 《周頌·武》“無競維烈(비길 데 없는 빛나는 공적이셨다)”
 《魯頌·泮水》“昭假烈祖(열조께 밝게 이르시니)”
 《商頌·那》“衍我烈祖(우리 열조를 즐겁게 하도다)”
 《商頌·烈祖》“嗟嗟烈祖(아, 슬프다, 공 많으신 조상이)”
 《商頌·長髮》“相土烈烈(상토가 군세고 군세니)”
 “如火烈烈(불처럼 맹렬히 타오르는 듯하여)”

【厲】

‘厲’는 《說文·厂部》에 “旱石也. 從厂, 薑省聲(거친 숫돌이다)”라고 하였다. ‘厲’의 本義는 ‘숫돌’이다. ‘숫돌’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로, 이러한 연장들이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숫돌과 부딪쳐야 하므로, ‘厲’가 ‘맹렬하다’는 뜻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厲’가 《詩經》에서 ‘맹렬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正月》“胡然厲矣(어찌 포학하기만 한고)”
 《大雅·民勞》“以謹醜厲(악하고 사나운 사람 삼가며)”

또한, ‘厲’가 《詩經》에서 ‘맹렬하다’는 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도 쓰인 예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邶風·匏有苦葉》“深則厲(깊으면 옷을 벗어 들고)”
2. 《衛風·有狐》“在彼淇厲(저 기수 건너는 곳 있네)”
3. 《小雅·都人士》“垂帶而厲(띠를 드리워 늘어졌도다)”
4. 《大雅·公劉》“取厲取鍛(솥들과 쇠를 취해와)”
5. 《大雅·桑柔》“誰生厲階(누가 원망의 사닥다리를 만들어)”
6. 《大雅·瞻卬》“降此大厲(이 큰 난을 내리셨다)”
7. 《大雅·瞻卬》“維厲之階(오직 화의 사닥다리로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2는 ‘上’, 3은 ‘드리우다’, 4는 本義인 ‘돌’, 5는 ‘원망’, 6~7은 ‘재난’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列’과 ‘厲’는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맹렬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來母’의 ‘溜’, ‘龍’, ‘令’, ‘良’, ‘列’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留	流	雙聲, 疊韻	흐르다.	1. 머무르다. 2. 뒤지다. 3. 오래다 4. 엿보다.	溜, 溜, 雷, 溜
龍	夔	雙聲, 旁轉	높다.	① 1. 용 2. 말 3. 별이름 ② 언덕 ③ 얼룩 ④ 은총	龐, 龐, 隴, 壟, 寵, 籠, 隴, 隴
	龙	隣紐, 疊韻	섞이다.	1. 하게하다. 2. 부리다. 3. 가령	攏, 籠, 龐

				4. 방울소리 5. 법 6. 영 7. 영내리다. 8. 피하다. 9. 장관 10. 착하다, 아름답다. 11. 칠	
	令, 霽	雙聲, 旁轉	비다.	1. 어질다. 2. 곧다. 3. 좋다. 4. 아름답다. 5. 길하다. 6. 남편 7. 잠깐 8. 진실로	權, 籠, 瓏, 襪, 寵, 槩
令	使	旁紐, 旁對轉	명령하다.	1. 반열 2. 줄 3. 줄짓다. 4. 매기다. 5. 벌리다. 6. 베풀다.	伶, 泠, 詒, 命
良	亮	雙聲, 疊韻	밝다.		朗, 脹, 烺, 闐, 眼, 浪, 眼
列	例	雙聲, 疊韻	줄지어 늘어서다.		
	厲	雙聲, 疊韻	맹렬하다.		冽, 烈, 颯

위 표를 보면 ‘令’, ‘良’, ‘列’은 각각 ‘명령하다’, ‘밝다’, ‘줄지어 늘어서다’는 뜻으로 본의, 인신의로 의미가 추정가능하다. 그러나 ‘溜’는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없는 ‘흐르다’는 뜻을 나타내고, ‘龍’은 ‘높다’, ‘섞이다’는 뜻을 나타내며, ‘列’은 ‘맹렬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溜’, ‘龍’, ‘列’이 이러한 뜻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脣音

본 논문에서 언급한 脣音은 幫母, 滂母, 並母, 明母에 속하는 글자들이다.

1) 幫母

본고에서 언급할 幫母의 글자들은 ‘卑’, ‘甫’, ‘包’, ‘比’, ‘并’, ‘分’, ‘扁’이다.

(1) 卑 : 鄙

殷寄明은 ‘卑聲’의 ‘낮다.’는 뜻의 同源字를 ‘鄙’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支部·幫母》에는 ‘卑’, ‘婢’, ‘庠’, ‘埤(陴, 脾, 俾)’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卑】

‘卑’는 《說文·十部》에 “賤也. 執事也. 從力, 甲(비천한 일을 하는 것이다. 力(왼손)와 甲을 따르는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卑’에 ‘낮다’는 引伸義가 생긴 것이다.

【鄙】

‘鄙’는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 “고대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변두리에서 성장한 사람은 지식이 낮았다. 그로 인해 ‘鄙’가 ‘어리석다’는 뜻으로 인신되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긴다. 이 때문에 ‘업신여기다’는 引伸義가 나오게 되었다.⁸⁰⁾”라고 하였다. ‘업신여기다’는 뜻은 ‘낮다’는 뜻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卑	幫母支部	府移切	幫母 雙聲, 支之 旁轉
鄙	幫母之部	方美切	

80) “古代交通不發達, 生長在邊邑的人難免見識淺薄, 故引申爲見識淺薄. 見識淺薄的人往往被人瞧不起, 因此引申爲瞧不起, 輕視”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11.

‘卑’와 ‘鄙’는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卑’와 ‘鄙’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卑】

‘卑’의 本義는 ‘비천한 것’이다. ‘비천하다’는 뜻에서 ‘지위가 낮다’, ‘지세가 낮다’로 인신되었고, 또한 ‘낮다’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卑聲’의 ‘埤’, ‘痺’, ‘啤’, ‘庌’, ‘婢’, ‘俾’, ‘穉’, ‘穉’ 등의 글자는 모두 ‘낮다’는 의미와 관련된다.

다음은 ‘卑聲’이 《詩經》에서 ‘낮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正月》“謂山蓋卑, 爲岡爲陵(산봉우리 낮아 산이 구릉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

《小雅·白華》“履之卑兮(밟는 이도 낮으니라)”

【鄙】

‘鄙’는 《殷墟甲骨文》에는 “鄙의 本義는 국경지대이다.⁸¹⁾”라고 하였는데, 《說文·邑部》에는 “五鄣爲鄙. 從邑畠聲(5개의 고을이鄙이다. 邑을 따르고 畠의 소리가 다)”라고 하였으므로, 《說文》의 풀이는 引伸義이다. 그리고 《漢字源流字典》에는 “引申指卑下(또한 인신되어 卑下하는 것을 가리킨다)⁸²⁾”라고 하였으므로, ‘鄙’는 또한 ‘낮다’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품격이 낮은 것’을 ‘鄙下’라 하고, ‘떨어지는 것’ 또한 ‘鄙劣’이라 하므로, ‘鄙’는 ‘낮은 것’이다.

‘鄙’가 《詩經》에서 쓰인 예는 없고, 《論語》에 쓰인 예가 있다.

다음은 《論語》에 쓰인 예이다.

《論語·泰伯》“斯遠鄙倍矣(비루하고 어긋남을 멀리 할 것이니)”

《論語·子罕》“多能鄙事(천한 일에 아주 능하였다)”

“有鄙夫問於我(어느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

81) “本義是邊鄙”, 馬如森, 《殷墟甲骨文》, 上海大學, 2008, p. 156.

82)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590.

《論語·陽貨》“鄙夫可與事君也與哉(비루한 사람과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상에서 ‘卑’와 ‘鄙’는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낮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甫 : 扶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들의 성부를 표제자로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魚部·幫母》에 ‘傅’, ‘俯’, ‘扶’, ‘輔’, ‘賄’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甫】

‘甫’의 의미항목에는 ‘돕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甫聲’의 글자인 ‘輔’, ‘俯’, ‘補’, ‘哺’, ‘哺’, ‘舖’, ‘舖’, ‘賄’, ‘誦’ 등이 ‘서로 돕다’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甫’에 ‘돕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扶】

‘扶’는 《說文·手部》에 “佐也. 從手夫聲(돕는 것이다. 손을 따르고 夫의 소리가 다)”라고 하였다. ‘扶’는 ‘돕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甫	幫母魚部	方矩切	幫並 旁紐, 魚部 疊韻
扶	並母魚部	防無切	

‘甫’와 ‘扶’는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甫’와 ‘扶’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甫】

‘甫’의 本義는 ‘채소의 묘목’으로, 갑골문은 밭에 자라고 있는 채소의 묘목을 상형한 것으로, ‘圃’의 본자이므로,⁸³⁾ 《說文·用部》의 “男子美稱也. 從用, 父, 父亦聲 (남자의 미칭이다. 用을 따르고 父를 따르는 회의이며 父는 또한 소리이다)”는 해석은 가차이다. ‘甫聲’의 ‘돕다’는 뜻은 引伸義로,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輔’와 ‘扶’가 동원이라 하였다. 王力이 제시한 ‘輔’를 살펴보면, 《說文·車部》에는 “人頰車也. 從車, 甫聲(‘광대뼈’다. 車를 따르고 甫聲雙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풀이이다. ‘車聲을 따르다’라고 하였으므로, 수레와 관련된 풀이가 맞다. 그러므로 《說文》의 풀이는 引伸義이고, 本義는 ‘수레바퀴 바깥에 묶어 바퀴에 끼워 바퀴살에 힘을 증가시키고 보조 작용을 하는 두 개의 곧은 나무’이다. 그러므로 ‘甫’가 ‘돕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殷寄明은 ‘甫聲’의 同源字를 ‘副’로 推源하였다. ‘甫’와 ‘副’는 幫滂 旁紐, 魚職 對轉으로 동원관계이다. ‘副’에는 引伸義로 ‘돕다’의 뜻이 있다.

다음은 ‘甫聲’이 《詩經》에서 ‘돕다’는 뜻으로 쓰인 例이다.

《小雅·正月》“乃棄爾輔(이에 네 보거를 버리니)”

“無棄爾輔(네 보거를 버리지 마라)”

《魯頌·閟宮》“爲周室輔(주나라 왕실의 보필이 될지어다)”

《大雅·崧高》“王命傅御(왕이 신백 가신에게 명하시어)”

《大雅·烝民》“維仲山甫補之(오직 중산보가 도와주도다)”

【扶】

‘扶’의 本義는 ‘돕는 것’이다.

‘扶’가 《詩經》에서 ‘돕다’는 뜻으로 쓰인 例는 없고, 《戰國策》에 例가 보인다. 다음은 《戰國策》에서 ‘扶’가 ‘돕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戰國策·宋策》“若扶梁伐趙(만약 양나라를 도와 조나라를 친다면)”

83) “甲骨文象田中長有菜苗形, 是‘圃’的本字”,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392.

한편, 《詩經》에서는 ‘扶’가 ‘돕다’는 뜻이 아닌 ‘나무의 이름’으로 쓰였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鄭風·山有扶蘇》“山有扶蘇(산에는 부소나무)”

이상에서 ‘甫’와 ‘扶’는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돕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甫 : 布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들의 성부를 표제자로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魚部·幫母》에 ‘布’, ‘敷’, ‘鋪’, ‘舖’, ‘溲’, ‘普’가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甫】

‘甫’의 의미항목에는 ‘벌이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甫聲의 ‘鋪’, ‘舖’, ‘專’, ‘勇’, ‘醜’, ‘圃’, ‘浦’ 등의 글자들이 모두 ‘벌이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甫’에 ‘벌이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布】

‘布’는 《廣韻》에 “布, 陳也(늘어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늘어놓는 것’은 ‘벌이는 것’이므로, ‘布’는 ‘벌이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甫	幫母魚部	方矩切	幫母 雙聲, 魚部 疊韻
布	幫母魚部	博故切	

‘甫’와 ‘布’는 雙聲,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甫’와 ‘布’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甫】

‘甫’의 本義는 ‘채소의 묘목’이다. 그러나 《同源字典》에 제시된 ‘敷’, ‘鋪’, ‘舖’, ‘溥’가 ‘펼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甫’가 ‘펼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甫聲’이 《詩經》에서 ‘벌이다’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 《小雅·雨無正》“淪胥以鋪(서로 빠지기를 두루 하랴)”
- 《小雅·北山》“溥天之下(넓은 하늘 아래)”
- 《大雅·江漢》“淮夷來鋪(회수의 오랑캐를 와서 정벌하러 함이니라)”
- 《大雅·常武》“鋪敦淮濱(회수 가에 진을 쳐 두텁게 하여)”
- 《大雅·常武》“率彼淮浦(저 회수 물가를 따라서)”
- 《大雅·公劉》“既溥既長(토지가 이미 넓어지고 길어졌거늘)”
- 《大雅·韓奕》“溥彼韓城(커다란 저 한나라의 성은)”
- 《商頌·烈祖》“我受命溥將(내 명을 받음이 넓고 크거늘)”
- 《周頌·賚》“敷時繹思(이 궁리하여 펴서)”
- 《齊風·東方未明》“折柳樊圃(버들가지 꺾어 채마밭에 울타리 치면)”
- 《豳風·七月》“九月築場圃(구월에는 타작마당을 채전에 다지고)”

《詩經》에서는 대체로 ‘벌이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몇 가지 예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기도 하다. ‘벌이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雅·召旻》“溥斯害矣(이 해침이 크지라)”
2. 《小雅·甫田》“倬彼甫田(훤히 트인 저 큰 밭에)”
3. 《大雅·公劉》“瞻彼溥原(저 넓은 언덕을 보시고)”
4. 《大雅·韓奕》“魴鱖甫甫(방어와 연어가 무리를 이루어)”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3은 ‘크다’, 4는 ‘무리’의 뜻으로,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布】

‘布’는 《說文·巾部》에서 “枲織也. 從巾, 父聲(麻로 짠 물건이다. 巾을 다르고 父聲이다)”라고 하였다. 本義는 ‘베’이다. 그런데 베는 펼쳐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인신되어 ‘벌이는 것’을 가리키므로,⁸⁴⁾ ‘布’에는 ‘벌이다’는 引伸義가 있다. ‘布’는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에서 보인다. ‘布聲’의 ‘佈’, ‘拈’, ‘飾’ 등의 글자들은 모두 ‘벌이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詩經》에는 ‘布’가 ‘벌이다’는 뜻으로 쓰인 例는 없고, 《左傳》에 그 예가 보인다. 다음은 《左傳》 ‘布’가 ‘벌이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左傳·定公四年》 “句卑布裳(오구비는 치마를 펼치고)”

한편, 《詩經》에는 ‘布’가 ‘벌이다’는 뜻이 아닌 本義인 ‘베’의 뜻으로 쓰였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衛風·氓》 “抱布貿絲(베를 안고 실을 산다더니)”

이상에서 ‘甫’와 ‘布’는 雙聲,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벌이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 包 : 茂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幽部·幫母》에 ‘苞’, ‘茂’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84) “布可展開, 引申指展開”,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45.

【包】

‘包’는 《康熙字典》에 “又通作苞. 叢生也(또한 ‘苞’와 통하여 무성하게 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包’는 ‘무성한 것’이다.

【茂】

‘茂’는 《說文·艸部》에 “艸豐盛. 從艸戊聲(풀이 풍성한 것이다. 艸를 따르고 戊聲이다)”라고 하였다. ‘풀이 무성한 것’에서 인신되어 ‘모든 사물이 무성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茂’는 ‘무성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 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包	幫母幽部	方矩切	幫明 旁紐, 幽部 疊韻
茂	明母幽部	莫候切	

‘包’와 ‘茂’는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包’와 ‘茂’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包】

‘包’는 ‘胞’의 초문으로, 갑골문에서는 태아를 감싸는 형상이다⁸⁵⁾. 《說文·勹部》에 “象人裹妊, 巳在中, 象子未成形也(사람이 태아를 임신하고 것을 본뜬 것이다. 巳 자가 勹 자 중간에 있는 것은 태아가 아직 형태를 이루지 못한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本義가 ‘태아를 둘러싼 胎衣’이므로 《說文》의 풀이는 引伸義이다. 王力이 제시한 ‘苞’의 本義는 ‘방석과 짚신을 만들 수 있는 풀’⁸⁶⁾로, 인신되어 ‘무성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爾雅·釋詁》에도 또한 “苞, 茂, 豊也(苞와 茂는 풍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包聲’이 《詩經》에서 ‘무성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85)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86.

8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565.

《唐風·鶉羽》“集于苞栩(우북한 상수리나무에 모이도다)”
 《唐風·鶉羽》“集于苞棘(우북한 가시나무에 그쳐 있도다)”
 《唐風·鶉羽》“集于苞桑(우북한 뽕나무에 그쳐있도다)”
 《秦風·晨風》“山有苞櫟(산에는 우북한 상수리나무 있고)”
 《秦風·晨風》“山有苞棣(산에는 우북한 아가위나무 있고)”
 《曹風·下泉》“浸彼苞稂(저 우북한 피가 침범하도다)”
 《曹風·下泉》“浸彼苞蕭(저 우북한 쭉이 침범하도다)”
 《曹風·下泉》“浸彼苞蓍(저 우북한 시초가 침범하도다)”
 《小雅·四牡》“集于苞栩(우북한 상수리나무에 모여든다)”
 《小雅·四牡》“集于苞杞(우북한 산머들 나무에 모여든다)”
 《小雅·斯干》“如竹苞矣(대나무가 우거진 것 같고)”
 《大雅·生民》“實方實苞(실로 자리 잡고 실로 무성하며)”
 《大雅·行葦》“方苞方體(바야흐로 무성하여 바야흐로 형체가 생겨서)”

《詩經》에서 ‘苞聲’은 대체로 ‘무성하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몇 가지 예는 ‘무성하다’ 이외의 뜻으로 쓰였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大雅·常武》“如山之苞(산의 밑둥과 같으며)”
2. 《商頌·長發》“苞有三蘂(한 뿌리에 세 싹이 돌아)”
3. 《召南·野有死麇》“白茅苞之(흰 띠풀로 감싼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2는 ‘뿌리’, 3은 ‘감싸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茂】

‘茂’의 本義는 ‘초목이 번성하고 싱싱하게 자라는 것’으로, 인신되어 ‘무성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茂’가 《詩經》에서 ‘무성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天保》“如松柏之茂(소나무와 잣나무의 무성함과 같아)”

《小雅·南山有臺》“德音是茂(덕음이 이에 무성하리도다)”

《小雅·斯干》“如松茂矣(소나무가 무성한 것과 같도다)”

《小雅·節南山》“方茂爾惡(바야흐로 네 악함이 성할 때에는)”

《小雅·小弁》“鞠爲茂草(막혀서 풀만 무성하도다)”

《大雅·生民》“種之黃茂(씨앗을 가득히 뿌리시어)”

《大雅·召旻》“草不潰茂(풀이 어지러이 무성하지 못하고)”

《周頌·良耜》“黍稷茂止(기장과 피가 무성하도다)”

《詩經》에서 ‘茂’는 대체로 ‘무성하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다음의 예는 ‘무성하다’ 이외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齊風·還》“子之茂兮(그대의 아름다움이여)”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는 ‘아름답다’는 뜻으로, ‘茂’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包’와 ‘茂’는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무성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包 : 暴

殷寄明은 ‘包聲’의 ‘맹렬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暴’으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屋部·並母》에는 ‘暴’, ‘瀑’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包】

‘包’의 의미항목에는 ‘맹렬하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包聲’의 ‘雹’, ‘颯’, ‘炮’, ‘咆’ 등의 글자가 모두 ‘맹렬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包’에 ‘맹렬하다’

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暴】

‘暴’은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 “假借爲‘搏’，搏鬪(‘搏’으로 가차되어 ‘격렬하게 싸우다’의 뜻이다)⁸⁷⁾”라고 하였고, ‘風暴’, ‘暴力’, ‘暴君’, ‘暴死(급사하다)’, ‘暴雨’ 등의 ‘暴’ 또한 ‘맹렬한 것’을 나타내므로 ‘暴’은 ‘맹렬한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包	幫母幽部	布交切	幫並 旁紐, 幽宵 旁轉
暴	並母宵部	薄報切	

‘包’와 ‘暴’은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包’와 ‘暴’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包】

‘包’는 ‘胞’의 초문으로, 갑골문에서는 태아를 감싸는 형상⁸⁸⁾이다. 그러나 《詩經》에서 ‘包聲’의 글자로 ‘炮’가 보이는데, ‘炮’는 ‘채소를 솥에 넣고 쉰 불에서 신속하게 비비는 것’으로 ‘맹렬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包聲’의 ‘雹’, ‘颶’, ‘炮’, ‘咆’ 등의 글자를 살펴보면, ‘雹’은 ‘우박’, ‘颶’은 ‘폭풍’, ‘咆’는 ‘짐승이 포효하는 것’으로 모두 ‘맹렬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包聲’이 《詩經》에서 ‘맹렬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瓠葉》“炮之燔之(그슬리고 굽느니라)”

【暴】

‘暴’은 두 가지의 來源이 있다. 그것은 ‘햇볕을 쬐다’는 것과 ‘빨리 가는 것’으로,

87)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7.

88)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86.

고대에는 ‘暴’과 ‘暴’의 구별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暴’으로 쓰고 있다. ‘暴’과 ‘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暴’은 《說文·日部》에 “晞也. 從日, 從出, 從収, 從米 (햇볕을 쬐는 것이다. 日을 따르고, 出을 따르고, 収를 따르고, 米를 따르다)”라고 하였고, ‘暴’은 《說文·辵部》에 “疾有所趣也. 從日出辵升之(빨리 가는 것이다. 日, 出, 辵, 升을 따르는 회의이다)”라고 하였다. 즉, ‘暴’은 ‘해가 나오자 양손으로 쌀을 말리는 것’이고, ‘暴’은 ‘대낮에 맨손으로 후려치는 것’이다. ‘후려치다’는 뜻에서 인신되어 ‘갑작스럽다’, ‘난폭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漢語同源字詞叢考》에서 “暴의 本義는 쬐는 것이다. 또한 ‘사납다’, ‘난폭하다’는 引伸義는 없고 ‘暴聲’의 ‘사납다’는 뜻은 ‘暴聲’에 실려 있는 어원의이다.⁸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暴’의 本義는 ‘햇볕에 말리다’, ‘빨리 가다’는 것이고, ‘갑작스럽다’는 뜻은 인신된 결과이다. ‘暴聲’의 ‘暴’, ‘瀑’, ‘爆’, ‘暴’, ‘醜’ 등의 글자는 ‘맹렬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暴聲’이 《詩經》에서 ‘맹렬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終風》“終風且暴(종일 바람이 불고 또 소나기 퍼붓는다)”

《小雅·巧言》“亂是用暴(어지러움이 난폭함을 이용하며)”

또한, 《詩經》에는 ‘暴聲’이 ‘드러내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鄭風·大叔于田》“檀楊暴虎(옷을 벗고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아)”

《小雅·小旻》“不敢暴虎(감히 범을 맨손으로 잡지 못하는 것과)”

이상에서 ‘包’와 ‘暴’은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맹렬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6) 比 : 密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

89)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東方出版中心, 2007, p. 560.

다. 《同源字典·脂部·幫母》에 ‘比’, ‘密’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比】

‘比’는 《說文·比部》에 “密也. 二人爲從, 反從爲比(친밀이다. 두 개의 ‘人’자가 서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從’이고 ‘從’자를 거꾸로 하여 ‘比’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친밀한 것’은 ‘붙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밀한 것’이다. ‘조밀하다’는 뜻은 ‘比’의 引伸義이다.

【密】

‘密’은 《漢字源流字典》에 “引申指稠, 濃(인신되어 ‘빽빽한 것’, ‘진한 것’을 가리킨다)⁹⁰⁾”라고 하여, ‘密’ 또한 ‘조밀하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比	幫母脂部	房脂切	幫明 旁紐, 脂質 對轉
密	明母質部	美畢切	

‘比’, ‘密’은 旁紐, 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比’, ‘密’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比】

‘比’의 本義는 ‘친밀한 것’이고, ‘조밀하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比聲’의 ‘篋’, ‘枇’, ‘筥’ 등의 글자는 ‘조밀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比聲’이 《詩經》에서 ‘조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頌·良耜》“其比如櫛(그 즐비함이 빗과 같으니)”

90)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730.

또한, 《詩經》에서 ‘比聲’이 ‘조밀하다’ 이외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唐風·杕杜》“胡不比焉(어찌 돕지 않는고)”
2. 《小雅·六月》“比物四驪(힘이 고른 네 마리 말이여)”
3. 《小雅·正月》“洽比其鄰(그 이웃과 화합하고 친하며)”
4. 《大雅·皇矣》“克順克比(능히 순하고 능히 친하시니)”
5. 《大雅·皇矣》“比于文王(문왕에 이르러)”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돕다’, 2는 ‘비슷하다’, 3~4는 ‘친밀하다’, 5는 ‘이르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密】

‘密’의 本義는 ‘집처럼 생긴 산’으로, 《說文·宀部》에 “山如堂者. 從山, 宀聲(집 모양의 산이다. 山을 따르고 宀聲이다)”라고 하였다. 인신되어 ‘조밀한 것’이 되었다.

다음은 ‘密’이 《詩經》에서 ‘조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公劉》“止旅迺密(머무르는 무리가 뿔뿔해져)”

《周頌·昊天有成命》“夙夜基命宥密(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을 다지기를 넓게 하고 빈틈없이 하사)”

이상에서 ‘比’, ‘密’은 旁紐, 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조밀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7) 并 : 比

殷寄明은 ‘并聲’의 ‘나란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比’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耕部·幫母》‘并’, ‘併’, ‘並(竝)’, ‘駢’, ‘駢’, ‘妍’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并】

‘并’은 《漢字源流字典》에 “本義爲合在一起(本義는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함께하는 것’은 ‘나란한 것’이므로, ‘나란하다’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并’은 ‘나란한 것’이다.

【比】

‘比’의 本義는 ‘친밀한 것’으로, 《廣韻》의 “竝也(나란한 것이다)” 라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比’는 인신되어 ‘나란한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并	幫母耕部	府盈切	幫母 雙聲, 耕脂 通轉
比	幫母脂部	房脂切	

‘并’과 ‘比’는 雙聲, 通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并’과 ‘比’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并】

‘并’의 갑골문은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므로, 《說文·從部》의 “相從也(서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풀이는 형태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并聲’의 ‘併’, ‘緝’, ‘鉞’, ‘餅’, ‘甗’, ‘妍’, ‘拑’, ‘駢’, ‘駢’, ‘駢’ 등의 글자는 모두 ‘나란하다’는 뜻과 관련된다.

다음은 ‘并聲’이 《詩經》에서 ‘나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齊風·還》 “並驅從兩肩兮(나란히 말을 몰아 두 마리 짐승을 쫓더니)”

“並驅從兩牡兮(나란히 말을 몰아 두 마리 숫짐승을 쫓으니)”

“並驅從兩狼兮(나란히 말을 몰아 두 마리 늑대를 쫓으니)”

《秦風·車鄰》“並坐鼓瑟(나란히 앉아 비파를 뜯노라)”
“並坐鼓簧(나란히 앉아 생황을 연주한다)”
《小雅·賓之初筵》“並受其福(아울러 그 복을 받거늘)”

【比】

갑골문에서 ‘比’는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나타냈으므로, ‘나란하다’는 뜻이 있다.

다음은 ‘比’가 《詩經》에서 ‘나란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六月》“比物四驪(힘이 고른 네 마리 말이여)”
《周頌·良耜》“其比如櫛(그 즐비함이 빗과 같으니)”

대체로 ‘比’가 《詩經》에서 ‘나란하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몇 가지 예는 다른 뜻으로 쓰였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唐風·杕杜》“胡不比焉(어찌 돕지 않는고)”
2. 《大雅·皇矣》“比于文王(문왕에 이르러)”
3. 《小雅·正月》“洽比其鄰(그 이웃과 화합하고 친하며)”
4. 《大雅·皇矣》“克順克比(능히 순하고 능히 친하시니)”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1은 ‘돕다’, 2는 ‘이르다’, 3~4는 ‘친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比’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并’, ‘比’는 雙聲, 通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나란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8) 并 : 庇

殷寄明은 ‘并聲’의 ‘가리다’는 뜻의 同源字를 ‘庇’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耕部·

幫母》은 ‘屏’, ‘𨋖’, ‘𨋗’, ‘𨋘’, ‘𨋙’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并】

‘并’의 의미항목에는 ‘가리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并聲’의 ‘屏’, ‘𨋖’, ‘𨋗’, ‘𨋘’, ‘𨋙’ 등의 글자들이 모두 ‘가리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并’에 ‘가리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庇】

‘庇’는 《說文·广部》에 “庇, 蔭也(덮어 가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庇’는 ‘가리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并	幫母耕部	府盈切	幫母 雙聲, 耕脂 通轉
庇	幫母脂部	必至切	

‘并’과 ‘庇’는 雙聲, 通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并’과 ‘庇’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并】

‘并’의 本義는 ‘나란한 것’이다. 《同源字典》에 제시된 ‘屏’, ‘𨋖’, ‘𨋗’, ‘屏’, ‘𨋘’, ‘𨋙’을 살펴보면, ‘屏’은 ‘울타리’, ‘𨋖’은 ‘장막이 있는 수레’, ‘𨋗’은 ‘덮개’, ‘𨋘’은 ‘장막’으로 모두 ‘가리다’는 공통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并聲’이 《詩經》에서 ‘가리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桑扈》 “萬邦之屏(만방의 울타리로다)”

“之屏之翰(울타리가 되고 기둥이 되니)”

《大雅·板》“大邦維屏(큰 제후 나라가 병풍이 되며)”

【比】

‘庇’는 ‘가리는 것’, ‘덮는 것’이다.

‘庇’가 《詩經》에서 쓰인 例는 보이지 않고, 《禮記》에서 例가 보인다.

아래는 《禮記》에서 ‘庇’가 ‘가리다’로 쓰인 예이다.

《禮記·表記》“雖有庇民之大德(비록 백성을 덮을 큰 덕이 있더라도)”

이상에서 ‘并’과 ‘庇’는 雙聲, 通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덮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9) 分 : 判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文部·幫母》에 ‘分’, ‘半’, ‘判’은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分】

‘分’은 《說文·八部》에서 “別也. 從八, 從刀, 刀以分別物也(나누는 것이다. 八을 따르고 刀를 따른다. 刀는 나눌 때 쓰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分’은 ‘나누는 것’이다.

【判】

‘判’은 《說文·刀部》에 “分也. 從刀, 半聲(나누어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判’ 역시 ‘나누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分	幫母文部	府文切	幫滂 旁紐, 文元 旁轉
判	滂母元部	普半切	

‘分’과 ‘判’은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分’과 ‘判’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分】

‘分’은 칼로 물체를 나누는 것으로 本義는 ‘나누는 것’이다. ‘分聲’의 ‘攴’, ‘頒’, ‘盼’, ‘貧’, ‘玢’, ‘芬’, ‘吩’, ‘紛’, ‘粉’ 등의 글자는 모두 ‘나누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分聲’이 《詩經》에서 ‘나누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衛風·碩人》“美目盼兮(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분명하도다)”

《邶風·北門》“終窶且貧(마침내 구차하고 또 가난하거늘)”

《衛風·氓》“三歲食貧(삼년을 가난을 먹었노라)”

《小雅·楚茨》“苾芬孝祀(향기롭고 꽃다운 효성스런 제사에)”

《小雅·信南山》“苾苾芬芬(향기롭고 향기로워서)”

《大雅·梟鸞》“燔炙芬芬(불고기와 적이 향기롭거늘)”

위 예문의 ‘芬’은 ‘향기가 분산된 것’을 가리키므로 ‘나누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判】

‘判’은 ‘나누는 것’이다.

다음은 ‘判’이 《詩經》에서 ‘나누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周頌·訪落》“繼猶判渙(이음이 오히려 나누어지고 흩어지도다)”

이상에서 ‘分’, ‘判’은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나누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0) 分 : 紊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文部·滂母》에 ‘紛’, ‘棼’, ‘紊’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分】

‘分’은 ‘紛’과 통하여 ‘뒤섞여 어지러운 모양이므로,91) ‘分’은 ‘어지러운 것’이다.

【紊】

‘紊’은 《說文·糸部》에 “亂也(어지러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紊’은 ‘어지럽다’는 뜻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分	幫母文部	府文切	幫明 旁紐, 文部 疊韻
紊	明母文部	亡運切	

‘分’과 ‘紊’은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分’과 ‘紊’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分】

‘分’은 ‘칼로 물체를 나누는 것’으로 本義는 ‘나누는 것’이다. ‘뒤섞여 어지럽다’는 뜻은 ‘分’의 다른 뜻이다. ‘分聲’의 글자에는 ‘紛’, ‘氛’, ‘份’, ‘汾’, ‘份’, ‘芬’, ‘扮’, ‘翻’, ‘芬’, ‘份’ 등이 있으며, 모두 ‘어지럽다’는 의미와 관련된다.

‘分聲’이 《詩經》에서 ‘어지럽다’는 뜻으로 쓰인 例는 없고, 《楚辭》에 보인다. 다음은 《楚辭》의 예이다.

《楚辭·招魂》“班其相紛些(너와 나 차별 없이 엉클어져 노는구나)”

한편, ‘分聲’이 《詩經》에서는 ‘어지럽다’ 이외의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1) “通紛, 指紛亂的樣子”,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99.

1. 《魏風·汾沮洳》“彼汾沮洳(저 분수물이 축축히 젖은 곳에)”
2. 《魏風·汾沮洳》“彼汾一方(저 분수 한 곳에)”
3. 《魏風·汾沮洳》“彼汾一曲(저 분수의 한 굽은 곳에)”
4. 《大雅·韓奕》“汾王之甥(분왕의 생질이고)”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4 모두 이름으로 쓰였다.

【紊】

‘紊’의 本義는 ‘실이 어지러운 것’으로, 인신되어 ‘어지럽다’는 뜻을 나타낸다.
‘紊’이 《詩經》에서 쓰인 例는 없고, 《書》에 例가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書·盤庚上》“有條而不紊(조리가 있어 문란해지지 않는다)”

이상에서 ‘分’, ‘紊’은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어지럽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1) 分 : 般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元部·並母》‘般’, ‘鞮’, ‘幣’, ‘槃(盤)’, ‘吩’, ‘紛’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分】

‘分’의 의미항목에 ‘크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分聲’의 ‘舂’, ‘吩’, ‘芬’, ‘吩’, ‘粉’, ‘吩’, ‘粉’, ‘頒’, ‘鵬’, ‘吩’, ‘汾’ 등의 글자들이 ‘높고 크다’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分’ 또한 ‘크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般】

《廣雅·釋古》一 에 “般, 大也(큰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般’은 ‘큰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分	幫母文部	府文切	幫母 雙聲, 文元 旁轉
般	幫母元部	北潘切	

‘分’과 ‘般’은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分’과 ‘般’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分】

‘分’을 성부로 한 글자들은 ‘크다’는 뜻과 관계되는데, 殷寄明은 ‘分聲’의 同源字를 ‘墳’으로 推源하였다. ‘分’과 ‘墳’은 幫并 旁紐, 文部 疊韻의 관계로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同源字典》에서 언급한 ‘分聲’의 ‘份’은 물건을 닦는 큰 수건으로 ‘冨’으로도 쓴다. 《說文·巾部》에 “冨, 楚謂大巾曰冨. 從巾, 分聲(초나라에서는 큰 수건을 冨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分聲’에는 ‘크다’는 뜻이 있다.

다음은 ‘分聲’이 《詩經》에서 ‘크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魚藻》“有頒其首(그 머리가 크도다)”

【般】

‘般’은 《說文·舟部》에 “辟也. 象舟之旋, 從舟. 從攴, 攴, 所以旋也(빙빙 돈다는 것이다. 배가 선회하는 것을 본떴다. 그래서 舟를 따른다. 攴를 따르고 攴는 선회하게 만드는 샷대종류의 공구이다)”라고 하였다. ‘般’의 本義는 ‘도는 것’이다. 그러나 ‘般聲’의 ‘槃’, ‘幣’, ‘磐’, ‘盤’ 등의 글자가 모두 ‘크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般聲’에 ‘크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般’이 《詩經》에서는 篇名으로 쓰였다. ‘般聲’이 ‘크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孟子》에서 보인다. 다음은 《孟子》의 예이다.

《孟子·盡心下》“般樂飲酒(마음껏 즐기며 술 마시고)”

이상에서 ‘分’과 ‘般’은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크다’는 공통된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12) 扁 : 便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眞部·滂母》에 ‘翩’, ‘鷗’, ‘諛’, ‘嫵’, ‘便’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扁】

‘扁’의 의미항목에 ‘가볍다’는 뜻은 없다. 그런데 《廣韻》에서는 “小舟(작은 배)”라고 하였고,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서도 “偏으로 가차되어 ‘작다’는 뜻이 있다.⁹²⁾”라고 하였다. 작으면 가벼우므로 ‘가볍다’는 뜻이 나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扁聲’의 ‘嫵’, ‘翩’, ‘嫵’, ‘諛’, ‘騙’, ‘鷗’ 등의 글자들이 모두 ‘가볍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扁聲’에 ‘가볍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便】

‘便’은 引伸되어 ‘간단하고 편리한 것⁹³⁾’을 말한다. ‘간단하고 편리한 것’은 대체로 가벼우므로 ‘가볍다’는 뜻이 나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扁	幫母眞部	芳連切	幫並 旁紐, 眞元 旁轉
便	並母元部	房連切	

‘扁’과 ‘便’은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扁’과 ‘便’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2) “‘扁’假借爲‘偏’, 小”,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18.

93)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879.

【扁】

‘扁’의 本義는 ‘문 위에 있는 글’이다. 《說文·冊部》에 “署也. 從戶, 冊. 戶冊者, 署門戶之文也(표제를 쓰는 것이다. 戶, 冊을 따르는 회의이다. 戶冊은 문에 쓰는 문자이다)”라 하였다. ‘扁’은 또한 ‘물건이 편평하고 얇다’, ‘작다’는 뜻이 있다. 얇고 작으므로 ‘가볍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다음은 ‘扁聲’이 《詩經》에서 ‘가볍다’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四牡》“翩翩者騅(펼펼 나는 비둘기여)”

《小雅·巷伯》“緝緝翩翩(죄를 꾸며내며 이리저리 오가면서)”

《大雅·桑柔》“旃旃有翩(깃발이 펄럭이도다)”

《魯頌·泮水》“翩翩飛鵝(펼펼 나는 저 올빼미)”

《小雅·角弓》“鷗其反矣(홀쩍 날아서 떠나갔도다)”

《詩經》에서는 대체로 ‘가볍다’는 뜻과 관련되지만, ‘扁聲’의 다른 뜻인 ‘납작하다’는 뜻으로도 쓰였다. ‘扁聲’의 ‘扁’, ‘𦉳’, ‘𦉴’, ‘𦉵’, ‘𦉶’ 등의 글자들은 ‘납작하다’는 뜻과 관련된다.

다음은 ‘扁聲’이 《詩經》에서 ‘납작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白華》“有扁斯石(낮은 돌은)”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便】

‘便’은 《說文·人部》에 “安也. 人有不便, 更之. 從人, 更(안정되고 쾌적한 것이다. 사람이 안정되고 쾌적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人과 更을 따른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便’의 本義는 ‘편안한 것’인데 인신되어 ‘편리한 것’이 되고 편리한 것은 휴대하기가 쉽고 가벼워 ‘便’이 ‘가벼운 것’을 나타낼 수 있다.

‘便’이 《詩經》에서 쓰인 예는 없고, 《莊子》에 ‘便’이 쓰인 예가 있다. 다음은

《莊子》의 예이다.

《莊子·天地》“猿狙之便自山林來(날렵한 원숭이도 산림에서 잡혀 끌려온다)”

이상에서 ‘扁’과 ‘便’은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가볍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幫母’의 ‘卑’, ‘甫’, ‘包’, ‘比’, ‘并’, ‘分’, ‘扁’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卑	鄙	雙聲, 旁轉	낮다.	1. 낮다. 2. 낮게 여기다. 3. 낮추다. 4. 하여금	埤, 痺, 岬, 庠, 婢, 俾, 稗, 穢
甫	扶	旁紐, 疊韻	돕다.	1. 겨우 2. 비로소 3. 남자의 미칭	輔, 甫, 補, 圃, 哺, 鋪, 鮪, 賄, 誦
	布	雙聲, 疊韻	퍼다.	4. 자 5. 크다. 6. 많다.	鋪, 鋪, 專, 專, 圃, 圃, 浦
包	茂	旁紐, 疊韻	무성하다.	1. 싸다. 2. 용납하다.	苞
	暴	旁紐, 旁轉	맹렬하다.	3. 꾸러미 4. 애배다. 5. 더부룩이나다. 6. 푸주	雹, 颶, 炮, 咆
比	密	旁紐, 對轉	조밀하다.	1. 견주다. 2. 무리 3. 엮다. 4. 다스리다. 5. 전례 6. 따르다. 7. 돕다.	篋, 枇, 笮

				8. 아침하다. 9. 친하다. 10. 미치다. 11. 이마적 12. 자주 13. 나란하다. 14. 비괘	
并	比	雙聲, 通轉	나란하다.	1. 어우르다. 2. 어울리다. 3. 병주 4. 물리치다.	併, 緝, 餅, 餅, 麩, 餅, 拼, 駢, 跹, 駢, 駢, 駢
	庇	雙聲, 通轉	덜다.		廨, 屏, 駢, 駢, 駢
分	判	旁紐, 旁轉	나누다.	1. 나누다. 2. 나뉘다. 3. 분명하다. 4. 분별하다. 5. 나누어주다.	放, 頒, 盼, 貧, 玢, 芬, 吩, 紛, 粉
	紊	旁紐, 疊韻	어지럽다.	6. 반쪽 7. 푼 8. 분 9. 춘분, 추분 10. 분수 11. 직분 12. 몫	紛, 氛, 份, 汾, 紛, 焚, 扮, 翻, 芬, 份
	般	雙聲, 旁轉	크다.		分, 吩, 芬, 吩, 粉, 吩, 粉, 頒, 飴, 玢, 汾
扁	便	旁紐, 旁轉	가볍다.	1. 납작하다. 2. 낮다. 3. 현관 4. 거룻배	扁, 翩, 蝙, 諷, 騙, 鵬

위 표를 보면 ‘卑’의 ‘낮다’, ‘分’의 ‘나누다’, ‘并’의 ‘나란하다’는 뜻은 본의, 인신의 의미로 의미가 추정가능하다. 그러나 ‘甫’는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없는 ‘돕다’, ‘편다’는 뜻을 나타내고, ‘包’는 ‘무성하다’, ‘맹렬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比’는 ‘조밀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并’은 ‘덜다’, ‘分’은 ‘어지럽다’, ‘크다’는 뜻을, ‘扁’은 ‘가볍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甫’, ‘包’, ‘比’, ‘并’이 이러한 뜻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滂母

본고에서 언급할 滂母의 글자들은 ‘흙’와 ‘孚’이다.

(1) 흙 : 辟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之部·滂母》에 ‘剖’, ‘搯’, ‘副’, ‘擱’, ‘劈’이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音】

‘흙’는 《集韻》에 “音剖. 義同(음과 뜻은 剖와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剖’를 살펴보면, 《說文·刀部》에 “判也(쪼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쪼개면 나누어지므로 ‘흙’는 ‘나누다’는 뜻이 된다.

【辟】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에 “辟은 關으로 ‘문을 열다’, ‘개척하다’의 뜻으로 가차되었다⁹⁴.”라고 하였다. 문을 여는 것은 문짝이 갈라지는 것이므로 ‘나누다’의 뜻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에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흙	滂母侯部	他候切	滂幫 旁紐, 侯錫 旁對轉
辟	幫母錫部	必益切	

‘흙’와 ‘辟’은 旁紐, 旁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흙’와 ‘辟’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音】

‘흙’는 《說文·丩部》에 “相與語, 唾而不受也. 從丩, 從否, 否亦聲 (서로 같이 말

94) “辟又假借爲‘關’, 開門, 開拓”,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p. 15.

하는 것으로, 미워하고 싫어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ㄴ, ㅈ을 따르며, ㅈ은 또한 소리이다)라고 하였고, 《玉篇》에는 “同杏”라고 하였고 《廣韻》에는 “說文本作杏, 隸變作音”라고 하였으므로, ‘音’은 ‘침’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音聲’의 글자인 ‘剖’, ‘拊’, ‘結’ 등은 ‘나누다’는 의미와 관련된다. 王力은 ‘音聲’의 同源字를 ‘副’, ‘劈’으로 推源하였고, 殷寄明은 ‘辟’, ‘破’로 推源하였다.

다음은 ‘音聲’이 《詩經》에서 ‘나누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蕩》 “曾是掎克(일찍이 가림주구 하는 신하가 있었으니)”

【辟】

‘辟’은 《說文·辟部》에 “法也. 從口從辛(법이다. ㅁ을 따르고 ㅅ을 따른다)”라고 하여 ‘나누다’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辟의 본의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고대의 陵遲處斬으로,⁹⁵⁾ 이것을 사지를 찢는 형벌이므로 ‘나누다’라는 뜻으로 派生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辟聲’의 ‘劈’, ‘襞’, ‘薜’, ‘磳’, ‘擗’, ‘關’, ‘擘’ 등의 글자들이 ‘나누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辟聲’이 《詩經》에서 ‘나누다’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皇矣》 “啓之辟之(개간하고 베어 없애니)”

또한 《詩經》에는 ‘辟聲’이 ‘나누다’ 이외의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魏風·葛屨》 “宛然左辟(완연히 왼쪽으로 사양하여 피하나니)”
2. 《大雅·板》 “民之多辟, 無自立辟(백성들에게 간사한 사람 많아 스스로 간사스러워지지 말라)”
3. 《大雅·蕩》 “其命多辟(그 명령에 치우침이 많도다)”
4. 《小雅·雨無正》 “辟言不信(법도에 맞는 말은 믿지 않는가)”
5. 《大雅·棫樸》 “濟濟辟王(아름다운 군왕이여)”

95) “對人施加刑罰之意, 大概是古代的凌遲酷刑辟”,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1670.

6. 《大雅·文王有聲》“皇王維辟(황왕으로 임금을 삼으니)”
7. 《大雅·蕩》“下民之辟(백성들 다스리는 임금님)”
8. 《大雅·抑》“辟爾爲德(임금인 너는 덕 행하기를)”
9. 《大雅·奕》“以佐戎辟(그대의 임금을 보좌하여라)”
10. 《周頌·載見》“載見辟王(곧 임금을 뵈고)”
11. 《商頌·殷武》“歲事來辟(해마다 일로 와서 알현하여)”
12. 《小雅·桑扈》“百辟爲憲(모든 제후들의 본보기 되리라)”
13. 《大雅·假樂》“百辟卿士(여러 제후와 경사들)”
14. 《大雅·烝民》“式是百辟(모든 제후의 법도가 되게 하며)”
15. 《周頌·烈文》“烈文辟公(군세고 빛나는 제후들이)”
“百辟其刑之(모든 제후들이 본받아)”
16. 《周頌·雝》“相維辟公(제후들이 제사를 돕거늘)”
17. 《周頌·載見》“烈文辟公(군세고 빛나는 제후들)”
18. 《商頌·殷武》“天命多辟(하늘이 여러 제후들에게 명하사)”
19. 《大雅·旻》“日辟國百里(날마다 백리씩 나라를 넓히셨는데)”
20. 《邶風·栢舟》“寤辟有標(잠 깨어 가슴을 탕탕 치노라)”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3은 ‘치우치다’, 4는 ‘법’, 5~11은 ‘군주’, 12~18은 ‘제후’, 19는 ‘개척하다’, 20은 ‘치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흠’와 ‘辟’은 旁紐, 旁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나누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흠 : 卑

殷寄明은 ‘흠聲’의 ‘더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卑’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之部·並母》은 ‘倍’, ‘培’, ‘陪’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音】

‘흙’에는 ‘더하다’의 뜻이 없다. ‘더하다’는 뜻은 ‘흙’에 실려 있는 어원의이다. ‘흙聲’의 ‘培’, ‘倍’, ‘陪’, ‘賠’, ‘檜’ 등의 글자들이 ‘이익이 있다’, ‘도움이 되다’, ‘더하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흙’에 ‘더하다’는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卑】

‘卑’에는 ‘더하다’의 뜻은 없다. 그러나 ‘卑聲’의 ‘裨’, ‘俾’, ‘埤’, ‘陴’, ‘餽’ 등의 글자들이 ‘더하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卑’에 ‘더하다’는 뜻이 들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흙	滂母侯部	他候切	滂幫 旁紐, 侯支 旁轉
卑	幫母支部	府移切	

‘흙’와 ‘卑’는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흙’와 ‘卑’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흙】

《廣韻》에는 “說文本作杏, 隸變作흙”라고 하였으므로, ‘흙’는 ‘침’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은 ‘흙聲’이 《詩經》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瞻卬》‘如賈三倍(세 곱 이익을 남기는 장사 속)’

《大雅·蕩》‘以無陪無卿(모시는 신하도 없고 경도 없도다)’

위 예문의 ‘陪’는 ‘陪臣(신하의 신하)’, ‘陪客(귀인을 모시고 한자리에 참여하는 손님)’, ‘陪都(국도이외의 서울)’, ‘陪房(시집갈 때 따라가는 몸종)’, ‘陪從(웃어른을 따라감)’ 등으로 ‘추가된 사람’ 즉 ‘더하다’의 뜻이다.

【卑】

‘卑’는 ‘비천한 것’이다. ‘더하다’는 뜻은 ‘卑’에 실려 있는 다른 뜻이다. 殷寄明은 ‘卑聲’이 ‘더하다’는 뜻을 갖는 同源字를 ‘補’로 推源하였다.

다음은 ‘卑聲’이 《詩經》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北門》“政事一埶益我(정사가 모두 쌓여서 나에게 더해지도다)”

《詩經》에는 ‘卑聲’이 ‘더하다’는 뜻보다는 ‘하게하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邶風·綠衣》“俾無訖兮(허물이 없게 할지로다)”

《邶風·日月》“俾也可忘(나로 하여금 가히 잊으라 하는가)”

《小雅·天保》“俾爾單厚(그대들 후덕하게 하시니)”

“俾爾多益(그대에게 유익함을 많이 해줌이라)”

“俾爾戩穀(그대들 모두 선하게 하시도다)”

《小雅·節南山》“俾民不迷(백성으로 하여금 아득하지 않거늘)”

“俾民心闕(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며)”

“俾民不寧(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못하게 하도다)”

《小雅·正月》“胡俾我癡(어찌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고)”

《小雅·十月之交》“俾守我王(우리 왕을 지키게 하고)”

《小雅·雨無正》“俾躬處休(몸이 아름다운 곳에 처해 있도다)”

《小雅·何人斯》“俾我祇也(나로 하여금 편안해지리라)”

《小雅·賓之初筵》“無俾太怠(너무 게을리 말라고 못하는가)”

“俾出童羖(뿔 없는 염소를 내놓으라 하리라)”

《小雅·菀柳》“俾予靖之(내가 편안하게 하려 하나)”

《小雅·白華》“俾我獨兮(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는가)”

“俾我疢兮(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도다)”

《小雅·漸漸之石》“俾滂沱矣(비가 쏟아지리로다)”

《小雅·緜》“俾立室家(이에 사도를 불러 궁실을 세우게 하니)”

《大雅·公劉》“俾筵俾几(자리를 펴게 하고 쉼을 설치하게 하니)”

《大雅·卷阿》“俾爾彌爾性(너로 하여금 네 성품을 다하여)”

《大雅·民勞》“無俾民憂(백성으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할지니)”



- “無俾作慝(사특함을 짓지 못하게 하고)”
- “俾民憂泄(백성으로 하여금 근심을 덜게 할지어다)”
- “無俾正敗(정도를 그르치지 말게 하였으면)”
- “無俾正反(정도에 어긋나지 말게 했으면)”
- 《大雅·板》“無俾城壞(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 《大雅·蕩》“俾晝作夜(낮으로 밤을 삼았구나)”
- 《大雅·抑》“俾臧俾嘉(행하기를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 “俾民大棘(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다급하게 하도다)”
- 《大雅·桑柔》“自獨俾臧(스스로 홀로 잘한다하며)”
- “俾民卒狂(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제정신이 아니게 하도다)”
- “覆俾我悖(도리어 나로 하여금 거스르게 하도다)”
- 《大雅·雲漢》“寧俾我遯(어찌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리오)”
- 《周頌·載見》“俾緝熙于純嘏(큰 복락 이어지게 한다)”
- 《魯頌·閟宮》“俾民稼穡(백성들로 하여금 심고 거두게 하시니)”
- “俾侯于魯(노나라에서 제후가 되게 하노니)”
- “俾侯于東(동쪽으로 가서 제후가 되게 하시고)”
- “俾爾熾而昌, 俾爾壽而臧(너로 하여금 타오르듯 번창케 하며 너로 하여금 오래살고 착하게 하여)”
- “俾爾昌而熾, 俾爾壽而富(너로 하여금 번창하여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며, 너로 하여금 장수하고 부유하게 하여)”
- “俾爾昌而大, 俾爾耆而艾(너로 하여금 번창하고 크게 하며, 너로 하여금 늙어 허영케 되게 하여)”

이상에서 ‘흠’과 ‘뵈’는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더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孚 : 包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之部·並母》에 ‘罘’, ‘罊’, ‘罨’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孚】

‘孚’는 《說文·瓜部》에 “卵孚也(알을 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알을 품어야 하므로 ‘孚’가 ‘감싸다’는 뜻과 관련이 있고, ‘孚聲’의 ‘𩇛’, ‘𩇛’, ‘𩇛’ 등의 글자들 또한 모두 ‘감싸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包】

‘包’는 《廣韻》에 “包裹也(싸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包’는 ‘감싸는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孚	滂母幽部	芳無切	滂幫 旁紐, 幽部 疊韻
包	幫母幽部	布交切	

‘孚’와 ‘包’는 旁紐, 疊韻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孚’와 ‘包’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孚】

于省吾는 《甲骨文字釋林·釋孚》에서 “새가 알을 부화하는 것이 ‘孚’인데 가차되자 후세에 ‘𩇛’를 만들었다.96)”라고 하였고, 《漢語源流字典》에는 “회의자로 갑골문에는 瓜를 따르고 子를 따르며,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다’는 뜻이다.97)”라고 하여 ‘孚’에 ‘감싸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殷寄明은 ‘孚聲’이 ‘덮다’의 뜻을 갖게 된 同源字를 ‘覆’으로 推源하였다. ‘孚’와 ‘覆’은 滂母 雙聲, 幽覺 對轉이므로 동원관계이다. ‘覆’은 ‘덮는 것’이다. 《說文·西部》에 “𦉳也. 一曰蓋也(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孚’와 ‘覆’은 어음과 의미방면에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孚聲’이 《詩經》에서 ‘감싸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96)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p. 298.

97) “會意字. 甲骨文從瓜, 從子, 會抱子哺乳之意”,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465.

《王風·兔爰》“雉離于學(땡은 그물에 걸려드네)”

또한 《詩經》에서는 ‘감싸다’ 이외의 뜻인 ‘信’의 뜻으로 쓰였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새가 부화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있어 약속을 어기지 않으므로 인신되어 ‘믿다’는 뜻이 나타났을 것이다. ‘孚’가 ‘믿다’는 뜻으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雅·文王》“萬邦作孚(만방이 일어나서 믿으리라)”

《大雅·下武》“成王之孚(왕의 믿음을 이루셨다)”

【包】

‘包’는 ‘胞’의 초문으로 갑골문은 태아를 감싸는 형상이다. 《說文·勹部》에 보면 “象人裹妊，巳在中，象子未成形也。凡包之屬皆從包(사람이 태아를 임신한 것을 본 뜬 것이다. 대개 包의 部에 속한 것들은 모두 包를 따랐다)”라고 하여 ‘包’의 本義가 ‘태아를 감싸고 있는 태막’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包’가 ‘감싸다’는 뜻으로 인신 되자, 후기자 ‘胞’로 本義인 ‘태아’의 뜻을 나타내었다. ‘包聲’의 ‘苞’, ‘匏’, ‘匏’, ‘罨’, ‘袍’, ‘裈’, ‘炮’, ‘抱’, ‘颯’, ‘飽’ 등의 글자는 모두 ‘감싸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包聲’이 《詩經》에서 ‘감싸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邶風·匏有苦葉》“匏有苦葉(박에 쓴 잎사귀가 있거늘)”

《大雅·公劉》“酌之用匏(술을 따르는데 바가지를 써서)”

《秦風·無衣》“與子同袍(그대와 더불어 두루마기를 같이 하리오)”

《召南·小星》“抱衾與裯(이불과 홑이불을 안고 가니)”

《召南·野有死麕》“白茅苞之(고기를 흰 띠풀에 싸놓다)”

《衛風·氓》“抱布貿絲(베를 안고 실을 산다더니)”

《大雅·抑》“亦既抱子(또한 이미 자식을 안았도다)”

《秦風·權輿》“今也每食不飽(지금엔 매양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도다)”

《小雅·楚茨》“既醉既飽(취하고 배불러서)”

《小雅·苜之華》“鮮可以飽(배불리 먹는 사람은 드물도다)”

《小雅·瓠葉》“有兔斯首，炮之燔之(토끼 한 마리를 그슬리고 굽느니라)”

“有兔斯首，燔之炮之(토끼 한 마리 굽고 그슬리니)”

※ ‘炮’는 요리방법으로 털에 싸인 고기를 진흙으로 싸서 굽는 것이다.

《大雅·既醉》“既飽以德(덕에 이미 배불렀다)”

《周頌·執競》“既醉既飽(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러)”

이상에서 ‘孚’와 ‘包’는 旁紐, 疊韻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감싸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4)孚 : 膚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侯部·幫母》에 ‘稭’, ‘麩’, ‘麩’, ‘膚’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孚】

‘孚’는 《漢字源流字典》에 “인신되어 ‘씨’의 외피’를 가리킨다.⁹⁸⁾”라고 하였다. 씨의 외피는 껍과 통하므로, ‘孚’는 ‘겉’이다.

【膚】

‘膚’는 《說文·肉部》에 “臚, 皮也. 從肉, 盧聲. 膚, 籀文臚(가죽이다. 肉을 따르고, 盧聲이다. 臚는 膚의 주문이다)”라고 하였다. 가죽 또한 겉이므로 ‘膚’는 ‘겉’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孚	滂母幽部	芳無切	滂幫 旁紐, 幽魚 旁轉
膚	幫母魚部	甫無切	

‘孚’와 ‘膚’는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98) “引申指種子的外皮”,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465.

‘孚’와 ‘膚’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孚】

‘孚’의 本義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으로 《說文·爪部》의 “卵孚也. 從爪從子(알을 부화하는 것)”라는 풀이는 인신된 것이다. 《康熙字典》에는 “又孚甲(또한 껍질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孚’는 또한 ‘껍질’을 나타낸다. ‘孚聲’의 ‘𪔐’, ‘𪔑’, ‘𪔒’, ‘𪔓’, ‘𪔔’, ‘𪔕’, ‘𪔖’, ‘𪔗’, ‘𪔘’, ‘𪔙’, ‘𪔚’ 등의 글자들은 모두 ‘겉’, ‘외층’의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孚聲’이 《詩經》에서 ‘겉’, ‘외층’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曹風·蜉蝣》“蜉蝣之羽(하루살이의 깃털)”

위 항목의 ‘蜉蝣’는 온 몸이 딱딱한 껍질로 덮인 것에서 유래되었다.

【膚】

‘膚’는 ‘인체의 표피’를 가리킨다. 인체의 표피는 또한 겉이다.

다음은 ‘膚’가 《詩經》에서 ‘겉’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衛風·碩人》“膚如凝脂(피부는 엉긴 기름과 같고)”

한편 ‘膚’가 《詩經》에서 ‘겉’, ‘외층’의 뜻 외에 ‘아름답다’, ‘크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邶風·狼跋》“公孫碩膚(공이 크고 아름다움을 사양하시니)”
2. 《小雅·六月》“以奏膚公(큰 공을 아뢰도다)”
3. 《大雅·文王》“殷士膚敏(은나라 선비의 아름답고 민첩한 이들이)”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 3은 ‘아름답다’, 2는 ‘크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孚’와 ‘膚’는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겉’이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5) 孚 : 票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侯部·滂母》에 ‘洿’, ‘桴’, ‘漂’, ‘浮’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孚】

‘孚’는 《漢字源流字典》에 “새의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 위에 얹드려 있어야 하므로 인신되어 ‘孚’가 ‘뜨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99)”라고 하였다. ‘孚’의 ‘뜨다’는 뜻은 인신된 것이다.

【票】

‘票’는 《說文·火部》에 “輿(票), 火飛也(불꽃이 떠다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불꽃이 떠다니는 것은 불꽃이 공중에 떠있는 것이므로, ‘票’가 ‘뜨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孚	滂母幽部	芳無切	滂母 雙聲, 幽宵 旁轉
票 ¹⁰⁰⁾	滂母宵部	撫招切	

‘孚’와 ‘票’는 雙聲,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99) “鳥孵卵必伏於蛋上, 故引申指浮在面上, 浮躁”,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p. 465.

100) 《漢字古今韻表》에는 없다. 그러나 撫招切인 漂, 標 등의 글자들이 모두 滂母宵部이고, 票의 반절 또한 撫招切이므로 滂母宵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孚’와 ‘票’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孚】

‘孚’는 새가 알을 부화하는 것이다. ‘뜨다’는 뜻은 인신이다. ‘孚聲’의 글자인 ‘浮’, ‘桴’, ‘桴’ 등은 ‘뜨다’는 뜻과 관련된다.

다음은 ‘孚聲’이 《詩經》에서 ‘뜨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菁菁者莪》“載沉載浮(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도다)”

《小雅·角弓》“雨雪浮浮(함박눈이 펄펄 날리나)”

《大雅·生民》“烝之浮浮(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찌며)”

《大雅·江漢》“江漢浮浮(강수와 한수가 유유히 흐르니)”

【票】

‘票’는 ‘불꽃이 떠다니는 것’이고, 王力이 언급한 ‘漂’는 ‘물 위에 뜨는 것’이다. 또 ‘票聲’의 글자인 ‘飄’, ‘驃’, ‘標’, ‘嘌’, ‘嫖’, ‘標’, ‘標’, ‘飄’ 등의 글자들이 ‘뜨다’는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票’에는 ‘뜨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票聲’이 《詩經》에서 ‘뜨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鄭風·蘊兮》“風其漂女(바람이 너에게 나부끼리라)”

《邶風·鴟鵂》“風雨所漂搖(비바람도 나부끼고 흔드니라)”

이상에서 ‘孚’와 ‘票’는 雙聲,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뜨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滂母의 ‘흄’, ‘孚’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흄	辟	旁紐, 旁對轉	나누다.	1. 침 2. 침 뱉다.	剖, 搯, 締

	卑	旁紐， 旁轉	더하다.		培，倍，陪，賠，楛
孚	包	旁紐， 疊韻	감싸다.	1. 미쁘다. 2. 알까다. 3. 기르다. 4. 껌질 5. 싸다. 6. 달리다, 떠들다.	孵，擧，桴
	膚	旁紐， 旁轉	겉		麤，桴，桴，桴，桴，桴，桴，桴，桴
	票	雙聲， 旁轉	뜨다.		浮，桴，桴

위 표를 보면 ‘孚’는 ‘감싸다’, ‘겉’이라 뜻으로 본의, 인신의 등으로 의미가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나누다’, ‘더하다’라는 뜻의 ‘음’, ‘뜨다’는 뜻의 ‘孚’는 사전적 의미항목에는 없다. 이처럼 ‘음’, ‘孚’가 이러한 뜻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並母

본고에서 언급할 並母의 글자들은 ‘皮’, ‘賁’이다.

(1) 皮：扁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歌部·滂母》에 ‘頗’, ‘偏’은 동원이라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皮】

‘皮’는 짐승의 가죽으로 ‘바르지 않다’는 뜻은 없다. 그러나 ‘皮’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가죽은 울퉁불퉁해서 고르지 않고, 고르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皮’에 ‘바르지 않다’는 뜻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皮聲’의 ‘波’, ‘坡’, ‘岐’, ‘陂’, ‘駝’, ‘頗’, ‘披’, ‘彼’, ‘跛’, ‘詖’ 등의 글자들이 ‘바르지 않다’는 뜻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皮聲’이 ‘바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扁】

‘扁’의 의미항목에 ‘바르지 않다’의 뜻은 없다. 그러나 ‘扁聲’의 ‘偏’, ‘癩’, ‘偏’, ‘蹠’, ‘徧’, ‘偏’ 등의 글자들이 ‘바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扁聲’이 ‘바르지 않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皮	並母歌部	符羈切	並幫 旁紐, 歌眞 旁對轉
扁	幫母眞部	芳連切	

‘皮’와 ‘扁’은 旁紐, 旁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皮’와 ‘扁’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皮】

‘皮’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說文·皮部》에 “剝取獸革者謂之皮(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皮聲’을 성부로 한 ‘波’, ‘坡’, ‘岐’, ‘陂’, ‘駝’, ‘頗’, ‘披’, ‘彼’, ‘跛’, ‘詖’ 등의 글자들은 ‘바르지 않다’는 뜻과 관계된다.

다음은 ‘皮聲’이 《詩經》에서 ‘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小雅·漸漸之石》“烝涉波矣(여럿이 물결을 건너며)”

《陳風·澤陂》“彼澤之陂(저 연못 언덕에)”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의 ‘波’는 《說文·水部》에 ‘水涌流也. 從水, 皮聲(수면이 용솟음치고 또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이 용솟음치는 것은 평평하지 않는 것이고 평평하지 않는 것은 고르지 않는 것이다. 2의 ‘陂’는 경사진 산비

탈로 《說文·阜部》에 ‘陂, 阪也(비탈이다)’라고 하였다. 산비탈 역시 고르지 않는 것이다.

또한 《詩經》에서는 ‘바르지 않다’는 뜻 이외에 ‘가죽’의 뜻으로 쓰인 예가 있다. 다음은 ‘가죽’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召南·羔羊》“羔羊之皮(염소 가죽이여)”

《鄘風·相鼠》“相鼠有皮(쥐를 보건대 가죽이 있으니)”

《大雅·韓奕》“獻其貔皮(그 비휴가죽과)”

【扁】

‘扁’의 本義는 ‘扁額’으로 장방형으로 글을 적어 문 위에 걸어두는 것이다. 《說文·冊部》에 “署也. 從戶, 冊. 戶冊者, 署門戶之文也(표제를 쓰는 것이다. 戶, 冊을 따르는 회의이다. 戶冊은 문에 쓰는 문자이다)”라 하였다. ‘고르지 않다’는 뜻은 성부에 실려 있는 어원의이다.

‘扁’이 《詩經》에서 ‘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史記》에서 보인다. 다음은 《史記》의 예이다.

《史記·匈奴列傳》“天不頗覆, 地不偏載(하늘은 치우쳐 덮지 않고 땅은 치우쳐 싣지 않는다)”

한편, 《詩經》에서는 ‘扁’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小雅·白華》“有扁斯石(낮은 돌은)”
2. 《邶風·北門》“室人交徧謫我(집사람들이 두루 나를 꾸짖는다)”
3. 《邶風·北門》“室人交徧摧我(집사람들이 두루 나를 저지한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평평하다’, 2는 ‘두루’의 뜻으로 쓰였다. 1의 ‘扁’은 편액의 형태가 평평하고 얇아 ‘납작하고 평평하다’로 인식되었고, 2의

‘徧’은 ‘扁’의 어원의이다.

이상에서 ‘皮’와 ‘扁’은 旁紐, 旁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바르지 않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2) 皮 : 補

殷寄明은 ‘皮聲’의 ‘더하다’는 뜻의 同源字를 ‘補’로 推源하였고, 《同源字典·歌部·並母》에 ‘皮’, ‘被’, ‘披’, ‘帔’는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皮】

‘皮’의 ‘더하다’는 뜻은 ‘皮’의 本義와 통한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皮’라 하고, 동식물의 표층 또한 ‘皮’라 한다. 다시 인신되어 물체의 겉, 바깥에 더해지는 물건을 ‘皮’라 한다. 또한 《廣韻》에는 “被覆體也(몸에 이불을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덮는 것은 더하는 것으로 ‘皮’가 ‘더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補】

‘補’의 의미항목에는 ‘더하다’, ‘증가하다’의 뜻이 있다. 《說文·衣部》에 “完衣也(옷을 수선하여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형질조각을 더하여 옷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인신되었다. 《康熙字典》에도 “又益也(또한 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皮	並母歌部	符羈切	並幫 旁紐, 歌魚 通轉
補	幫紐魚部	博古切	

‘皮’와 ‘補’는 旁紐, 通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皮’와 ‘補’가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皮】

‘皮’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그러나 ‘皮聲’의 ‘被’, ‘帔’, ‘紕’, ‘髮’, ‘賫’, ‘彼’ 등의 글자들이 ‘더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으므로, ‘皮聲’이 ‘더하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皮聲’이 《詩經》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既醉》“天被爾祿(하늘이 네게 복을 입혀)”

【補】

‘補’는 옷을 수선하는 것으로, 引伸義 중에는 ‘더하다’는 뜻이 있다.

‘補’가 《詩經》에서 ‘더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는 없고, 《左傳》에 보이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左傳·宣公十五年》“狄有五罪, 雋才雖多, 何補焉?(적에게는 다섯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주가 비록 많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에서 ‘皮’와 ‘補’는 旁紐, 通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더하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3) 賁 : 邊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眞部·幫母》에 ‘濱’, ‘頻’, ‘瀕’, ‘邊’, ‘墳’, ‘濱’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賁】

‘賁’의 의미항목에 ‘주변’이라는 뜻은 없는데, ‘賁聲’의 ‘贗’, ‘濱’, ‘楨’, ‘隕’, ‘墳’ 등의 글자가 ‘주변’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賁’에 ‘주변’의 뜻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邊】

‘邊’은 《廣韻》에 “邊, 畔也(가장자리이다)”라고 하였다. 가장자리는 주변과 통하므로, ‘邊’은 ‘주변’이라는 뜻과 관련된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賁	並母文部	符非切	並幫 旁紐, 文元 旁轉
邊	幫母元部	布玄切	

‘賁’과 ‘邊’은 旁紐, 旁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賁’과 ‘邊’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賁】

‘賁’은 《說文·貝部》에 “飾也. 從貝, 卉聲(꾸밈이 번창한 것이다. 貝를 따르고 卉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여 本義는 ‘꾸밈이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墳’, ‘濱’을 살펴보면, ‘墳’은 ‘제방’으로 물가에 있는 것이고, ‘濱’은 ‘물가’로 ‘주변’의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詩經》에서 ‘賁聲’이 ‘주변’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大雅·常武》“鋪敦淮濱(회수 가에 진을 쳐 두텁게 하여)”

《周南·汝墳》“漙彼汝墳(저 여수가의 방죽을 따라)”

또한 ‘賁聲’이 《詩經》에서 ‘주변’ 이외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衛風·碩人》“朱幘鑣鑣(붉은 끈을 감은 채갈은 아름답고)”
2. 《小雅·白駒》“賁然來思(빛나게 오면)”
3. 《大雅·靈臺》“賁鼓維鏞(큰 북과 큰 종 달려있도다)”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2는 本義인 ‘장식하다’, 3은 ‘크다’로 쓰였으며, 이것들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邊】

‘邊’은 《說文·辵部》에 “行垂崖也. 從辵, 髑聲(가장자리까지 걸어갔다는 것이다. 辵을 따르고 髑聲이다)”라고 하였다. ‘邊’은 ‘옆’, ‘주변’이다.

‘邊’이 《詩經》에서 쓰인 예는 없고, 《左傳》에서 보이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左傳·成公十三年》“虔劉我邊垂(우리 국경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상에서 ‘賁’과 ‘邊’은 旁紐, 旁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주변’이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並母의 ‘皮’, ‘賁’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字
皮	扁	旁紐, 旁對轉	바르지 않다.	1. 가죽 2. 껍질 3. 걸 4. 과녁 5. 껍질벗기다.	波, 坡, 岐, 陂, 駢, 頗, 披, 佻, 跛, 詖
	補	旁紐, 通轉	더하다.		被, 帔, 緞, 髮, 賤, 彼
賁	邊	旁紐, 旁轉	주변	① 1. 꾸미다. 2. 바꾸다.	幘, 瀆, 積, 隕, 墳

				3. 섞이다. 4. 비괘 ② 1. 꾸미다. 2. 크다. 3. 큰 북 4. 날래다, 용감하다. 5. 결내다. 6. 흠뻑아오르다. 7. 무찌르다, 패하다. ③ 1. 땅이름	
--	--	--	--	--	--

위 표를 보면 ‘더하다’는 뜻의 ‘皮’는 ‘껍질’이라는 引伸義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껍질’은 물질의 겉에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다’는 뜻이 나왔다. 그러나 ‘바르지 않다’는 뜻의 ‘皮’, ‘주변’이라는 뜻의 ‘賁’은 本義, 引伸義와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皮’, ‘賁’이 이러한 뜻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明母

본고에서 언급할 明母의 글자는 ‘莫’이다.

(1) 莫 : 冥

성부와 성부의 동원관계를 살피고자 《同源字典》에서 제시한 글자를 채택하였다. 《同源字典·鐸部·明母》에 ‘暮(莫)’, ‘晚’, ‘冥’은 동원이라고 하였다.

① 자형으로 본 의의와 어음관계

【莫】

‘莫’은 《廣韻》에서 “晚也, 冥也(늦은 것이다.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艸部》에서는 “日且冥也. 從日在艸中(태양이 곧 지려는 것이다. ‘日’이 ‘艸’속에 있는 것을 따른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莫’은 수풀사이에 태양이 있는 모습으

로 저무는 모습으로, 해가 저물 때는 사망이 어두워지므로, ‘莫’은 ‘어두운 것’이다.

【冥】

‘冥’은 《廣韻》에 “暗也(어두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冥’은 ‘어두운 것’이다.

이 두 글자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동원관계일 조건을 갖추고 있다.

例字	上古音	中古音	音韻關係
莫	明母鐸部	慕各切	明母 雙聲, 鐸耕 旁對轉
冥	明母耕部	莫經切	

‘莫’과 ‘冥’은 雙聲, 旁對轉의 관계이다.

② 선진문헌에 있어서의 의미

‘莫’과 ‘冥’이 문헌에서 사용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莫】

‘莫’은 ‘暮’의 초문으로, ‘어둡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莫聲’의 ‘暮’, ‘曠’, ‘曠’, ‘瘼’, ‘漠’, ‘糶’ 등의 글자들은 ‘어둡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莫聲’이 《詩經》에서 ‘어둡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齊風·東方未明》“不夙則莫(이른 아침 아니면 저물도다)”
2. 《唐風·蟋蟀》“歲聿其莫(해가 드디어 저물었도다)”
3. 《小雅·采薇》“歲亦莫止(해가 또한 저물리로다)”
4. 《小雅·小明》“歲聿云莫(해는 마침내 저물었도다)”
5. 《小雅·四月》“亂離瘼矣(어지러이 근심하다가 병이 되었으니)”
6. 《大雅·桑柔》“瘼此下民(이 아래 백성들을 병들게 하도다)”
7. 《大雅·抑》“誰夙知而莫成(누가 일찍 알고도 늦게 이루리요)”
8. 《大雅·雲漢》“方社不莫(사방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드림을 늦게 하지 아니했으니)”
9. 《周頌·臣工》“維莫之春(늦은 봄일지니)”

10. 《小雅·巧言》“聖人莫之(성인이 정하셨느니라)”
11. 《大雅·皇矣》“求民之莫(백성의 안정을 구하시니)”
12. 《大雅·板》“民之莫矣(백성들이 안정되리라)”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4는 ‘어둡다’, 5~6은 ‘병’, 7~9는 ‘늦다’, 10~12는 ‘안정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5~6의 ‘瘼’은 막연하여 그 이름을 모르는 병, 즉 일반적인 병을 말한다. 막연한 것은 ‘어둡다’는 뜻과 통한다. 7~9는 해가 저물어 어두우면 늦은 것이므로 ‘늦다’라는 뜻이 파생되었을 것이다. 10~12의 ‘안정되다’의 뜻은 ‘밤’의 뜻에서 인신되었고 ‘밤’은 어두운 것이다. 이러한 모든 뜻은 ‘어둡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莫’은 또한 부사로 쓰여 부정을 나타낸다. 《詩經》에는 ‘莫’이 ‘不(아니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召南·殷其雷》“莫敢或違(감히 혹 겨를을 내지 못하는고)”
 “莫敢違息(감히 쉴 겨를을 내지 못하는고)”
 “莫或違處(혹 겨를 없어 편안하지 못하는고)”
- 《邶風·終風》“莫往莫來(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느니라)”
- 《邶風·凱風》“莫慰母心(어머니 마음을 위로해드리지 못하는가)”
- 《邶風·谷風》“德音莫違(아름답고 명예로움을 어기지 않을진댄)”
- 《邶風·北門》“莫知我艱(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도다)”
- 《邶風·北風》“莫赤匪狐(붉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莫黑匪烏(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라)”
- 《鄘風·蝦蟇》“莫之敢指(감히 가리키지 못하리로다)”
- 《衛風·竹竿》“遠莫致之(멀어서 이루지 못하리로다)”
- 《王風·葛藟》“亦莫我顧(또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亦莫我有(또한 나를 기억해주지 아니하도다)”
 “亦莫我聞(또한 나에게 들려주지 아니하도다)”
- 《鄭風·女曰雞鳴》“莫不靜好(고요하고 좋지 않음이 없도다)”
- 《魏風·碩鼠》“莫我肯顧(나를 좋게 돌아보지 아니하는데)”
 “莫我肯德(나를 즐기어 덕을 보이지 아니하니)”

- “莫我肯勞(나를 즐기어 위로하지 아니하니)”
- 《小雅·常棣》“莫如兄弟(형제만 같지 못하니라)”
- 《小雅·天保》“以莫不庶(많지 않음이 없도다)”
- “以莫不興(흥하지 아니함이 없는지라)”
- “以莫不增(불어나지 아니함이 없도다)”
- 《小雅·采芣》“莫知我哀(우리 슬픔을 알아주지 아니하도다)”
- 《小雅·湛露》“莫不令德(덕이 어질지 아니함이 없도다)”
- “莫不令儀(위의가 어질지 아니함이 없도다)”
- 《小雅·沔水》“莫肯念亂(난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 “寧莫之懲(어찌 징계하지 못하는고)”
- 《小雅·節南山》“僭莫懲嗟(일찍이 징계하고 슬퍼하지 아니했도다)”
- 《小雅·正月》“寧莫之懲(어찌 징계하지 못하는고)”
- 《小雅·十月之交》“胡僭莫懲(어찌 일찍이 경계함이 없는고)”
- “民莫不逸(백성은 편안하지 않는 자 없거늘)”
- 《小雅·雨無正》“莫知我勩(나의 수고로움을 알지 못하며)”
- “莫肯夙夜(아침 일찍이나 밤늦도록 섬김이 없으며)”
- “莫肯朝夕(아침저녁으로 섬기지 아니하기에)”
- “莫肯用訊(즐기어 아뢰지 아니하고)”
- 《小雅·小旻》“莫知其他(그 다른 것을 알지 못함이라도)”
- 《小雅·小弁》“民莫不口穀(백성은 좋지 않음이 없거늘)”
- “寧莫之知(어찌 알지 못하는고)”
- “莫高匪山(더없이 높은 것이 산이 아니며)”
- “莫浚匪泉(더없이 깊은 것이 샘이 아닌가)”
- 《小雅·蓼莪》“民莫不穀(백성은 좋지 않음이 없거늘)”
- 《小雅·四月》“民莫不穀(백성은 좋지 않음이 없거늘)”
- “莫知其尤(그 허물을 아지 못하도다)”
- “寧莫我有(어찌 나를 기억해두지 않는고)”
- 《小雅·北山》“莫非王土(왕의 땅이 아님이 없으며)”
- “莫非王臣(왕의 신하 아님이 없는데)”
- 《小雅·楚茨》“式禮莫愆(예에 어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 “莫怨具慶(원망하는 이가 없고 모두 경축함이라)”

《小雅·角弓》“莫肯下遺(즐기어 낮춰서 버리지를 아니하고)”
 《大雅·行葦》“莫遠具爾(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
 《大雅·板》“則莫我敢葵(우리를 감히 헤아려주는 이가 없으니)”
 “曾莫惠我師(일찍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없도다)”
 《大雅·蕩》“曾是莫聽(일찍이 듣지 않았음이라)”
 《大雅·抑》“莫捫朕舌(네 혀를 잡아주는 이가 없는지라)”
 “莫予云觀(나를 보는 이가 없다 하지 말라)”
 《大雅·雲漢》“寧莫我聽(어찌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려고)”
 《大雅·崧高》“莫如南土(남쪽 땅만한 곳이 없도다)”
 《大雅·烝民》“愛莫助之(사랑하여도 도울 수가 없도다)”
 《大雅·韓奕》“莫如韓樂(한나라만큼 즐거운 곳이 없도다)”
 《周頌·時邁》“莫不震疊(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周頌·思文》“莫匪爾極(당신의 지극하심이 아님이 없느니라)”
 《周頌·小毖》“莫予荇蜂(내 벌을 부릴지 말지어다)”
 《魯頌·閟宮》“則莫我敢承(곧 우리를 감히 맞서지 못하도다)”
 “莫不率從(따르지 않은 이가 없으니)”
 “莫敢不諾(감히 응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商頌·長發》“則莫我敢曷(나를 감히 막지 못하리로다)”
 “莫遂莫達(이루지도 못하고 통하지도 못하여)”
 《商頌·殷武》“莫敢不來享(감히 와서 바치지 않음이 없었으며)”
 “莫敢不來王(감히 와서 왕으로 섬기지 않음이 없어)”

‘莫’이 ‘아니다’의 뜻으로 쓰인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冥】

‘冥’은 갑골문에 두 손으로 덮개를 잡고 있고 안쪽에는 해가 있는 모습이다. 本義는 ‘밤’으로 《說文·冫部》의 “幽也. 從日從六, 冫聲(깊숙하고 어둡다는 것이다. 日과 六에서 비롯된 회의자로 冫聲이다)”이라는 풀이는 引伸義이다.

다음은 ‘冥’이 《詩經》에서 ‘어둡다’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1. 《小雅·無將大車》“維塵冥冥(오직 먼지만 자욱하리라)”

2. 《小雅·斯干》“嘒嘒其冥(깊고 넓은 그 방안이니)”

위 예문에 사용된 의미항목을 보면, 1은 ‘어둡다’, 2는 ‘깊숙하고 고요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2는 ‘깊은 밤’이라는 뜻에서 또한 인신되었고 이는 어두운 것과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莫’과 ‘冥’은 雙聲, 旁對轉의 관계로 모두 同源字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의미도 ‘어둡다’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同源字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明母의 ‘莫’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聲符	同源字	어음관계	문헌상의 의미	사전적 의미	例 字
莫	冥	雙聲, 旁對轉	어둡다.	① 1. 없다. 2. 말다. 3. 비다. 4. 아득하다. 5. 어둡다. 6. 정하다. 7. 앓다. 8. 장막 9. 깎다. 10. 막 11. 조용하다. 12. 꺾하다. ② 1. 저물다. 2. 나물	暮, 曠, 曠, 瘼, 漠, 糶

위 표를 살펴보면, ‘莫’의 ‘어둡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IV. 결론

同源字는 음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이다. 어음의 同近이나 의미의 同近문제는 자의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同源字의 판정근거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학자들의 諸說이 있지만 王力の 판정근거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王力の說을 살펴보았다. 王力은 同源字는 어음과 의미가 모두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어음과 의미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어음방면으로는 韻部가 疊韻,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의 관계이면 동원이고, 聲紐가 雙聲, 旁紐, 隣紐의 관계이면 동원이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同義, 引伸義, 假借義 등의 관계이어야 동원자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聲符가 서로 다른 글자들이 語音과 意義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서로 同源字임을 밝히고자 舌音(端母, 透母, 定母, 泥母, 來母) 31조, 脣音(幫母, 滂母, 並母, 明母) 21조의 성부를 어음방면과 의미방면으로 나누어 글자에 포함된 의미 및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 예문은 주로 《詩經》에서 찾았으며, 《詩經》에 없는 예문은 기타의 선진문헌에서 찾아보았다. 본문의 글자들은 語音上으로 聲母에 있어서는 雙聲, 旁紐, 隣紐의 관계이고, 韻部에 있어서는 疊韻, 對轉, 旁轉, 旁對轉, 通轉의 관계이다. 그리고 意義上으로 同義, 引伸義, 假借義 등의 관계로, 모두 ‘音近義同’ 혹은 ‘音同義近’으로 모두 同源字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성부는 語音 뿐만 아니라 뜻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성부는 여러 가지 다른 어의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성부는 성부의 本義, 引伸義와 관계없이 여러 개의 語義를 나타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부에서 찾아낸 뜻을 근거로 同源字를 추원하여 밝혔는데 그 글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眞’은 ‘꼭대기’, ‘더하다’, ‘조밀하다’, ‘넘어지다’는 뜻을 나타내고, 이들은 각각 ‘頂’, ‘添’, ‘參’, ‘失’과 동원관계이다.

② ‘氐’는 ‘아래’, ‘이르다’, ‘저촉되다’는 뜻을 나타내고, ‘地’, ‘至’, ‘戾’와 동원이다.

③ ‘耑’도 ‘둥글다’, ‘가지런히 하다’, ‘급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專’, ‘斷’, ‘瀨’와 동원이다.

④ ‘屯’은 ‘두텁다’, ‘모이다’는 뜻을 나타내고, ‘享’, ‘集’과 동원이다.

⑤ ‘龍’은 ‘높다’, ‘섞이다’는 뜻을 나타내고, ‘凌’, ‘尨’과 동원이다.

⑥ ‘甫’는 ‘돕다’, ‘펴다’는 뜻을 나타내고, ‘扶’, ‘布’와 동원이다.

⑦ ‘包’는 ‘무성하다’, ‘맹렬하다’는 뜻이고, ‘茂’, ‘暴’과 동원이다.

⑧ ‘并’은 ‘나란하다’, ‘덮다’는 뜻으로 ‘比’, ‘庇’와 동원이다.

⑨ ‘分’은 ‘나누다’, ‘어지럽다’, ‘크다’는 뜻이고, ‘判’, ‘紊’, ‘般’과 동원이다.

⑩ ‘棼’는 ‘나누다’, ‘더하다’는 뜻이고, ‘辟’, ‘卑’와 동원이다.

⑪ ‘孚’는 ‘감싸다’, ‘걸’, ‘뜨다’는 뜻이고, ‘包’, ‘膚’, ‘票’와 동원이다.

⑫ ‘皮’는 ‘바르지 않다’, ‘더하다’는 뜻이고, ‘扁’, ‘補’와 동원이다.

그리고 聲符義의 절대다수가 本義, 引伸義와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다음의 글자들이 본의, 인신의와 무관하였다.

① ‘豕’의 본의는 ‘발이 묶인 돼지’인데, ‘豕聲’의 ‘豶’, ‘豨’, ‘豨’, ‘豨’, ‘豨’, ‘豨’, ‘豨’ 등의 글자들은 ‘때리다’는 뜻과 관련이 있고, ‘筑’, ‘蜀’과 동원이다.

② ‘兆’의 본의는 ‘거북의 꺾데기로 짐치는 것’인데, ‘兆聲’의 ‘佻’, ‘桃’, ‘窈’ 등의 글자들은 ‘경박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兪’와 동원이다.

③ ‘卒’의 본의는 ‘고대 노예나 하인이 입는 옷’인데, ‘卒聲’의 ‘粹’, ‘倅’, ‘粹’ 등의 글자들은 ‘순수하다’는 뜻과 관계가 있고, ‘純’과 동원이다.

④ ‘賁’의 본의는 ‘꾸밈이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賁聲’의 ‘贗’, ‘橫’, ‘潰’ 등의 글자들은 ‘주변’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邊’과 동원이다.

또한 聲符義가 本義, 引伸義와는 다르지만, 聲符義는 聲符字가 지칭하는 사물의 성질,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글자는 다음과 같다.

① ‘而’의 본의는 ‘수염’이다. 수염은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而聲’은 ‘유연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 ‘柔’와 동원이다.

漢字 중 어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 사이에는 상당 부분 의미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고, 성부가 同源字의 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성자의 성부가 의미와 관계없이 ‘소리’만 나타내기도 하므로, 성부가 같다

고 반드시 同源字인 것은 아니며, 서로 자형은 완전히 다르지만 동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同源字의 판단은 어음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는가가 관건이며 성부가 이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서적 및 단행본】

- 康熙字典, <http://tool.httpcn.com/KangXi>.
- 高樹藩,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80.
- 谷衍奎, 《漢字源流字典》, 語文出版社, 2008.
- 金學主, 《詩經》, 明文堂, 2002.
-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 上海大學出版社, 2008.
-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2008.
- 楊樹達, 《積微居小學金石論叢·形聲字聲旁有義略證》, 科學出版社, 1955.
-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7.
- ,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 殷寄明, 《漢語同源字詞叢考》, 東方出版中心, 2007.
- , 《漢語語源義初探》, 學林出版社, 1998.
- , 《語源學概論》, 上海教育出版社, 2000.
- 李敦柱, 《漢字學總論》, 박영사, 1994.
- 이영주,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 2000.
-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3.
- 張氏澤存堂本影印, 《宋本廣韻》, 中國書店, 1982.
- 鄭玄 箋, 《毛詩正義》, 藝文印書館.
- 周緒全·王澄愚, 《古漢語常用詞源流辭典》, 重慶出版社, 1991.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岳麓書社, 2001.

【논문류】

- 李研周, 〈漢語同源詞音韻研究〉, 臺灣大學校 博士學位論文, 中華民國84年.
- 李 玉, 〈漢語同源字研究〉, 《賀州學院學報》, 第24卷 第1期, 2008.
- 林明花, 〈‘高’계열 同源字 고찰〉, 《中國人文科學》, 第29輯, 中國人文學會, 2004.
- , 〈‘豆’계열 同源字 고찰〉, 《中國人文科學》, 第32輯, 中國人文學會, 2006.

- _____, 〈同源詞系聯 舉例〉, 《중국어문학논집》, 第20輯,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 _____, 〈한어사원학과 동원사계련 고찰〉, 《중어중문학》, 제20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7.
- 鄭振峰·李冬鵠, 〈關於同源詞的判定問題〉, 《語文研究》, 第1期, 1996.
- 진광호, 〈‘슴’ 同源字 探索〉, 《中國學》, 第38輯 대한중국학회, 2011.
- _____, 〈형성자 성부 替換현상〉, 《中國學》, 第49輯 대한중국학회, 2007.
- 陳殿璽, 〈試論同源詞的考證方法〉, 《大連教育學院學報》, 第1期, 1998.
- 韓延錫, 〈東, 冬, 陽, 蒸部の 同源字考〉, 《中語學論叢》, 第28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0.
- 胡繼明, 〈《廣雅疏證》 同源詞研究〉,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 侯尤峰, 〈《說文解字注》 中的同源字研究〉, 《湖北大學學報》, 第1期, 1996.



The study of cognate Chinese characters

Seon-Mi Kim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Jae-Cheol Ahn)

【ABSTRACT】

The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cognate characters (同源字) that represent the same sound as another with the same or similar meaning.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cognate characters in the semantic aspect by examining the phonemic relationship of words composed of two or more Chinese characters.

The study examined semantic derivations of the suggested cognate characters in “Dictionary of Paronyms (同源字典)” authored by Wang Li (王力) and “Chinese Cognate Characters Textual Words (漢語同源字詞叢考)” authored by Yin Jiming (殷寄明) to identify cognate characters. Due to the enormous volume of contents, the study specified and focused on the lingual and labial sounds as they are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ound between the ancient and medieval phonology. The cited characters from the two sources were verified for their function as a cognate word by citing them in the phrases used for the same intent in “*Shijing*(詩經), or the Book of Poetry (often translated as The Book of Odes or The Classics of Poetry), a collection of 305 poems written between 1000 and 600 B.C. (Baxter, 1992: 355). The study adopted the reconstructed pronunciation of the ancient Chinese characters based on the publication, “A Pronouncing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漢字古今音表),” co-authored by Li Zhenhua (李珍華) and Zhou Changji (周長楫).

Phonetically, the cited characters satisfied as forming one of the three correlativity criteria for the initials to include, double sounds (雙聲), subsequent-tie (旁紐), and parallel-tie (隣紐), while one of five correlativity criteria for the finals to include, alignment of vowel rhyme or assonance (疊

韻), having the same nucleus and similar ending of rhyme (對轉), having a similar nucleus and the same ending (旁轉), or mixing the previous two ways of nucleus and ending of rhyme (旁對轉), and having the same vowel but in the different sound categories (通轉). In the aspect of semantic categorization, the characters revealed adopting a semantic expression of the three categories to include, synonym (同義), extended meanings of an expression (引申義), and borrowed meanings (假借義). Hence, all of the Chinese characters tested in the study revealed to be genuine cognate characters, as homophonic synonym, either having a similar sound but the same meaning (音近義同) or the same sound but a similar meaning (音同義近).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the vocal part of the characteristics contains not only the phonetic but also semantic functions, as well. Therefore, although the vocal part is identical, the characters represent a number of different meanings regardless of the type of correlativity criteria whether the characters are representing their original meanings (本義) or derived meanings (引申義).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ognate characters that have a vocal part with a different meaning from their original or extended meaning,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meaning of the vocal part still reflects on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indicated by the character consisted of the vocal part.

In conclus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ognate Chinese characters show a significant semantic similarity when the characters share an identical pronunciation or similarity as a written character.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vocal part has a close relationship in the derivations of cognate characters. The vocal part of certain morpheme-phonetic characters (形聲字) is semantically indifferent and irrelevant but represent a “sound,” which reveals that having the same vocal part does not necessarily verify that the corresponding character is a cognate one. Some of the characters were found as cognate character despite having a completely different written feature. Hence, the key criteria to verify the cognate property of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whether they have the same or a similar pronunciation, an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y share the property of common meaning. The evaluation of the vocal part can be a supplementary tool for the verification of cognate qualification.

Key Words : Cognate Chinese Characters, Ancient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Medieval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Lingual Sound, Labial Sound, Vocal Part, Pronunciation